



# 섬 과 바다, 섬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Island, Sea and Life There

섬과 바다 조사 연구 전망과 향후 과제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10시~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그곳에서의

# 삶



국립해양박물관



국민대학교





# 섬 과 바다, ,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  
Island, Sea and Life There

섬과 바다 조사 연구 전망과 향후 과제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10시~  
장소 | 국립해양박물관 대강당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 그곳에서의 삶



식 순



# 섬과 바다,

## 등록 및 개회 (사회: 백승옥)

- 10:00 접수 및 등록  
10:30 개회사 및 기념촬영

## 주제발표 (사회: 김재홍)

- 10:40 [기조강연]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 박종기 국민대학교

### 제1부 섬과 바다

- 11:10 도서·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남해안을 중심으로 / 홍보식 공주대학교  
11:35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 성과와 전망 / 문환석 국민대학교  
12:00 점심  
13:00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 홍영의 국민대학교  
13:25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 /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 제2부 섬과 바다에서의 삶

- 13:50 섬 주민의 생활사 연구현황과 연구 방향 / 김경옥 목포대학교  
14:15 휴식  
14:25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 변남주 국민대학교  
14:50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 최성환 목포대학교  
15:15 물고기, 상상, 생명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미래 / 김문기 부경대학교  
15:40 휴식

## 종합토론 (좌장: 박종기)

- 15:50 발표자 전원  
이형기 해양수산부 / 김 승 해양대학교 /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 김재홍 국민대학교

## 폐 회

- 16:50 폐회

그곳에서의

# 삼 리



## 목 차

---

[기조강연]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 박종기	9
------------------------------	---

### **제1부** 섬과 바다

발표 01_ 도서·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남해안을 중심으로 / 홍보식	21
발표 02_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 성과와 전망 / 문환석	49
발표 03_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 홍영의	65
발표 04_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 / 전경호	93

### **제2부** 섬과 바다에서의 삶

발표 05_ 섬 주민의 생활사 연구현황과 연구 방향 / 김경옥	109
발표 06_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 변남주	137
발표 07_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 최성환	147
발표 08_ 물고기, 상상, 생명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미래 / 김문기	161

## 개 회 사

---

섬 향나무 푸르름이 짙어지는 오월입니다. 2018년 국립해양박물관 학술대회 '섬과 바다, 그곳에서의 삶'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한지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특수법인으로 출발한지는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바다를 매개로 우리의 역사와 산업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바다가 만들어낸 섬에 대한 연구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다 위에서, 또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영위해 왔을까요.

선사시대의 섬은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바다에서 끌어올리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옥지도, 연대도, 산달도 등에서 발견된 패총에서 조개는 물론, 생선·강치, 돌고래 같은 바다짐승이 발굴되어 사람들이 바다에 의지해 살아왔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밖의 신석기시대 유물과 무덤 등의 생활흔적이 발굴되어 섬에서 사람들이 삶을 온전히 영위하였음을 뒷받침해줍니다.

고대의 바다는 문물 교류의 길이자 교역의 장이었습니다. 변한·진한과 가야 사람들은 배에 철을 싣고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습니다. 남해 창선과 사천 사이, 녹도라는 작은 섬에서는 항해와 관련된 다양한 제사유물과 유구가 발굴되어 고대인들이 일본·중국과 교역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섬은 가난과 고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금정책, 공도정책이 실시되고 섬이 유배지로 이용되면서 바다와 섬은 무섭고 접근하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섬은 끈기 있게 삶을 이어온 어부와 해녀들의 삶의 원천입니다. 바다에는 만선을 이룬 어부의 기쁨, 어부를 먼 바다에 보낸 섬 아낙의 근심 등,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바다 위를 오가던 작은 고깃배에서 한가득 무역품을 실은 무역선 모두가 바다의 삶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드넓은 바다와 섬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풍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섬과 바다에서 살아온 우리의 역사를 여러 분야에서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오늘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조강연, 발표와 토론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여러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역사 연구와 해양수산업 발전,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 11.

국립해양박물관장 손재학



기조강연

#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박종기  
국민대학교



# 한국 중세 바다와 섬의 인식

박종기(국민대)

목 차
I. 역사연구의 공간, 바다와 섬
II. 해양국가 고려왕조와 바다
III. 해상교류의 증거와 조운(漕運) 제도
IV. 고려시기 섬 이용과 개발
V. 조선시기 섬 인식의 변화

## I. 역사연구의 공간, 바다와 섬

한국사 연구는 공간적으로 육지를 주요한 연구공간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또 다른 공간인 바다와 섬은 연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었다. 궁정(宮廷)을 둘러싼 내륙이 국왕 관료 등 지배엘리트층의 중심무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시각을 고수할 경우 바다는 육지와 대륙을 차단하고 인간의 이동과 교류를 가로 막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섬은 육지와 고립된 존재로서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낙후지역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근대 시기 섬이 유배지로 주로 이용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심화되었다. 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한 단면은 다음의 글에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수많은 개정에도 불국하고) 우리 헌법의 변함없는 이 문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섬을) 부속도서라고 했다.

한반도에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말이니 자주적인 땅이 아니라는 뜻이어서 섬은 육지에 종속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내 과민일까? ... 섬은 우리 영토에서 은연중 하위존재로 취급한 까닭이며,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이른 지금에도 국토의 봉건적 주종관계를 헌법에서조차 의심 없이 명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sup>1)</sup>

바다와 섬은 한국인의 삶 및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관심 밖에 놓여 있던 공간은 아니었다. 바다는 원거리 지역을 연결시켜주고, 교역을 매개로 원격지 간의 경제적 문화적 낙차를 메꾸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바다와 인접한 섬은 어로와 소금 생산 등 풍부한 해산물 생산지이자 목축업 등이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국가 재정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또한 외적을 방어하는 전진기지로써 국토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했다. 요즈음 동양과 서양이 만나 하나의 지구촌 세계를 형성한 16세기 이후 서양의 근대를 ‘대항해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바다와 섬이 인류 문명사를 전환시킨 역사가 바로 ‘대항해 시대’이다. 이는 항해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다와 섬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위의 칼럼은 다시 섬 인식에 대한 새로운 뒤집기를 한다. 참고가 되어 인용한다.

“지도를 그렇게만 보란 법이 없으니 한번 뒤집어 보시라. 그러면 수 천개의 섬들이 마치 꽃봉오리 만개한 것처럼 반도의 땅 위에 통통거리는 것을 보게 된다. 형태도 위치도 다 다른 이 섬들은 모두가 모두에게 평등하며 자주적이다. 그러니 ‘여러 도서와 그 부속 육지’까지는 아니어도 ‘한반도와 여러 도서’가 다원적 민주주의 시대에 합당한 영토 규정 아닌가?”<sup>2)</sup>

바다와 섬에 대한 재인식과 주목은 역사연구의 대상과 폭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인식과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역사에서 바다를 열린 공간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강봉룡, 2005), 삼국이 바다 주도권을 둘러싸고 생사를 건 쟁투를 벌였고,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가 동북아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또한 해양패권을 장악한 왕건이 건국한 고려가 해양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 그 예이다. 이같이 우리역사에서 바다를 개방된 공간이자 진취적 도전의 대상으로 인식된 때도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은 바다와 섬을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해상교류와 국가적인 재부 창출에 적극적이었던 고려왕조의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와 조선시대 이후 섬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연구에서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1) 승효상, 2018,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앙선데이』 580(4월 21일).

2) 승효상, 위의 칼럼

## II. 해양국가 고려왕조와 바다

한국의 역대 왕조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경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고려왕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고려왕조는 해양국가의 성격도 지녔다. 고려왕조가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등 개방적 성격을 가진 것은 해양국가의 성격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왕조의 또 다른 특성이 된다.

해양국가란, 사전의 의미에서, 국토의 전체 또는 대부분이 바다에 둘러 쌓여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와 함께 해양국가의 또 다른 모습은 바다를 수단으로 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외무역이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거나 외국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를 해양국가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해양국가는 취약한 토지생산의 보충을 위해 바다를 통한 대외교역과 유통에 관심을 갖는다. 때문에 원거리 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한다. 바다를 통한 원거리 무역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유통과정상 가격의 낙차로 인해 생겨난 이윤이 때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클 경우도 있다. 상품의 직접 생산과 판매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산품에 대한 유통과 중개를 통해서도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해양국가는 언제나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고려왕조가 역대 어느 왕조보다도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활발한 대외무역은 이같은 해양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박종기, 2008)

전근대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주무대는 서해였다. 또한 그러한 해상교류는 멀리 지중해와 아라비아 서남아시아를 거쳐 남중국의 항구도시인 양주-천주-광둥으로 연결되는 해상실크로드인 이른바 ‘남해로’와 연결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상실크로드의 문물도 중국 대륙의 동쪽 끝인 산둥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와도 연결되었다.

고려왕조기 동아시아 해상교류 역시 서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해는 이같이 삼국시기 이래 고려에 이르기까지 해양교류의 중심지였다. 특히 서해의 동쪽, 즉 한반도 쪽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많은 만(灣)과 섬들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자연적인 항구와 포구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중국 쪽도 그런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산둥 반도와 중국의 동남해안에 많은 항구와 포구가 발달되어 있다. 동아시아 해상교류는 육로보다는 서해를 통하는 것이 더 빠르고 안전했다. 전근대 서해를 통한 동아시아의 문화 및 문물의 교류는 실제로 우리들

이 생각하고 있는 규모와 범위 이상으로 활발했다.(박종기, 2013)

### III. 해상교류의 증거와 조운(漕運)제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잇는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심지역이다. 중국의 당나라와 송나라가 적극적인 대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해상교역의 중심지에 놓여 있던 같은 시기 한반도의 통일신라와 고려왕조는 개방적인 대외무역의 추세를 외면할 수 없었다. 문헌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 자료가 많지 않지만,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당시 활발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5년 간(2007-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서해 충남 태안해역에 대한 조사 결과 1) 다량의 청자 자료 확보와 편년 정리, 2) 선상 도구와 식생활 자료를 통한 고려시기 생활사 복원, 3) 각종 선박 발굴과 조사, 4) 다량의 목간(죽찰) 자료 발굴을 통해 해양사 분야 연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윤용혁, 2015) 이러한 발굴 조사는 해양사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려주는 귀중한 성과이다.

위 태안해역에서 발굴된 마도 1,2,3호선 외에도 1970년 대 이후 한반도와 산둥반도 등 모두 서해안 일대에서 발굴된 중국과 고려 선박이 다수 출토, 발굴되었다. 당시 성행한 해상교류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인데, 마도선을 포함하면 모두 16 사례나 된다. 이 가운데 6개 유적에서 7척의 고려선박이 발굴되었다. 특히 200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중국 산둥성 봉래시(蓬萊市) 북단의 봉래수성(水城)에서 발굴된 봉래 3호선과 4호선은 고려의 원양 항해용 선박이며, 고려 말에 건조되어 조선 초기까지 운항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선박들은 모두 전남 신안, 목포, 진도, 완도, 군산, 나주 및 충남 보령, 태안과 경기도 안산 등지에서 발굴되었다. 또한 12세기인 고려 중기에서 고려 후기에 이르는 시기의 선박들이다.(김성범, 2009; 문경호, 2011) 특히 신안에서 발굴된 신안선은 13세기 무렵의 원나라 국제무역선으로, 중국 영파에서 한반도 황해의 서남해안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선박이었다. 고려시기 해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고려왕조기에 활발한 해상교류의 배경에는 국내의 여러 조건도 작용했다. 즉 고려왕조는 일찍부터 바다와 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그런 모습은 조운(漕運)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해안에 조창(漕倉)을 설



치하여, 각 군현에서 거두어진 조세를 모은 후 조운선을 이용하여 개경으로 조세를 운반한 조운제도는 고려 때 처음 실시되었다. 성종 때 확립된 12조창(뒤에 13조창으로 확대)은 모두 해안과 강안(江岸)에 설치되어, 그를 통해 전국의 조세가 수도 개경으로 수납되었다. 이 가운데 흥원창(강원도 원주)과 덕흥창(충북 충주)의 2개 창은 한강의 수운(水運)을 이용했으며, 나머지 10창은 모두 해운을 이용했다.

조운제도 실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조운제도를 통해 전국의 군현에 대한 조세를 직접 거두어 들여, 집권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서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물자를 운반하는 물류 시스템이 완비되었다는 점이다. 조운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물류 시스템으로 체계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와 강의 이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더욱이 해운을 이용한 조운로는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던 국제 해상 교역로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 조운제도의 확립은 고려왕조가 통일신라 이래 활성화 된 해양교류의 이점을 계속 활용하려 한 증거이며, 아울러 본격적인 대외교역과 해양교류를 하는 국내적인 조건을 완비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특히 최근 발굴 출토된 고려선박 가운데, 십이동파선과 마도 1호선과 2호선은 그 규모로 보아 조운선으로 추정된다. 조운제도가 해양에서 문물교류를 촉진시킨 원동력이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박종기, 2013; 문경호, 2014; 윤용혁, 2015)

#### IV. 고려시기 섬 이용과 개발

고려시기 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로부터 국가의 재부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전제개혁을 단행한 고려 말 사대부들은 국가의 재정확대를 위해 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했던 고려 초기 정책에 주목했다. 그들은 고려 태조가 견훤의 근거지인 서남 해안을 장악하여, 이곳에서 생산되는 생선 소금 등 수산물과 섬을 이용한 목축업의 이익으로 확보한 재원이 후삼국을 통일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생각했다. 섬을 국가의 중요한 재정원으로 파악한 당시 사대부들의 인식은 다음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섬은 어로와 소금 생산의 이익이 나오는 곳, 목축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번성할 수 있는 곳, 풍부한 해산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섬은 결코 없애거나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곳이다[諸島漁鹽之利 畜牧之蕃 海產之饒 國家之不可無者也].’<sup>3)</sup>

조선 전기 이선제(李先齊) 또한 토지소출과 같은 한정된 재정에 의지하기보다는 고려왕조와 같이 바다와 하천, 섬 등을 적극 개발, 이용해 국가의 재원을 확장하자고 상소했다.<sup>4)</sup> 고려정부는 어느 왕조보다도 섬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려 했다.

또한 섬에 대한 개발과 이용은 적의 침입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는 방책이 된다고 인식했다. 김방경(金方慶;1212-1300년)은 몽골 침입 당시 위도에 들어가 섬을 개발하여 백성의 터전을 마련해 몽골군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었다.<sup>5)</sup> 조은홀(趙云伋;1332-1404년)은 섬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섬을 방어하는 군관들에게 섬을 식읍으로 주어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면, 이들이 섬을 개발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게 되고 배와 무기를 만들어 섬을 방어하게 되고, 국가는 섬의 개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sup>6)</sup> 섬의 개발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고려 건국 이래 섬을 개발하고 이용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섬 이용과 개발에 적극적인 고려시기 섬 인식은 조선 초기 편찬된 지리지에 반영되어 있다. 『경상도지리지』(1425년)의 경우 「해중제도(海中諸島)」라는 독자 편목으로 섬에 관한 기록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의 경우 각 섬의 이용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수취 대상이나 개발 가능성 있는 섬만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경작지(국농소 둔전), 농수산물 생산(草場 소금 생선 미역 등), 목마(牧馬) 및 목우장(牧牛場), 군사(전선 수군 배치) 및 제사 기능 등이 기록되었다. 이같이 조선 초기 지리지에 나타난 섬 관련 기록은 고려시기 이래 섬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 V. 조선시기 섬 인식의 변화

조선시기 섬 인식은 조선 중기 이후 편찬된 관찬 지리지에 반영되어 있다. 먼저 『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여지도서(輿地圖書)』(1757-65년)에 나타난 섬 인식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섬 관련 기록은 「산천(山川)」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섬을 풍속과 자연 경관 등 인문 및 자연 지리의 일부이자 영토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섬의 경제 가치에 주목하여 섬을 개발하고 이용하려 한 고려시기 이래 섬 인식이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조선 중기 이후 크

3) 『고려사』 권82 병2 둔전 창왕 즉위년(1388년) 8월조

4)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경진(10일)조

5) 『고려사』 권104 김방경 열전

6) 『고려사』 권112 趙云伋 열전

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약 250년 뒤에 편찬된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을 보완하여 완성하려는 취지에서 편찬되었다. 섬에 관한 기록도 「산천」조에 기록되어 있다. 두 지리지는 섬은 수취 경제 자원의 대상이 아니라, 영토 내지 자연 지리의 일부로 정리한다는 조선 중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섬 인식이 반영된 특징이 있지만, 임진 병자의 양난 후 나타난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영토와 지리 전반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여지도서』와 같은 시기 편찬된 또 하나의 전국 지리지 『동국문헌비고』(1770년; 40책 100권)와 이를 보완한 『증보문헌비고』(1903-1908년; 50책 250권)는 섬에 관해 앞의 지리지와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두 지리지 모두 「여지고(輿地考)」라는 편목을 두고 지리 관계기록을 담고 있다. 내륙의 성곽은 「관방」조에 수록한 반면에, 섬[島嶼]에 관한 기록은 「해방(海防)」이라는 항목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즉, 섬을 관방시설의 일부인 해양관방(海洋關防) 지역, 즉 국토방어의 요충지로 파악하고 있다.(박종기, 2017)

섬을 「산천」조 대신 「해방」조에 넣어 기록한 것은 『동국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에 처음 나타난다. 이는 신경준(申景濬; 1712-1781년)의 『강역고(疆域考)』(『旅庵全集』 권4,5)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동 남 서의 세 변방이 바다에 접해 있고, 북쪽은 압록강 두만강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이 사실을 『강역고』에서 강조하여 기록하기 위해 「사연고(四沿考)」라는 편목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신경준은 많은 섬들을 국가에서 돌보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여 해도(海島)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해방(海防)의 중요성은 이미 임진왜란 이후부터 제기되었지만, 결국 신경준이 이를 지리지 서술에 적극 반영했고, 그 결과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 편찬에 반영되었다.(이근호, 2016) 이는 조선 후기 이후 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해방」조에는 섬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섬에 전선(戰船)과 방수군 배치, 봉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장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섬을 국토 방어의 전진기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섬을 포기하고 육지에서 방어 시설을 설치하려는 과거와는 다른 섬 인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 서, 남해 섬 지역에 황무지와 간척지를 개간하고, 목장이 개간되어 경작지로 전환되고 중앙정부는 이곳에 둔전을 설치한다. 또한 왕실과 궁방(宮房)은 서, 남해 도서에 궁방전을 설치,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섬 개발이 촉진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방어를 위해 섬에 진을 설치하려는 논의가 속종 대

이후 제기되어 수군진(水軍鎭)이 대거 설치된다.(김경옥, 2004; 이근호,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섬을 개발하고 그곳에 군사시설을 설치해 국토를 방어한다는 구상은 이전에도 나타나지만,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 섬을 국토를 방어하는 전지기지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문헌

-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경진(10일)조  
『고려사』 권82 병2 둔전 창왕 즉위년(1388년) 8월조  
『고려사』 권104 김방경 열전  
『고려사』 권112 趙云佐 열전

### 단행본

- 강봉룡, 2005, 『바다에 새겨진 한국사』, 광주: 한얼미디어 pp.3-6  
김경옥, 2004, 『조선후기 島嶼연구』, 서울: 혜안, pp.107-206  
문경호, 2014, 『조운제도 연구』, 서울: 혜안  
박종기, 2008,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서울: 푸른 역사. pp.31-34  
2013, 「해양(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 『한국 해양사』Ⅲ, 서울: 한국해양재단.  
pp.17-18, pp.28-32  
윤용혁, 2015, 『한국 해양사 연구』, 서울: 주류성, pp.103-140, pp.109-114

### 학술지

- 김성범, 2009, 「중국 봉래수성 출토 고려선」, 『한국중세사연구』27  
문경호, 2011, 「태안 마도1호선을 통해 본 고려의 조운선」, 『한국중세사연구』31  
박종기, 2017, 「조선시기 관찬 지리지의 섬 인식과 변화」, 『한국학논총』48, pp.139-148  
이근호, 2016, 「18세기 중반 『동국문헌비고』 ‘海防’ 조 편성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 46, pp.118-124

### 일간지

- 승효상, 2018,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중앙선데이』 580(4월 21일).



발표 1

도서 · 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남해안을 중심으로 -

홍보식  
공주대학교





# 도서·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

## -남해안을 중심으로-

홍보식(공주대학교)

목 차
I. 서언
II. 남해안지역의 유적 분포와 조사
1. 구석기시대
2. 신석기시대
3. 청동기시대
4. 삼한시대
5. 삼국시대
III. 남해안지역 유적·유물의 특징
1. 한반도 최대의 패총 분포
2. 다양한 외래 요소의 존재
3. 항만 시설과 항구도시의 존재
4. 제사유적의 존재
5. 지역간 교류의 궤적이 뚜렷함
IV. 맺음말

## I. 서언

인류는 구석기시대부터 바다를 무대로 생활을 영위하였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바다는 인류 생활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신석기시대에는 바다 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물적 증거가 바로 섬과 해안변 각지에 형성된 패총이다. 패총은 사람들이 해안에서 서식하는 조개류와 짐승, 물에서 서식하는 짐승 등을 포획하여 식량으로 사용한 후 쓰레기를 버린 쓰레기장이다. 패총은 신석기시대 이래 삼국시대까지 형성되었다. 이는 섬과 해안변에 거주한 집단들에게 있어 바다 자원이 중요한 식료원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바다는 인간의 식량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단거리 또는 원거리를 이동하는 이동로로도 활용되었다. 신석기시대 이래 현재까지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바닷길은 때론 위험이 따르기도 하였지만, 내륙 교통로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전근대 사회에서 사람과 물자이동의 중요한 루트가 되었다.

해로를 이용한 항행은 잔잔한 파도와 같이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인류의 문화를 격변시키기도 하였다. 14세기 이래 유럽 국가들이 신대륙을 횡단하면서 시작된 대항해 이후, 바다는 세계의 물류를 운송하는 거대한 공간이 되었고, 근대 자본주의 식민제국주의의 약탈지로서 변모되기도 하였다.

섬과 해안변에 거주한 사람들은 바다를 무대로 어로와 교역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은 해민으로서 바다를 생활의 무대로 활용하면서 존재하여 왔다.

신석기시대 이후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섬과 해안변에 형성된 다양한 성격의 유적(유구)과 유물은 해민집단들, 그리고 바다를 무대로 각지의 집단들과 교역 및 교류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영위한 집단들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남해안 지역 일대의 섬과 해안변에 분포된 유적을 대상으로 시대별로 일별한 후, 물질자료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해양, 그리고 해양문화 구명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조사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sup>1)</sup>

## II. 유적 분포와 조사

### 1. 구석기시대

남해안 일대에서 확인되었거나 알려진 구석기시대 유적은 부산 해운대 좌동·중동유적과 청사포유적, 남해 평산리유적, 사천 이금동유적, 하동 정수리유적, 운암리유적,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유적, 입면 송전리유적, 장흥 신북유적, 고흥 한동유적 등이 확인되었거나 조사되었다. 위의 유적 대부분은 세석인이 중심인 석기군이 확인되었고, 후기 구석기유적이다.

현재까지 섬에는 구석기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주로 육지의 해안변이나 해안과 내륙 하천이 합수되는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향후 전기 구석기 유적과 함께 섬에서의 유적 확인이 필요하다.

1) 필자에게 부여된 주제는 「도서 해안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와 과제」이다. 이 과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섬과 육지의 해안에 이루어진 유적이 그 대상으로서 매우 큰 주제이어서 짧은 지면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남해안 섬과 육지의 해안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 2. 신석기시대

남해안 연안의 도서와 해안변에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가장 밀집되어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 신암리유적, 기장 월내리유적, 동삼동유적, 영선동 패총, 다대포패총, 범방패총과 유적, 수가리패총, 울리 암음유적, 가덕도 장항유적, 김해 화목동유적, 진해 안골동패총, 수도동패총, 죽곡동 암음유적, 고성 덕명리패총, 거제 이수도패총, 대포패총, 내도패총, 공곶이패총, 통영 옥지면 상노대도패총, 옥지패총, 동항리패총, 산달도 후등패총, 연대도유적, 사천 곤양면 중함리패총, 구평리패총, 하동 목도패총, 선도리패총, 여수 돌산 송도패총거문도패총, 손죽도패총, 대경도패총, 유송리패총, 연도패총, 안도패총, 곡성군 석곡면 유평유적, 보성군 죽산리유적, 송광면 대곡리유적, 황전면 대치리유적, 강진 백포리패총, 해남 현산면 백포리 두모패총, 완도군 고금도유적, 신안군 대흑산리 신리패총, 하태도유적 A·C, 어의리유적 등이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확인되었거나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대부분 패총이고, 주거지 또는 야외 시설이 확인된 유적은 울산 황성동, 동삼동, 범방, 울리, 하동 목도패총, 여수 돌산 송도패총, 곡성 석곡면 유평유적 등 그 수가 적다. 매장유적으로는 가덕도 장항유적, 부산 범방패총, 통영 연대도유적, 옥지도패총, 여수 안도패총 등이다. 특히 가덕도 장항유적은 수십기의 분묘가 집단으로 확인된 집단묘의 특징을 보인다. 얇은 수혈을 파고, 그 안에 굴장하고, 1~수점의 토기가 부장되었고, 일부 분묘에는 투박조개로 만든 패천을 팔뚝에 끼운 채 매장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최근 조사된 기장 월내리유적은 자연수로(?)에 다수의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향후 유적의 성격 구명이 필요하다.

신석기시대의 유적 조사는 주로 낙동강 하구와 통영 앞바다의 도서, 여수반도 주변부 등에 집중되었고, 마산만~고성만~사천만 일대, 전남 순천~고흥반도~장흥~강진 일대에는 거의 조사가 되지 않아 이 지역들의 상황은 다소 불분명하다. 그리고 폐기유적인 패총은 다수 알려지고 조사가 되었지만, 신석기인들이 생활한 거주공간 또는 취락, 토기 생산시설, 목기와 석기 생산 공방 등이 조사되지 않아 신석기시대의 전반적인 특징 및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 3. 청동기시대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구상유구·환호·환구 등 취락, 지석묘·석관묘·토광묘 등의 분묘, 패총, 소성유구, 의례 또는 제사유적 등이 있다. 취락유적은 남해안 일대 전역에서 확인·조사되었다. 취락은 평지나 미고지 일대에도 조성되었지만, 김해 어방리취락과 구산동 취락 등은 고지의 구릉 정상부에 조성된 사례도 알려져 있다. 일부 취락은 수 동

또는 십 수동의 주거지를 감싸고 구릉 사면을 따라 환호가 둘러진 환호취락도 확인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확인된 취락은 대부분 송국리유형과 검단리유형에 해당되고, 초기와 전기의 돌대문유형과 가락리유형의 취락 조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섬보다 육지의 해안변에 분포 밀도가 높고, 취락을 구성하는 주거지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청동기시대 분묘는 섬과 해안변 일대에 상당 수 확인되었거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된 대표적인 지석묘군으로는 김해 율하지석묘군, 창원 덕천리지석묘군, 마산 진동 지석묘군, 사천 이금동지석묘군, 덕곡리지석묘군, 여수 미평동지석묘군, 적량동 상적지석묘군, 순천 우산리지석묘군, 고흥 한천지석묘군, 나주 송학리지석묘군 등이 있다. 지석묘는 분포가 밀집된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존재한다. 낙동강을 경계로 이서지역과 전라도 남해안 일대에는 지석묘의 분포 밀도가 높지만, 낙동강을 경계로 동쪽인 부산(기장군 포함)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의 밀집도가 낮다. 이는 낙동강 이서지역에 비해 지석묘의 분포 밀도가 낮기도 하지만,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소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고김해만, 진동만, 순천만, 고흥반도, 강진만 등지에는 지석묘군이 밀집되었다.

분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석묘는 낙동강 동쪽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강서에서 전남 해남 일대의 육지 해안지대와 섬에 상당수 분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섬진강을 경계로 강 이동인 경남지역에는 주로 묘역식이 많지만, 이서인 전남지역에는 비묘역식이 많이 확인되어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지역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낙동강 이동의 부산지역과 울산지역에도 지석묘가 확인 조사되었는데, 묘역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패총은 신석기시대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는데, 확인되었거나 조사된 유적이 거의 없다. 패총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소규모로 형성되었거나 훼손되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의 조사를 기다려 평가되어야 한다. 경작유구는 주로 하천변의 충적지에서 확인·조사되었는데, 섬과 육지의 해안변에는 현재까지 조사된 사례가 없다.

이외에도 마산 가포동 청동기 매납유구와 김해 구관동 청동기 매납유적, 김해 율하의 숫대유적 등 제사 또는 의례유적이 확인 조사되었다. 마산 가포동 청동기 매납유적은 바로 앞쪽에 가포만이 펼쳐져 있는데, 해양과 관련된 의례 또는 제사가 행해진 해양제사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 4. 삼한시대<sup>2)</sup>

삼한시대 유적은 취락·패총·분묘군, 습지·생산·의례 또는 제사 등 그 성격이 다양

2) 여기서 삼한시대란 기원전 4세기 말 또는 3세기 초부터 기원후 3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에 해당되며,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가 포함된다.

하고, 남해안의 섬과 육지 해안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울산 달천유적, 기장 고촌리유적, 부산 동래패총, 내성유적, 조도패총, 온천동유적, 김해 패총과 웅관묘, 대성동-구지로 유적, 구산동유적, 대성동 소성유적, 지내동 웅관묘, 양동리 유적, 대청유적, 창원 도계동유적, 마산 유적, 창원 남산패총, 가음정동유적, 소답동패총, 거제 남산패총, 사천 방지유적, 삼천포 늑도유적, 여수 소라 조산유적, 미평동 양지유적, 화장동 대동유적, 순천 송광면 대곡리유적, 낙수리유적, 조례동 신월유적, 연향동 대석유적, 광양 봉강면 옥현패총, 고흥 산양유적, 해남 군곡리패총, 신금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조사된 삼한시대 유적의 대부분은 주거지·수혈·건물지 등 취락을 구성하는 유구가 대부분이다. 일부 취락은 청동기시대에 유행되었던 환호가 마을을 감싼 형태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부산 온천동유적은 원형점토대구연토기 단계의 환호가 확인되었는데, 내환호와 외환호로 된 이중의 구조였다. 이중환호 사례는 많지 않다.

삼천포 늑도유적은 섬 전체가 삼한시대의 유적으로 이루어졌다. 늑도유적에는 주거지·건물지·분묘·패총·수혈 등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주거지 벽면을 따라 판석을 세우고, 점토를 바른 고래와 부뚜막이 설치되었다. 주거지와 분묘·패총·수혈 등의 유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있다. 원형구연점토대토기·삼각구연점토대토기·연질토기와 도질토기 등 기원전 2세기 초에서 기원후 4세기까지의 토기가 확인되어 늑도유적의 존속시기가 상당히 장기에 걸쳐졌음이 확인되었다. 토기 종류로는 옹·호·발·뚜껑·두·시루·조합우각형파수부호·대부완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시루는 내륙보다 늑도유적에서 먼저 등장되었는데, 이는 부뚜막 시설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부뚜막이 설치되면서 증기에 의해 찌서 익혀 먹는 새로운 조리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는 청동기시대의 식생활에 비해 현저히 영양효율을 높인 식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각종 유구에는 패각류와 수골, 수골로 만든 뼈바늘·전복따개·작살·뉘시바늘 등의 어로구와 석부·반월형석도·석검 등의 도구들이 출토되어 해촌의 생업경제를 구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많은 수의 분묘에는 상태가 양호한 인골이 다수 출토되었다. 인골의 성별 및 연령, 사인과 출산력,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 등의 형질인류학적 분석을 통해 해민들의 인류학적 특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늑도유적에는 도기·반량전·오수전 등의 중국(낙랑 포함)유물과 상당 수량의 일본열도 弥生系 토기들이 출토되어 漢人과 왜인 등이 일시 또는 장기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분묘에서 출토된 인골의 형질 인류학적 조사를 통해 각 종족의 신체적 특징과 섭취물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도 진전되길 기대한다.

상기에서 언급하였지만, 늑도유적에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열도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삼한시대, 특히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후 시기에 이곳은 국제중개 교역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알려주듯 늑도유적에서는 석제·토제·철제·청동제 추가 다수 출토되었다. 교역할 때 물품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판상철부와 철검 등의 철기와 송풍관편·노벽체·철 찌꺼기 등이 출토되어 늑도에서 단야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립진주박물관, 2016).

사천 방지리유적에는 주거지·수혈·구·환호·주혈군 등과 패총이 확인되었다. 원형과 삼각형구연점토대토기와 함께 일본열도의 弥生系 토기가 출토되었다. 순천 덕암동유적은 주거지와 수혈, 그리고 환호가 확인되었다.

분묘는 토광묘·옹관묘·목관묘 등 다양하다. 섬에서 확인된 분묘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있고, 육지에는 목관묘가 대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옹관묘와 토광묘가 확인되었다.

## 5. 삼국시대

삼국시대 유적은 크게 취락·패총·관방·제사와 의례, 매장·생산유적 등이 확인되었거나 조사가 되었다. 취락유적으로는 기장 동백리유적, 청강-대라리유적, 동래 낙민동유적, 김해 봉황동유적, 망덕리-신문리유적, 진해 용원유적, 거제 아주동유적, 창원 봉림리유적, 가음정동 복합유적, 진영 여래리유적, 마산 현동유적, 하동 횡천리유적, 여수 상암동유적, 죽림리 차동유적, 보성 조성리유적, 고흥 방사유적, 장흥 지천리유적, 상방촌A유적, 갈두유적, 신평유적, 해남 신금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기장 동백리유적은 동시기의 취락·분묘·의례·생산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근접된 지역에서 확인되어 취락의 구성 및 토지 활용 양상을 논의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 이와 유사한 취락 구성은 기장 청강-대라리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김해 봉황동유적은 주거지·패총·건물지·소성유구·항구 등과 더불어 토성이 확인되어 항만시설과 함께 금관국의 왕성이 존재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거제 아주동유적은 가야의 주거지와 방형주거지에 4주와 주거지 밖으로 뻗어 나온 배수구 등이 특징인 호남지역의 특징적인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류에도 채지 토기뿐만 아니라 시루·연질옹·완 등의 마한계 토기와 고배·옹 등 일본열도계 토기도 출토되어 당시 남해안을 무대로 전개된 마한-가야-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되기도 하였다(홍보식, 2014a).

패총의 사례로는 동래패총, 부산 미음동 분절패총, 김해 회현리패총, 부원동패총, 유하리 하손패총, 칠산동패총, 용산동패총, 진해 용원패총, 웅천패총, 창원 가음정동패총, 성산패총, 내동패총, 고성 동외동패총, 사천 선진리패총, 보성 금평패총, 강진 논정패총 등

이 확인되었거나 조사되었다. 위의 패총 중 일부는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형성되었다. 삼국시대의 패총은 고김해만 일대에 집중되고, 울산, 남해·하동 이서 지역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섬 지역에서 패총이 확인된 사례가 거의 없다.

관방유적으로는 순천 검단산성, 순천왜성, 흥내동 해룡토성지, 여수 고락산성, 척산산성, 호랑산성, 광양 마로산성, 남해 대국산성 등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섬진강 이서지역의 순천·여수·광양 등지에 집중되었다. 이 산성들은 백제 사비기에 축성되었다. 백제가 섬진강 이서지역에 산성을 집중 축성한 것은 562년 가야 멸망으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대치하면서 이곳의 방어를 견고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매장유적으로는 울산 산하동고분군, 일산동고분군, 기장 청강리고분군, 부산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 괴정동고분군, 화명동고분군, 구랑동고분군, 분절고분군, 가달고분군, 김해 예안리고분군, 대성동-구지로고분군, 화정고분군 두곡고분군, 망덕리고분군, 칠산동고분군, 양동리고분군, 능동고분군, 윗덕정고분군, 율하 1B호분, 진해 석동고분군, 창원 삼동동고분군, 천선동고분군, 도계동고분군, 현동고분군, 마산 진북 대평고분군, 거제 대금리유적, 아주동고분군, 구영리고분군, 장목고분, 고성 율대리고분군, 송학동고분군, 기월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통영 남평리고분군, 사천 향촌동고분군, 예수리고분군, 선진리고분, 송지리고분군, 하동 흥룡리고분군, 우복리고분군, 남해 남치리고분 등이 확인되었거나 조사되었다.

전라남도 남서해안지역에서는 순천 운평리고분군, 보성 동촌리 신촌고분군, 광양 죽내리고분군, 오곡리 토광묘군, 고흥 안동고분, 야막고분, 장동고분군, 장흥 지동고분군, 상방촌B유적(토광묘·옹관묘), 해남 용두리고분, 용일고분군, 만의총 1·3호분, 월송리 조산고분, 신월리고분, 방산리 장고봉고분, 외도고분, 영암 옥야리고분군, 자라봉고분, 신안 안좌면 읍동고분군, 배널리고분군 등이 알려졌거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남해안 일대에 조영된 고분군과 고분은 묘제가 목곽·수혈식석곽·횡혈식석실·횡구식석실·옹관·토광 등 매우 다양하다. 경남 해안지역 고분의 묘제는 목곽과 수혈식석곽이 우세하고,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토광과 옹관, 수혈식석곽과 횡혈식석실 등이 있다. 경남 해안지역의 고총고분은 봉분 형태가 모두 원형이고, 일부에는 주구가 설치되었다. 전남 해안지역의 고총고분은 봉분 형태가 원형·방대형·전방후원형 등 다양한데, 방대형은 전남 남서해안 및 영산강수계에 분포된 고분의 특징적인 분형이다.

남해안 일대에 조영된 고분 중에는 이 지역의 보편적인 묘제와 계통이 다른 이질적인 고분도 확인 조사되었다. 예를 들면, 김해 율하 1B호분, 마산 진북 대평 1호분, 고흥 안동고분, 야막고분, 해남 외도 고분, 만의총 1호분 등 매장주체시설이 수혈식석곽인 예가 있다. 그리고 거제 장목고분, 사천 선진리고분, 사천 향촌동 II-1호분, 고성 송학동 1B-1

호 석실, 해남 용두리고분(전방후원형)·장고봉고분(전방후원형)·조산고분(원형), 영암 자라봉고분(전방후원형), 나주 마산리 표산 1호분(전방후원형), 북암리 3호분 93석실(방대형)·정촌고분(방대형) 등 매장주체시설이 횡혈식석실인 예가 알려져 있다.

위의 계통이 다른 고분들은 5세기 이후 일본열도,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九州地域의 수혈식석곽 또는 횡혈식석실과 유사하여 왜계 고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 분포된 왜계 고분은 1기씩 단독으로 분포된 사례와 현지의 고분군 속에 포함된 사례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대부분이다. 이 왜계 고분의 봉분 형태는 원형과 방대형·전방후원형 등이 알려져 있다. 경남 해안지역의 왜계 고분은 봉분 형태가 모두 원형이지만, 전라도 해안에 분포된 왜계 고분은 원형·방대형·전방후원형 등 다양하다.

이 왜계 고분에 묻힌 주인공의 출자와 역할,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당시의 한반도 정치체와 일본열도간의 관계에 대해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외에도 제사 또는 의례 유적도 조사되었다. 기장 동백리에는 취락 주변의 구릉 정상부 주위에 도랑이 이중으로 배치되고, 목책열이 있는 형태가 확인되었고, 청강-대라리유적에는 취락 주변의 가장 높은 구릉 정상부 주위에 목책열이 있고, 목책열 내부에 대형 건물지 1동이 배치된 형태가 확인되었다.

### III. 남해안지역 유적·유물의 특징

#### 1. 한반도 최대의 패총 분포

한반도의 해안변에는 신석기시대 이래 많은 패총이 형성되었다. 패총이 형성된 주요 지역은 두만강유역,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이다. 남해안 일대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패총이 형성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패총유적이 분포되었다. 삼국시대에는 남해안을 제외하면, 동해와 서해 일대에는 패총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패총은 옛날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껍질이 층을 이루며 쌓여 있는 유적이다. 마을 주위에 먹고 버린 조개껍질과 물고기뼈, 동물뼈, 깨어진 토기, 석기, 뼈제품 등의 유물이 버려지는 일종의 쓰레기더미이므로 그 속에는 사람이 만든 유물과 자연유물 등 아주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조개껍질의 칼슘성분이 조개껍질층 뿐 아니라 그 밑에 형성된 문화층에까지 스며들어 모두가 알칼리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유기물질까지 잘 보존되어 다양한 자연유물들이 출토된다.





<그림 1> 신석기~삼국시대 패총 분포도((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0)

따라서 패총 속에는 비록 파편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한 생활도구와 용기는 물론 제사물품 등이 출토되므로 그 때의 생활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조개류와 동물뼈와 식물의 씨앗류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어 그 분포에 의해 당시의 해안선 복원과 해진·해퇴 현상 및 지리적 환경을 복원할 수 있고, 당시 사람들의 식료와 그 획득기술을 추정 복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패총 속에는 종종 사람뼈가 출토되어 당시 사람들의 인종연구 및 여러 가지의 신체 변형풍습 등의 체질인류학적 연구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패총은 선사 및 고대의 생활상태의 다양한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복합유적이다(鈴木公雄, 1989).

패총에는 원양성 또는 근해성의 각종 조개류·생선뼈·동물뼈 등의 자연유물, 바다 물고기를 잡는데 이용한 낚시바늘과 작살,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는데 사용한 돌도끼와 돌삽, 손 칼과 사슴뿔로 만든 칼자루, 뼈 화살촉, 전복따개 등의 공구류, 실을 뽑는데 필요한 가락바퀴, 그물추, 항해 또는 마을의 안녕과 전쟁의 승리 등을 기원하는 점을 치는 점치는 뼈, 각종 음식물 또는 곡류 등을 저장하는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더불어 패총은 원칙적으로 순서대로 퇴적하므로 출토 유물의 시간의 선후관계 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며, 패총 속이나 그 주변에 집자리, 화덕, 무덤, 광장 등과 같은 유구를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시의 사회조직과 문화의 재구성까지도 가능하다.

신석기시대에는 남해안 일대의 섬과 연안변 각지에 많은 패총이 형성되어 신석기시대 연구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동삼동, 범방, 연대도, 상노대도, 여수 돌산 송도패총, 거문도패총, 연도패총, 안도패총 등은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청동기시대가 되면, 한반도에 패총 형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남해안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해안 일대보다 청동기시대의 패총 수가 많다. 삼한 시대에 다시 패총 수가 증가되었는데, 서해안보다 남해안 일대에 훨씬 많이 분포되었다. 삼천포 늑도유적, 사천 방지리유적, 해남 군곡리유적 등은 패총뿐만 아니라 주거지, 환호, 분묘 등이 함께 확인되어 해촌과 해민의 생활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제공된 대표적인 유적들이다.

동래패총, 분절패총, 양산 다방리패총, 김해 부원동패총, 김해패총, 용원패총, 웅천패총, 칠산동패총, 유하리패총 등 고김해만 일대와 창원 성산패총, 외동패총, 내동패총, 가음정동패총 등 마산만 일대에 집중 형성되었다. 특히 금관가야의 중심세력이 존재한 봉황동유적과 동래 낙민동유적에 패총이 형성되어 당시 지배집단의 중요한 식량원으로서 여전

히 해양생물 자원의 의존도가 컸음을 나타내었다.

## 2. 다양한 외래 요소의 존재

남해안 연안 일대에는 다양한 문화 요소와 함께 계통이 다른 문화 요소들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외래문화 요소로는 중국대륙계, 마한·백제계·일본열도계, 동남아시아계 등이 있다.

중국대륙계 요소로는 삼천포 늑도유적에서 출토된 중국계 토기·낙랑토기·청동화살촉·동경, 거문도 출토 화천, 김해 회현리패총 출토 화천·동경, 대성동고분군 23·14·92호묘 출토 동경, 29·47호묘 출토 동북, 88



<그림 2> 늑도유적 출토 弥生系 土器

호묘 출토 진식대금구·장식마구, 91호묘 출토 장식마구·동세·동반, 양동리 162호묘 출토 동경, 322호묘 출토 동정, 235호묘 출토 동북, 전김해 양동리 출토 동경 등이 있다. 중국계 유물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출토되어 연안항로를 이용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백제계 요소로는 황혈석석실, 토기를 들 수 있다. 황혈석석실은 남해 남치리에서 1기 확인되었다. 백제 사비기에 해당되는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의 능산리형 석실 1기이다. 이 석실에서는 백제 사비기의 몇 안되는 석실과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은화관식이 나와 그 피장자가 백제의 귀족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한·백제계 토기가 출토된 유적으로는 부산 노포동 다지구, 동래패총(낙민동패총), 동래 내성유적, 김해 양동리유적·대성동고분군·구지로유적·봉황대유적, 진해 용원유적, 창원 천선동유적·거제 아주동유적, 고성 동외동유적 등이다. 주로 고김해만 일대에 3~4세기의 무덤과 생활유적에서 마한·백제계 토기가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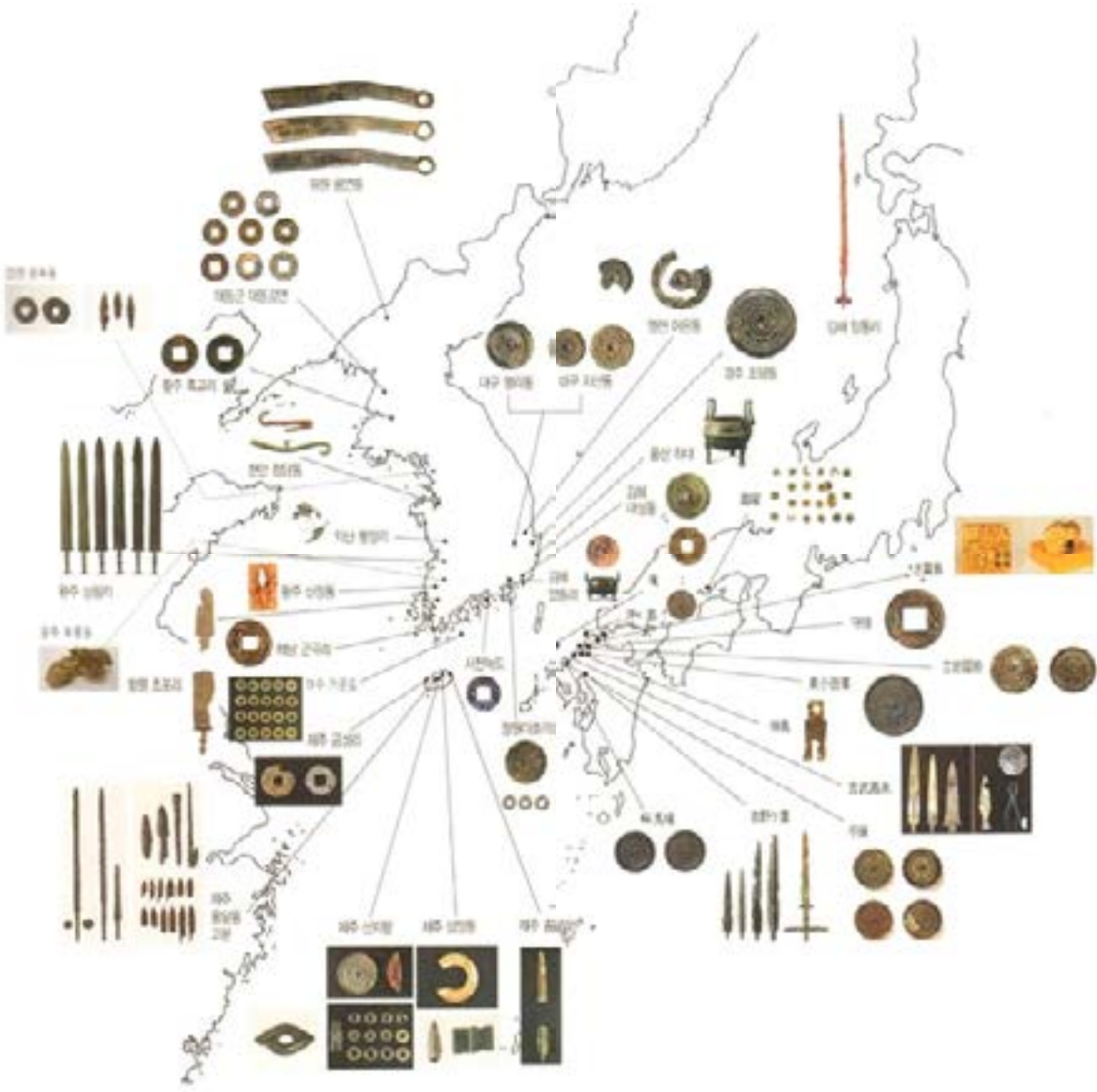
일본열도계 자료는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확인된다. 신석기시대의 일본열도계 자료로는 縄文土器와 흑요석 등이 있다. 縄文土器·흑요석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부산 동삼동유적, 범방패총과 범방유적, 수가리패총, 통영 상노대도패총·연대도패총·욕지도패총, 여수 안도패총 등이다. 특히 부산과 고김해만 일대에 형성된 유적에서 일본 조몽토기와 흑요석 등이 집중되었다.

청동기시대에 해당된 일본열도계 자료로는 아주 희박한데, 창원 망곡리유적에서 출토된 돌대문토기가 알려져 있다.

삼한시대의 일본열도계 자료로는 김해 회현리패총 옹관묘가 있고, 이외에는 대부분 유물이다. 일본열도계 자료는 弥生土器(系)가 대부분이고, 청동제 유물이 있다. 일본열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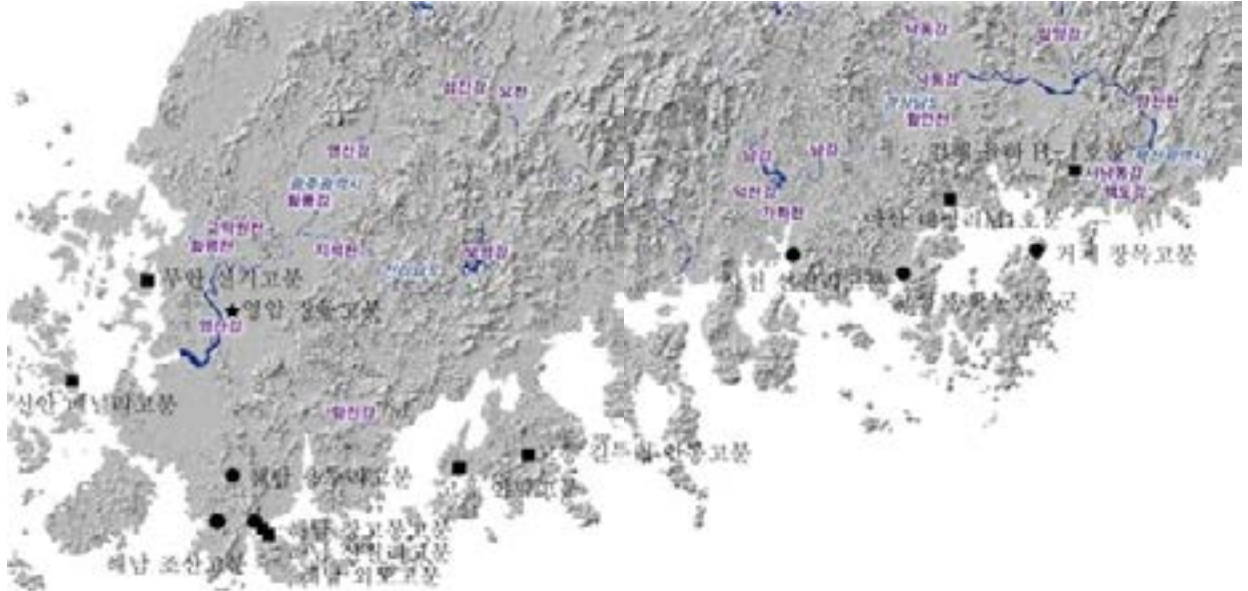
자료로는 삼천포 늑도유적, 김해패총 옹관묘, 구산동유적, 대성동 소성유적, 지내동 옹관묘, 부산 내성유적, 온천동유적, 조도패총, 사천 방지유적, 울산 달천유적 등에서 출토한 弥生系 토기와 김해 양동리유적 출토 방제경·동모 등이 알려져 있다.

늑도유적에서 상당 수량의 弥生系 土器가 출토되었다. 弥生系 土器 상한은 弥生 전기 말(板付ⅡC式期), 하한은 후기 전반(高三渚式期)으로서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있다. 이곳에서 출토된 弥生系土器는 반입품, 모방품, 절충품, 弥生土器 요소가 일부 반영된 무문토기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북부九州系의 어구 등도 출토되어 弥生人 집단의 장기 거주가 추정된다.



<그림 3> 삼한시대의 동아시아 교류 자료(국립진주박물관, 2016)

김해 구산동유적은 주거지로 이루어진 취락으로 城ノ越式~須久I式의 弥生系土器가 주체로서 7~8할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弥生土器와 弥生土器가 포함되어 있어 弥生人の 정주가 예상되기도 한다(武末純一, 2016).



<그림 4> 남해안 일대의 왜계 고분 분포도(김낙중, 2013)

삼국시대의 왜계자료로는 3~4세기 낙동강 하구인 김해·부산·진해·거제·광양 등지에서 다수 출토된 하지키계 토기, 5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 분포된 매장주체시설이 수혈식석곽인 왜계 고분, 6세기 전반 서부 경남지역, 호남 남서해안과 영산강수계 일대에 분포된 왜계 고분 등이 있다.

3~4세기 낙동강 하구에서 하지키계 토기가 집중 출토된 유적으로는 김해 봉황동유적, 신문리유적, 진해 용원유적, 거제 아주동유적, 부산 동래패총과 낙민동유적 등이 있다. 김해와 부산 등지의 고분에서도 土師器系 토기와 석제품·금속품이 다수 출토되었다.

거제 아주동 취락에서는 4주식+벽구+외측 돌출형 배수구를 갖춘 호남 서남부 계통의 주거지이고, 주거지 내에서 가야계+마한계+왜계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아주동 취락에 가야인+마한인+倭人 등 출자가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거주하였거나 3자의 생활문화 모두에 익숙한 교역인 집단이 거주하였음을 의미한다.

5세기의 왜계 자료로는 김해 율하 1B호분, 마산 진북 대평 1호분, 고흥 안동고분·야막고분, 해남 외도 고분·만익총 1호분, 신안 배널리고분 등이 있다. 이 왜계 고분들의 특징은 1곳에 1기씩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평면형태가 세장방향인 수혈식석곽 또는 상식석곽이며, 매장주체시설 내에 토기가 부장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마산 진북 대평 1호분을 제외하면, 금속기, 특히 철촉철모 등의 무기류와 충각부주대금식단갑 등의 무구

류가 부장되었다.

이 시기의 왜계 고분들이 1기씩 입지한 점, 석곽이 매우 세장하고, 개석을 사용하지 않은 점, 무기·무구 부장이 탁월하고, 土器 부장이 되지 않은 점, 부장된 무기와 무구의 종류와 특징이 동시기 한반도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과 함께 유사한 사례와 무기·무구 부장 습속이 일본열도, 특히 北部九州地域의 매장습속과 아주 유사하다. 이 시기의 왜계고분이 전남 남서해안에 분포된 배경과 피장자의 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백제-왜의 교류루트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한 중간 기착지로 이용된 해안과 도서에 상주한 용병적 성격의 무장집단(이정호, 2014), 조류의 유속이 심하고, 해저지형이 복잡한 전남 남서해안에 교역선의 기항과 도선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파견된 왜인(권택장, 2014), 백제의 요청에 의해 선진문물의 供與를 조건으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백제 왕권과 교섭하거나 군사 지원 활동을 한 왜인(왜계인) 또는 현지세력(김낙중, 2014), 서남해안 지역에 형성된 교역네트워크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상의 요충지에 일정기간 체재하면서 재지의 집단과 『잡거』하고 있었던 왜인(高田貫太, 2014), 한반도의 철 자원 및 선진기술과 문화를 입수하기 위해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으로 건너와 정착한 왜인(홍보식, 2017)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왜계 자료로는 서부 경남과 호남지역 일대에 분포된 九州系 횡혈식석실과 유사한 왜계 고분이 있다. 이 왜계 고분의 피장자 출자와 역할 및 그들을 움직이거나 배후에 조종한 주체 등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왜계 고분 피장자의 출자에 대해서는 크게 왜인설과 재지수장설로 구분된다. 왜인설은 백제나 대가야의 중앙에 의해 재지세력이 강한 지역에 파견되어 재지세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존재로서 백제 또는 대가야의 중앙에 편재된 관료(주보돈, 2000) 또는 군사(박천수, 2005), 한반도의 선진문물을 입수하기 위해 거리적으로 가깝고 또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물을 입수하기 유리한 고성만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전남 남서해안에 거주하면서 현지 세력의 인정과 이해하에 활동한 왜인의 산물(홍보식, 2005;2013), 마한계 倭人(임영진, 1999;2000) 등 다양하다.

재지수장설은 백제의 남하에 대항하기 위해 왜와의 정치적 동맹관계를 어필하기 위해 재지수장이 왜계 고분을 표방하였거나 또는 재지수장층인 반남세력이 와해되는 틈을 타 대두한 중소재지수장층이 왜계 고분을 수용하였다는 설(박순발, 2000), 왜계집단을 거느린 재지수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김낙중, 2011) 등이다.

호남지역에 분포된 九州系 횡혈식석실인 전방후원형고분의 조영에 왜계 도래인 집단이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 왜인들이 영산강유역에 빈번하게 왕래를 하고, 일부가 정착해 지

역사회에 녹아들어간 왜계 집단에 의해 물자기술·정보가 일본열도로 수용되었는데, 한반도의 선진문물을 일본열도에 전달한 역할로서의 재지인과 왜인 모두를 대상으로 설정한 견해도 제기되었다(高田貫太, 2014).

한반도에 조성된 왜계 고분의 피장자 모두를 왜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분형이 방대형이면서 재지 고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분의 피장자중 일부는 재지인일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대부분은 왜인일 가능성이 있다(홍보식, 2017).

### 3. 항만 시설과 항구도시의 존재

남해안 일대에는 수많은 섬이 존재하고, 연안에는 내만이 발달되어 있어 항구와 항만 도시가 발달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었다. 섬은 연안항해를 할 때, 항로를 알려주는 표식으로도 역할을 하지만, 중간기착과 휴식, 식수 및 식량 등의 공급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그림 5> 고김해만과 유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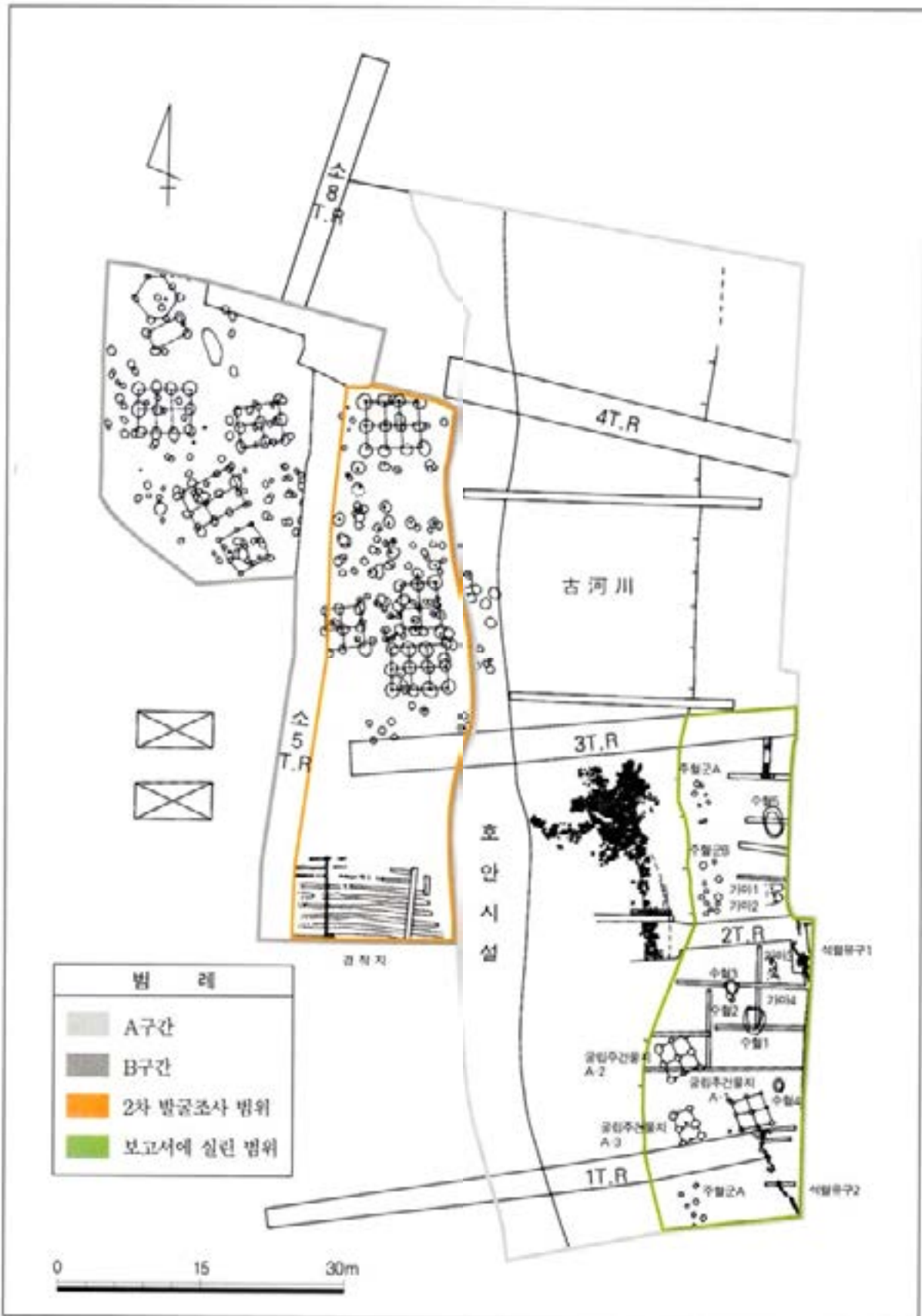
물품을 교환하는 중개교역 기지로서도 기능하였다.

삼천포 늪도는 섬 전체가 유적으로서 원형점토대구연토기와 삼각구연점토대구연토기가 생산소비된 기원후 3세기에서 기원전후의 시기에 매우 번창된 지역이었다.

김해 봉황동유적은 금관가야의 왕궁이 존재된 곳으로 알려져 왔다. 봉황동유적은 고김해만과 해반천이 합수되는 내만에 위치되었다. 봉황동유적과 대성동-구지로고분군에는 북방계·왜계·마한·백제계·신라계·일본열도계 등 다양한 외래계 유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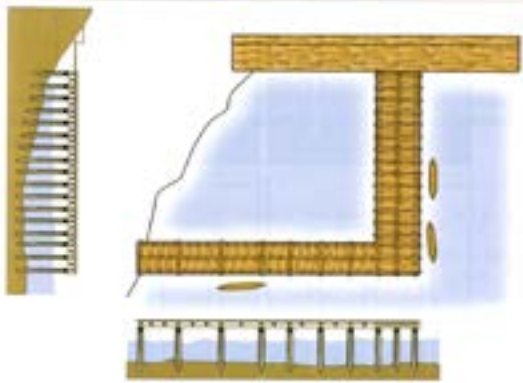
출토되어 외래집단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외래인의 출입이 잦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봉황대의 서쪽 평지, 현 김해시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해반천 동편에서 4세기의 굴립주 건물군이 확인되었다. 이 굴립주 건물은 지하에 수혈을 판 바닥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운 고상건물이다. 이 고상 건물군은 고김해만과 해반천이 만나는 지점에 입지하며, 수출입 대상품을 보관한 물류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봉황동 유적의 창고군 흔적





<그림 7> 김해 관동리 부두 접안시설 복원도



<그림 8> 봉황동유적 출토 왜 선박 부재

그리고 봉황동유적 일대 조사에서 금관가야 시기의 선박 바닥판과 노가 출토되었다. 선박의 형태는 일본열도의 고분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배모양 토기와 유사하다. 이 선박은 봉황동의 선착장에 정박한 금관가야의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수출입품을 보관한 창고시설군과 선박 등의 존재로 볼 때, 봉황동유적 일대는 금관가야의 대외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관가야의 무역항은 봉황동유적 1곳에만 설치되지 않았다. 해반천 수계의 반대편인 율하천 수계에서도 선착장이 확인되었는데, 관동리유적이 그것이다. 관동리유적은 고김해만의 해안변에 위치한 금관가야의 선박접안 시설과 물류창고, 도로 등으로 이루어졌다. 물류창고는 지하에 기둥을 세우고 천장을 쉬운 지면식건물과 고상식건물로 구분된다. 접안시설은 나무로 교각을 세우고, 교각 위에 가로로 걸쳐 양목(梁木)을 걸치고, 그 위에 행목을 얹어 만들었다. 교량을 육지면에 고정시키고, 파랑을 막기 위한 호안시설이 설치되었다. 도로는 자갈을 깔지 않은 비포장이며 선박접안 시설로 연결되어 있다(소배경, 2011).

관동리유적에서 확인된 부두와 물류창고 및 도로는 당시 이 일대가 금관가야의 무역항으로서 매우 중시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금관가야가 대외무역을 통해 발전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김해 봉황동유적과 관동리유적에서와 같은 항구와 물류 저장시설 등은 고김해만 일대 뿐만 아니라 거점 취락이 존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도 당연 존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복천동고분군을 조영한 집단의 거주구역으로 추정되는 동래패총이 위치한 수영만, 용원유적이 위치한 안골만, 장목고분과 농소패총이 위치한 거제 간곡만, 내동·외동패총이 위치한 마산만, 현동고분군과 패총 및 수혈군이 있는 진동만, 송학동고분군과 동외동패총이 위치한 고성만, 선진리고분이 위치한 사천만, 순천만, 고흥 안동고분이 위치한 해창만, 보성만, 강진만, 해남일대 등과 주요 도서지역에는 크고 작은 항만시설과

창고군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4. 제사유적의 존재

바다로의 항해와 어로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항해의 안전과 또 고기잡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신앙공간으로서 해안과 섬의 마을 곳곳에는 당집과 당목들이 유독 많이 존재되었다.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해안·도서지역의 민간신앙이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화적 전통 위에서 점진적으로 변형·발전된 모습임을 감안하면(유병하·최지향, 2014), 선사 및 고대에도 해안이나 섬에는 많은 제장이 존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선사 및 고대에는 자연의 힘을 빌리려는 해양신앙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해양제사 유적이 최근에 들어와서 섬과 해안변에서 발견되고 조사되었다. 1990년도에 조사된 부안군의 죽막동제사유적과 제주도의 용담동제사유적은 해양제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3)</sup> 이외에도 부안 계화도유적(청동기시대), 나주 수문패총(삼한), 완도 청해진(통일신라), 신안 흑산도(통일신라), 어의도(통일신라 이후), 흑산도 상라산성(통일신라), 영암 월출산(통일신라~고려), 여수 돌산 세구지유적(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여수 묘도 봉화

<그림 9> 전남 해안지역의 해양제사 유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산(통일신라~고려), 통영 미륵도(삼국시대~고려시대),<sup>4)</sup> 마산 가포동(청동기), 김해 구관동(청동기)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3) 죽막동 제사유적은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조선시대까지 해양제사가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이곳에는 수성당이라 불리는 당이 있고, 해양신이 제사지내졌다.

4) 위의 제사유적은 유병하·최지향(2014)와 이동희(2016)의 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일본열도의 제사유적 성과를 참조하면(檜山林繼, 1995), 해상교통의 難所(물길이 세 선박 좌초와 침몰이 빈번한 곳), 섬처럼 해양에 돌출된 岬, 항로상에 위치한 무인도 등이 주여한 해양제사를 지내는 제장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한반도의 남해안 각지에도 난소가 여러 곳에 있음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수로인 울돌목, 하동과 남해 사이의 수로인 노량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연안항로상의 주요 기항지와 어군이 몰리는 가까운 섬, 항로의 표지가 될 수 있는 섬의 산정 등도 해양제장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5. 지역간 교류의 궤적이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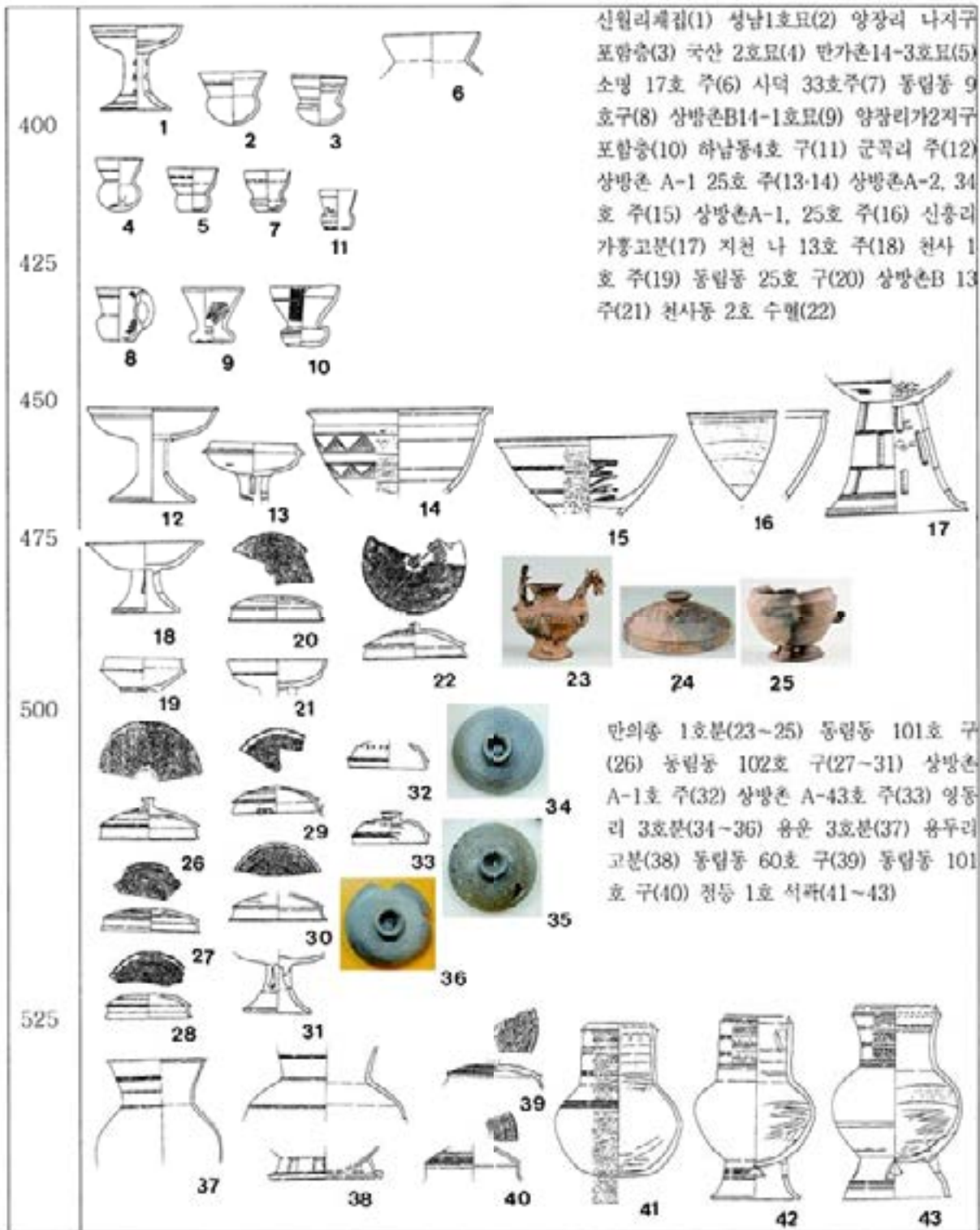
남해안 일대의 각 지역은 광역에 걸쳐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토기가 생산 소비되었음은 그동안의 발굴조사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크게 볼 때, 수영만~고김해만~안골만~진해만이 포함된 낙동강 하구지역, 진동만, 낙동강 하구지역과 진동만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쪽 지역의 토기 요소들이 혼재된 점이지 대로서의 마산만, 고성만~사천만~하동만~광양만과 거제도·남해가 포함된 경남 서남해 지역, 순천만~고흥반도~보성만 일대의 전남 동남부지역, 장흥만~강진~해남~영산강 하구지역~신안군 일대 도서지역~함평만이 포함된 전남 남서해안 지역 등이다. 이 지역에는 4세기 후반 이후부터 5세기 전반 혹은 6세기 전반까지의 시기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토기가 분포되었다.

그런데 각 지역에는 지역적인 특색의 토기 이외에 계통이 다른 토기들이 출토된 사례가 다수 알려져 있다. 부산과 김해지역의 4세기 후반과 5세기 전반의 무덤에는 함안지역 일대가 분포 중심인 소위 함안계 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다. 예를 들면, 복천동 57·71·54·53호묘와 대성동 2호묘 등에서 고배·소형기대 등의 함안계 토기가 출토되어 함안계 토기를 소비한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함안양식 토기가 소비된 지역의 유적에서 낙동강 하구 양식 토기의 출토 사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홍보식, 2014a).

그리고 5세기 후반 이후, 고성만 일대와 남강 남서부지역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권이 형성된 소위 소가야 양식 토기는 부산지역에서부터 전남 남서 해안지역 일대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소가야 양식 토기의 주분포권인 고성만~사천만~섬진강 하구에 이르는 일대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소가야 양식 토기는 점적인 분포 양상이어서 소가야 양식 토기 분포권에 거주한 사람들과의 교류에 의해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세기 말 이후부터 6세기 전반 시기에 소가야 양식 토기를 일상적으로 소비한 집단들, 특히 6세기 전반 이후 대가야계·신라계·왜계·영산강계 등 다양한 계통

의 물품이 집중된 고성만의 송학동고분군 조영집단이 그 중심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홍보식, 2006).



<그림 10> 전남 해안지역의 해양제사 유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전남 남동부지역 일대에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의 시기에 낙동강 하구 양식 토기와 함안양식 토기가 출토되었다. 보성 조성리유적에서 외절구연고배, 나주 양장리 가-2지구 포함층 출토 광구소호, 함평 성남 국산 3호 토광묘 출토 광구소호, 함평 성남 1호 토광묘 출토 광구소호, 함평 만가촌 14-3호묘 출토 광구소호, 광주 소명 17호 주거지 출토 내만구연옹 등이다.

아라가야계 토기로는 장흥 신월리고분군 채집 통형고배, 무안 양장리 나지구 채집 광구소호, 장흥 상방촌 A25호 주거지 출토 고배와 발형기대, 43호 주거지 출토 43호 주거지 출토 발형기대, B지구 18-1호 주거지 출토 광구소호 등이 알려져 있다. 위의 아라가야계 토기에는 반입품도 있지만, 광구소호와 소호들은 모방하였거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소가야계 토기는 가장 많은 예가 알려져 있는데, 뚜껑·고배·수평구연호·발형기대·유공광구소호·장경호·컵형토기·대부직구호 등의 기종이 있다.<sup>5)</sup> 소가야계 토기는 장흥·고흥·해남 등 호남 서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신라계 토기로는 나주 영동리 3호분 석실 내부 출토 뚜껑 3점, 해남 만의총고분 출토 서수형토기와 뚜껑, 용두리고분 출토 대부장경호, 용운 3호분 출토 장경호 구경부 편 등이다(홍보식, 2013).

이상과 같이 남해안 일대에는 지역간의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각지에서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로를 이용해 활발한 지역간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남해안을 대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적 분포 및 조사 내용과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남해안 일대는 조개채취와 어로 등 해양생물에 의존하여 생계경제를 유지하였거나 해상교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간 해촌과 해민의 주요한 무대였지만, 해촌의 경관과 해민의 생활 모습을 구명할 수 있는 유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졌더라도 연구가 부족하다. 향후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해촌의 경관과 해민의 모습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발굴조사보다 면적인 발굴조

5) 호남 서남부지역에서 출토한 소가야계 토기 중 수평구연이거나 경부 또는 건부에 파상문 또는 집선문을 시문한 장경호, 발형기대 등은 호남 서남부지역의 토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패총 또는 분묘 등 성격이 다른 유적(유구)의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특정 성격의 유적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고 이에 의존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개별 분야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단위지역에서 동 시대 또는 동일 시기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복합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해촌의 경관과 해민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패총에서 출토된 다종다양한 유물 중에 전복따개 · 작살 · 낚시바늘 등의 어로구의 추출과 함께 어로 관련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패총 외에도 주거지나 분묘 등에서도 어로구의 출토 사례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치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해안 일대에는 고려~조선시대에 침몰된 침몰선 조사와 해양유적 조사가 상당 수 이루어졌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수중고고학뿐만 아니라 출수 유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이전 시대에도 배가 침몰된 사례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는 해양 발굴조사가 전무하여 수중고고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해안의 해양 조건이 서해안과 다르기도 하지만, 연해에 침몰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까?

침몰선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선사 및 고대 선박의 형태와 구조, 항해방식, 승선인원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삼국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된 배모양토기와와의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항 이후, 고김해만, 마산만, 진동만, 고성만 등 남해안 일대의 내만을 대상으로 한 해양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선사 · 고대의 항만 및 항구의 경관과 구조 · 특징의 조사와 연구를 차단시켜버렸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매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사 및 고대의 항만 및 항구의 경관 복원과 항구 구조 및 시설물 배치 등의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해양 활동 양상이 구명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북천박물관, 2006, 『선사·고대의 제사-풍요와 안녕의 기원-』 특별전시 도록  
국립진주박물관, 『국제무역항 녹도와 하루노쓰지』, 사천 녹도유적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전.
- 북천박물관, 2015, 『가야와 마한·백제-1,500년 만의 만남』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지역의 바닷길』, 2014년 특별전 자료집
- 鈴木公雄, 1989, 『貝塚の考古學』, 東京大學出版會

### 논문

- 권택장, 2014, 「고흥 野幕古墳의 연대와 등장배경에 대한 검토」,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金洛中, 1998, 「장제와 부장품으로 살펴본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 고분의 성격」,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대한문화재연구원.
- \_\_\_\_\_, 2008, 「榮山江流域 初期橫穴式石室의 登場과 意味」, 『湖南考古學報』 29, 湖南考古學會.
- \_\_\_\_\_, 2009, 「榮山江流域 古代社會의 構造와 變遷」, 『希正 崔夢龍教授 停年退任論叢(2)-21세기의 한국고고학』, 주류성출판사.
- \_\_\_\_\_, 2013, 「5~6세기 남해안지역 倭系고분의 특성과 의의」, 『湖南考古學報』 54, 湖南考古學會
- 朴淳發, 2002,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意義」,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 朝鮮學會編, 同成社).
- 朴天秀, 2002, 「榮山江流域における前方後圓墳の出自とその性格」, 『考古學研究』 49-2(考古學研究會).
- \_\_\_\_\_, 2003, 「榮山江流域と加耶地域における倭系古墳の出現過程とその背景」, 『熊本古墳研究』, 創刊號(熊本古墳研究會).
- \_\_\_\_\_, 2003b, 「榮山江流域の前方後圓墳の出現の歴史的背景」,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17(大和書房).
- \_\_\_\_\_, 2015, 「倭에 남겨진 百濟 文物」, 『한국사 속의 百濟와 倭』, 百濟학연구총서 6, 한성百濟박물관.
- 소배경, 2011, 「김해 관동리 삼국시대 진지(津址)를 중심으로」, 『가야의 포구와 해상 활동』, 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유병하, 1995,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삼국시대 제사양상과 변천을 중심으로-」,

- 『扶安 竹莫洞 祭祀遺蹟』, 국립전주박물관.
- 유병하·최지향, 2014, 「호남지역 선사/고대의 해양제사-새로운 유적의 검토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이동희, 2016, 「남해 도서지역의 고분·산성·제사유적」, 『사림』 46,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 이정호, 2014, 「신안 배널리고분의 대외교류상과 연대관-신안 배널리고분의 연대와 축조배경을 중심으로-」,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林永珍, 1997a, 「全南地域 石室封土墳의 百濟系統論 再考」, 『湖南考古學報』 6, 湖南考古學會.
- \_\_\_\_\_, 2000, 「榮山江流域 石室封土墳의 性格」, 『地方史와 地方文化』 3-1, 역사문화학회.
- 조성원, 2016,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토사기계토기의 재검토」, 『韓國考古學報』 99, 韓國考古學會
- 趙榮齊, 2004, 「西部慶南加耶古墳發見の倭系文物について」,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夫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夫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 朱甫暉, 2000, 「百濟의 榮山江流域支配方式과 前方後圓墳 被葬者의 性格」, 『韓國의 前方後圓墳』, 忠南大學校 出版部
- 하승철, 2016,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의 출현과 그 배경」, 『백제의 해양교류와 거점』, 백제학회·국립해양박물관
- 洪潛植, 1998, 「한반도 남부지역의 倭 橫穴式石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대한 문화재연구원.
- \_\_\_\_\_, 2005, 「榮山江流域 古墳의 性格과 推移」, 『湖南考古學報』 21, 湖南考古學會.
- \_\_\_\_\_, 2006, 「韓半島 南部地域의 倭系 要所-紀元後 3~6世紀代를 中心으로-」, 『韓國古代史研究』 44.
- \_\_\_\_\_, 2010, 「韓半島의 倭系遺物とその背景-紀元後 4~6世紀前半代を 中心に-」, 『古文化談叢』 63, 九州古文化研究會.
- \_\_\_\_\_, 2013, 「마한·백제와 변·진한 및 가야·신라의 교류」, 『영남지역 속에 스며든 마한·백제계 문물의 흔적』, 대한문화재연구원·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14, 「외래계 유물로 본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사회구조-삼한·삼국시대 낙동강 하구 집단의 대외교류-」, 『금관가야의 국제교류와 외래계 유물』, 가야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14, 「낙동강 하구지역 가야문화」, 『가야문화권 실체 구명을 위한 학술연구』,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 \_\_\_\_\_, 2017, 「5~6世紀における韓半島と日本列島の交流」, 『海を渡って來た馬文化-



黒井峯遺跡と群れる馬』群馬縣立歴史博物館.

- 高田貫太, 2014a, 「5, 6世紀 韓半島 西南部「倭系 古墳」の造營 背景」, 『영산강유역 고분 토목기술의 여정과 시간을 찾아서』 대한문화재연구원.
- \_\_\_\_\_, 2014b, 「5-6세기 百濟, 영산강유역과 倭의 교섭-「倭系고분」·전방후원분의 조영배경을 중심으로-」,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재)전남문화예술재단
- 武末純一, 2009, 「三韓と倭の交流-海村の觀點から」,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51. 國立歴史民俗博物館
- \_\_\_\_\_, 2016, 「原の辻の對外交渉」, 『능도와 原の辻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의 양상』 국립진주박물관
- 檜山林繼, 1995, 「日本列島에 있어서 祭祀遺蹟으로 본 竹莫洞遺蹟」, 『扶安 竹莫洞 祭祀遺蹟』, 국립진주박물관.



발표 2

#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 성과와 전망

문 환 석

국민대학교



# 우리나라 수중발굴의 조사 성과와 전망

문환석(국민대학교)

목 차
I. 들어가기
II.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1) 군산 해역 수중발굴
2) 태안 해역 수중발굴
3)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발굴
III. 맺음말

## I. 들어가기

우리나라 바다는 선사시대부터 삶의 터전이자 외부로 향한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 그중 조운제도가 정비되었던 고려 이후부터 지방의 조창(漕倉)에 모여진 세곡이나 특산품은 바닷길을 통해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송시켰다. 하지만 그 길목이었던 서해는 많은 섬과 암초들이 산재해 있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조류도 빨라 항해하는데 어려운 여건이다. 이로 인해 선박들의 해난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갯벌이 발달하여 이런 해난 사고의 부산물 즉 선조들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해양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활발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그 역사들을 새롭게 밝히게 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수중문화재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1976년 중국 무역선을 인양했던 신안선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총 27곳에서 외국선박 2척, 고려시대 선박 10척(마도3호선 매물 보관), 통일신라시대 선박 1척,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매물 보관) 등 14척을 포함하여 99,000여점에 이르는 수중유물을 발굴하였다(〈표 1〉 참고).

다음은 수중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군산 비안도부터 진도 명량대첩로까지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조사 성과와 전망에 대해 서술하였다. 초창기 해군에 의존하여 수중조사를 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러워하는 수중발굴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 1) 군산 해역 수중발굴

문화재청 소속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은 신안선체를 보존처리하여 전시하는 업무가 주였으나 수중문화재 신고해역에 대한 학술적인 발굴조사도 일부 병행하였다. 진도 통나무배 발굴(1991~1992년)과 목포 달리도선 발굴(1995년) 등 해안가 조간대(潮間帶)를 중심으로 신고된 선체 발굴을 전담하면서 매장환경에 따른 조사방법 등 여러 경험을 축적하였다. 이때 수중 이상체를 탐사할 수 있는 측면주사음파탐지기와 지층탐사기를 확보하고 일부 직원에 대한 잠수교육을 실시하여 수중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4월 군산 비안도 해역에서 고려청자의 발견·신고를 받고 발견해역에 대한 긴급탐사 결과, 유물이 집중 매장됨을 확인하고 수중조사를 추진하였다. 1차 수중발굴은 해군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2차 때부터 해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사원들이 직접 잠수하여 자체 수중조사를 하는 첫 걸음이자 보다 나은 학술적인 조사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발굴을 단독으로 실시해야만 했던 것은 해군 참여가 불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으로 인해 해군 해난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되는 관계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당시까지 준비와 조사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잠수사를 참여시킨 조사에서 수중탐사와 유물 매장상태를 직접 직원들이 촬영하고 수습하였다. 변변한 촬영장비도 없어 수중비디오카메라를 확보하여 매장된 상태를 기록하였다.

발굴조사는 새만금방조제 물막이로 인한 해수 유입과 유출에 따른 조류뿐만 아니라 고군산군도 일대의 강한 조류의 영향도 받고 있어, 수중에 설치한 격자(Grid)와 수중촬영시설이 조류에 휩쓸리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다. 특히 이 조류의 영향으로 유물이 조사중심에서 1km 떨어져 분포하고 있고, 실제 조류를 측정하면 3.0노트에 가깝게 매우 빨랐다(1노트 이상이면 잠수 금지). 수중조사는

정조 시간을 중심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능하였다. 또한 제토를 통해 매몰청자를 수습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호미가 휘어질 정도로 단단한 저질로 인해 탐침봉에 의한 조사를 하였다. 이런 바다 상황과 잠수 조사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왜 신안선 등 그 중요한 수중발굴을 하면서 조사원이 수중에서 직접 조사하려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는지 이로 인해 당시까지 수중고고학자라 자신하는 전문가가 없었는지 그 이유의 일면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 유물은 매우 단단한 갯벌층에 산발적으로 매장되어 있었으며 비교적 양질의 고려청자 3,100여 점이 발굴되었다. 이들 청자는 대접, 접시, 통형잔 등 생활자기이며 순청자가 대부분이고 7점의 흑백상감청자도 발굴되었다. 이제까지 수중발굴 청자와 비교하면 비안도 청자는 제작시기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로 보이며, 제작산지는 부안의 진서리나 유천리로 추정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2006.4.21)되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진 비안도 발굴해역을 2007년 탐사한 결과, 1m 내외의 새로운 갯벌이 쌓여 수중유적은 다시 매몰되고 있었다.

군산 십이동파도 수중발굴은 비안도 수중발굴 성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굴로 이어진 경우이다. 2003년 9월 25일 개조개를 잡는 과정에서 고려청자를 발견하고 신고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계기가 되었다. 십이동파도는 군산 외항에서 30km 떨어져 바닷길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주변이 섬들로 둘러져 있고 바람과 조류의 영향이 적어 예로부터 안포으로 불렸으며 최적의 선박 피난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특히 수중 시계가 4m 내외이며 조류도 적당하여 제토를 하면 일어났던 별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비안도의 시야가 흐리고 조류도 빠른 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적의 수중발굴 환경이었다.



<사진 1> 십이동파도 청자 제토상태

자체 수중발굴조사로 고려청자와 운반선을 안전하게 인양하였다.

긴급탐사 결과, 선체는 수심 20m에 선수를 동쪽으로 향하고 좌현으로 15° 정도 기울어진 채 매장되어 있었다. 선체 내부에 도자기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일부는 외부에 산발적으로 매장되어 있었다. 문화재청에 유물을 수습하기 위해 발굴허가를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수중조사의 위험성 때문에 해군과 공동 조사를 하라는 의견이었지만, 이를 설득하여

수중발굴은 1·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조사(2003.10.21~11.19) 기간은 추운 동절기였지만 선적된 고려청자와 선원들의 생활용품을 수습하였다. 2차 조사(2004.5.1~6.3)에서는 선체인양 경험과 장비도 부족하였지만 안전하게 선체를 인양하였다. 조사결과, 운송도중 쉽게 깨질 수 있는 청자의 포장방법과 적재방법을 최초로 밝히게 되었다. 예전 시골 장에서 보았던 달걀을 포장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부목을 대고 새끼로 묶어 꾸러미를 만든 형태이며, 선체 바닥에 받침목을 대고 완충재(갈대)를 두겹게 깔 뒤 선실에 빈 공간이 없도록 적재하였다. 가운데는 가룻목(加龍木)과 나란히, 바깥쪽은 외판재와 같은 방향으로 꾸러미를 배열하여 같은 층에서도 종횡으로 빈틈이 없게 적재하였다.

발굴유물의 대부분은 대접, 접시 등 8,100여점에 달하는 생활자기이며, 당시 선상생활 도구인 철제 숟, 시루, 청동 숟가락, 항아리 등도 발굴되었다. 인양된 도자기는 12세기 해남 신덕리 일원의 도요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선체의 크기는 잔존 길이가 7m이며, 폭이 2.5m 정도로 14개편으로 해체 인양하였다. 갑판 등 상부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나, 저판과 만곡종통재, 이물비우, 호롱받침대, 저판 장식(長槩), 가룻목이 인양되었다. 2단의 만곡종통재(彎曲從通材)는 처음 확인된 선박구조로 12세기 선박인 완도선에서는 1단의 만곡종통재가 보이며, 그 이후의 13~14세기 달리도선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선체는 소나무가 주 수종이지만, 만곡종통재는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함께 사용하여 선박의 건조 목재와 구조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밧줄과 닻돌로 보이는 닻 부속구가 수습되어 청자 운반선의 실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군산 야미도(夜味島) 해역의 수중발굴도 새만금방조제 공사와 관련이 깊다. 수중발굴의 계기는 수 백점의 고려청자를 도굴하여 밀매하던 도굴범을 검거한 남대문경찰서에서 도굴 해역이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이 있는지를 문의해오면서 이루어졌다. 현장 검증 당시 추가 유물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탐사를 함께 하였다.

2005년 11월 긴급탐사 결과, 도굴범이 알려준 지점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주변 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흩어져 매장된 상태를 발견하였다. 유적의 보호를 위해 반경 1km를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추가 매장유물의 발굴 및 운반선체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차에 걸친 연차 발굴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어두운 암갈색의 유약과 거친 태토로 제작된 대접과 접시 두 종류의



조질청자(粗質靑磁) 4,547점을 발굴하였다. 하지만 도굴 압수품 320점의 청자는 유색이 맑고 표면 광택이 있어 누가 봐도 양질임을 알 수 있다. 현장 검증 때 도굴범도 하품(下品)을 보았으나 값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 인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유물 발견자의 양심적인 제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상황이다.

야미도 조사해역은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면서 방조제 안쪽이라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중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빠르게 갯벌이 쌓이고 있었다. 실제 2006년 조사까지 유물이 노출 또는 일부 묻힌 상태였으나, 2007년 조사에는 해저 50cm까지 제토를 해야 했고 2008년에는 120cm까지 제토를 해야 유물층에 이르렀다. 북서풍과 남서풍이 불면 해저시야가 제로(0m) 상태이고, 방조제 안쪽이지만 바람이 불면 생각보다 높은 파도 때문에 조사가 불가할 때도 많았다. 또한 유물이 분포하고 있는 수심이 초기엔 8m 내외였으나, 방조제 안쪽 개발을 위해 물을 빼내어 수심이 5m 내외로 낮아져 에어 리프트(Air lift)를 통한 제토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수심 5m에서 에어 리프트로 1m 이상 깊이의 유물층까지 제토하기는 어렵고 되지도 않았다. 에어 리프트는 공기의 힘으로 제토하는 방법이기에 수심 10m 이상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험과 전문가 자문으로 수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토장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를 진공제토시스템이라 명하였으며 고성능 펌프를 이용해 물을 빨아들이는 힘으로 제토를 하는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수심과 관계없이 제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이용해 태안 마도1호선 수중발굴에서 선적된 좁쌀도 안전하게 수습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기존의 조립식 바지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제토설비와 잠수장비 등이 갖춰진 목제바지선(14×16m)을 건조시켜 떠있는 수상발굴기지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새만금사업단의 예산지원이 없었다면 그 같은 장비를 도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토장비와 잠수장비를 장착해 발굴 현장으로 바로 이동과 수중조사를 할 수 있는 선박 건조를 추진하여 2012년 12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수중발굴 전용선인 ‘누리안호’를 진수시켰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수중발굴 전용선을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 2) 태안 해역 수중발굴

2007년 3월에 수중발굴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으로 수중발굴과가 직제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1976년 신안선 해저발굴을 시작한 30년이 지나서야 정식직제로 탄생되었다. 수중문화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정부 방침에 화답하듯 그해 태안 대섬에서 주꾸미가 고려청자를 물고 올라옴으로써 수중발굴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주꾸미의 고려청자 발견 소식을 접하고 바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결과, 수심 12m 내외에서 청자 9점을 수습하였고 주변에 청자가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로 2007년도에 선적청자의 발굴과 2008년엔 선체와 주변 매장유물을 발굴하였다. 발굴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한 고려청자는 꾸러미 상태로 발굴되었다. 그 사이에 먹으로 기록해 놓은 화물표인 목간(木簡)들이 수습되었다. 판독결과, 청자의 발송자는 탐진(耽津, 지금의 강진)의 인물이고, 수취자는 개경(開京)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목간 2점에서 선박의 출항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신해(辛亥)’ 라는 간지명이 확인되었다.



<사진 2> 태안 대섬 제토상태

간지는 60년마다 반복되어 시기를 추측할 수 있었고, 선체 나이테와 방사선연대 측정법을 이용한 위글메칭(Wiggle Matching) 방법으로 간지가 1131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여기에 선적된 청자들에 대한 도자사적 편년이 12세기 전반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와 상호 일치하고 있다. 목간판독 고찰로 도자기의 생산지뿐만 아니라 출항시기, 운송책임자, 적재단위 등 당시 거래관계까지 밝혀낼 수 있었다.

출토된 25,000여점의 도자기는 당시 도자기 선적방식이나 기종간의 조합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청자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靑磁堆花文蟾形硯, 보물 제1872호]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청자로 제작된 벼루들이 있기는 하지만, 철화와 퇴화로 시문된 두꺼비형의 청자벼루는 매우 희귀한 예이다. 두꺼비의 피부 용기와 눈동자를 철화와 백퇴화로 표현하였으며 입과 다리부분은 음각으로 표현하였다. 등 부분에 연당(硯堂)과 연지(硯池)를 만들고 이 부분에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중발굴은 태안 마도해역 조사이다. 주꾸미에 의한 고려청자 발견으로 수중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높아 그 해만 10건이 발견·신고 되었다. 이중 마도 해역에서 봄에 도다리를 잡던 어부의 그물에 3차례에 걸쳐 고려청자가 24점이 걸려 올라왔다는 소식을 태안군으로부터 접했다. 연속적인 발견·신고로 보아 어부에게 수중유적이 훼손될 수 있어 발견 해역에서 더 이상의 어로 작업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신고자와 함께 신고해역을 탐사하였으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다음 해 탐사에서 청자 꾸러미들을 발견하고 주변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마도1호선을 발견하였다. 또한 주변 탐사 시 입수만 하면 유물이 발견되어 이곳에서 항해가 어려운 난행량(難行梁 태안 마도와 가의도 사이)을 통과하기 위해 정박했다가 많은 해난사고가 일어난 역사서의 기록과 일치함을 알게 해준다. 현재 마도 해역은 ‘수중의 경주’ 라고 해도 될 만큼의 수중문화재를 매장하고 있는 유적지로 지금까지 조사결과,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과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한국과 중국 도자기 등 3,600여점이 발굴되었으며 연차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가진 해역이다.

2009년 마도1호선 조사에서 곡물류, 목·죽간, 대나무 제품, 젓갈류, 건어물, 도자기, 석탄 및 금속류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 선체는 저판과 외판의 일부만 남아 있었다. 선박의 선적·출항일자, 발신지, 발·수신자의 직위와 성명, 화물의 종류와 수량 등이 기록된 화물표가 발굴되어 선박과 유물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마도1호선은 1207년 겨울에서 1208년 초에 걸쳐 해남·나주·장흥·영암 일대에서 곡물류와 젓갈류 등을 거두어 개경에 있는 관직자들에게 운송하는 조운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 3> 마도1호선 상감표형주자 및 철화반구병

화물표 중 “大將軍金純永宅上田出租 陸石(대장군 김순영 댁에 전출 벼 6섬을 올린다)” 이라 적힌 대나무 화물표 6점은 유물의 절대연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1199년 김순영이 장군으로 승진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간지명이 적힌 화물표가 확인되어 1199년 이후의 선박 출항시기를 유추하였다. 이 점은 동반 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AMS)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어 수중고

고학, 역사학, 자연과학의 상호 보완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마도1호선의 출항 시기가 밝혀짐으로써 선체에서 동반 출수된 청자에 대한 편년의 설정이 바뀌게 되었다. 출수 도자기 800여점은 대접, 접시, 잔, 완, 표형주자(瓢形注子)와 승반(承盤), 기대 등 일상용기이다. 여기서 흑백상감이 된 표형주자와 철화(鐵畵)가 그려진 화분과 반구병 등이 출수되었다. 그때까지 도자 전공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철화청자의 편년은 12세기를 넘어서지 않는다 했으나, 철화청자들이 순청자와 상감청자에 동반해서 함께 출수되어 지금까지의 편년설정이 달라진 것이다. 도자 전문가의 고찰 논문을 인용하면 ‘지금까지 철화청자와 조질청자의 제작시기가 11~12세기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이해됐으나, 마도1호선의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재론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며, 이를 통해 철화청자는 13세기를 넘어서도 꾸준히 제작되었음을 입증해주는 실례가 되고 있다.

2010년 마도2호선 조사에서도 청자매병을 비롯한 각종 도자기, 곡물, 목·죽제품, 화물의 종류와 수신자를 기록한 목간 등을 발굴하였다. 특히 매병의 주둥이 부분에 대나무 화물표가 매달려 있었으며, “重房都將校吳文富/宅上精蜜盛樽封[중방의 도장교(都將校; 正8品 이하의 하급무관) 오문부대에 꿀을 단지에 채워 봉함]”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에 매병을 준(樽)이라고 불렀다는 점과 매병이 일반적으로 술이나 꽃병의 용도에서 꿀과 같은 귀한 식재료를 보관·운반했던 최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사진 4> 마도2호선 출수 매병(꽃병, 참기름병)

2011년 마도3호선의 수중발굴 결과, 목간(木簡) 35점, 도기호(陶器壺) 45점, 청자 35점, 곡물류, 사슴뿔 17점, 장기돌 46점, 젓갈, 말린 생선, 육포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하였다. 마도3호선은 잔존 길이 12m, 너비 8m, 깊이 2.5m로 지금까지 수중 발굴된 고려 선박 중 가장 잘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발굴된 적이 없는 배의 이물[船首]과 고물[船尾], 돛대와 이를 고정하는 구조 등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 고려시대 선박 구조와 조선기술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도3호선에 발굴된 목간을 고찰하면, 화물의 수취인으로 시랑(侍郎, 정4품) 신

윤화(辛允和)와 유승제(俞承制, 정3품, 俞千遇)가 적혀 있는데, 이들이 해당 관직을 지낸 시기가 1264~1268년으로 마도3호선의 연대를 알 수 있다. 또한 수취인 중 한 명인 김영공(金令公)은 최씨 무인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권력을 잡은 무인 집권자 김준(金俊)이다. 목간에는 ‘우삼번별초도령시랑(右三番別抄都領侍郎)’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삼별초가 좌·우 각 3번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별초의 지휘관이 종래 7~8품의 하급 무반(武班)이라고 알려졌지만 4품의 시랑(4품, 장군과 같은 품계)도 맡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5년에 태안 마도해역에서 또 다른 고선박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제까지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4척의 선박이 모두 고려시대였으나, 마도4호선의 조사결과 조선시대 초기 조운선임이 밝혀졌다. 전년도에 바로 옆에서 100여점이 넘는 백자가 나와 조선시대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18세기로 마도4호선에 실제 선적된 분청사기에 적합한 ‘내섬(內贍)’이라는 명문을 통하여 300여년이 앞선 15세기(1417~1425년)에 난파되었던 선박임을 알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마도4호선이 먼저 난파되어 매몰되고 나중에 다시 백자를 실은 선박이 난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도4호선은 최초로 확인된 조선시대 조운선으로 잔존 길이 13m, 폭 5m, 깊이 2m 규모이다. 현재까지 발굴한 고려시대 선박들은 선체 중앙에 1개의 돛을 설치한 구조였다. 반면 마도4호선은 선수부와 중앙부에 돛대 구멍이 발견되어 2개의 돛을 설치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가룡(加龍)에 돛대를 고정하는 부속구인 당아뿔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다. 과거 발굴된 고려시대 선박의 당아뿔은 1단인데 마도4호선은 5단의 당아뿔을 각 가룡에 설치하여 더욱 견고한 구조의 조선 기술임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 3)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발굴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도 명량대첩로 해역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로 가장 많이 발굴된 유물은 색감이 좋고 장식과 문양이 화려한 최고급 고려청자이다. 양질의 순청자와 상감청자, 조질청자가 기종별로 다양하며 주로 접시, 잔, 유병 등이 대표적이며, 백자와 도기들도 출토되었다. 특히 향로나 붓꽂이 등 특수기형도 있으며 맑은 비색(翡色)을 띠고 규석을 받쳐 구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고찰하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 강진에서 생산되었고 왕실이나 귀족층이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 노기(弩機), 석환(石丸)을 포함하여 총 726점을 발굴했다. 그중 3점의 총통은 모양과 크기(길이 58cm, 지름 3cm)가 거의 같으며, “萬曆戊子/四月日左營/造小小勝字/重三斤九/兩/匠尹德永”의 명문에 제작 연월, 지역, 총통 명칭, 무게와 장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만력 무자년 즉 1588년에 전라좌수영[左營]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3점 모두 小와 勝자 사이에 각각 〃, 工, マ가 새겨져 있어 같은 글자를 표시하는 부호로 ‘소소승자’ 총통이라고 적은 것이다. 승자총통류는 조선 중기의 개인용 화기로 승자, 차승자, 별승자(별양자), 소승자총통이 문헌 기록으로 전하며 유물 발견 사례도 있으나, 소소승자총통은 전하는 기록도 없으며 유물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2009년 태안 마도 탐사과정에서 수습되었던 이형도기(異形陶器, 고 25.0cm, 울림통 직경 좌 11.2cm, 우 12cm)가 진도 발굴 해역에서도 5점이 수습되었다. 이들 유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악기장(樂器匠)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형도기들은 전통악기 장고(杖鼓)의 원형인 요고(腰鼓, 허리가 잘록한 장구)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칭으로 보이는 요고 좌우의 울림통 크기가 미세하게 차이 나고, 울림통 끝부분에 울림 테와 가운데가 막히지 않아 소리가 공명을 일으키는 점이 이 도기가 악기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공(陶工)과 악기장의 도움을 받아 복원하여 악기로의 적합여부와 소리도 직접 확인하였다. 복원된 요고는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에서 그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잘록한 허리를 가진 북으로 소나 말과 같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집안의 오회분(五盃墳) 4호분과 5호분 고분벽화, 감은사지 서삼층석탑 사리기,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에서도 복원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요고를 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장고의 형태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게 해준다.

### III. 맺음말

지금까지 조사결과에서 보듯 수중문화재는 역사서에서 밝히지 못한 그 당시의 생활상이나 환경, 교류 등 복합적인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마도2호선에서 출수된 고려시대 매병의 이름이 준(樽)이며 꿀과 참기름을 담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다. 마도3호선에서 다량으로 출수된 사슴뿔(鹿角)을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사슴이 얼마나 많았으면 선적되어 진상되었을까 하는 것도 바로 수중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또한 수중발굴을 통해

도자사의 편년을 새롭게 정립하게 해주듯이 도자사를 공부하려면 수중발굴 도자기를 봐야 한다고 회자될 정도이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수중고고학을 가르치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 기술습득과 인적교류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4년 5월 서호주박물관에서 우리 기관과 교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ICOM Australia에서 국제교류 우수상을 받았다. 중국정부는 수중조사 기관이 이원화된 조직 즉 중국국가문물국 수하문화유산보호중심과 중국국가박물관 수하고고연구중심이었으나, 2015년에 조사의 효율성과 집중을 위해 수하문화유산보호중심으로 통합하였다. 한국의 유일한 수중조사 전문기관에서 선택과 집중의 업무추진 방식을 벤치마킹했다고 책임자가 말하는데서 우리를 보는 세계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매년 증가하는 수중문화재의 발견·신고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바다는 수중문화재의 보고이다. 하지만 빠른 조류, 탁한 시계, 동절기에 조사가 불가능 실정 등 악조건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장비의 확보와 운용기술의 습득이 필수적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수중환경, 재질, 탐사장비에 따른 이상체를 탐지할 수 있는 적정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는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매뉴얼』을 만들었다. 2016년에는 스캐닝소나와 수중초음파카메라를 도입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탐사현장과 발굴현장에서 운용하여 수중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태안 해역에서 다량으로 발굴되는 유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현지에 고선박 경화처리장과 보존연구동을 지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처리 유물의 보관과 전시를 위해 서해수중유물보관동을 신축하여 현재 전시준비 중이다.

2002년 자체발굴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성과와 기구가 확장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 바로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수중문화재를 찾고 연구하는 분야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발견·신고된 해역에 대한 수습발굴 또는 구제발굴을 해왔던 한계를 벗어나고자 2018년도에는 해전유적지를 탐사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해전유적지에 대한 계획적인 탐사를 시작으로 해양역사를 새롭게 밝힐 수 있는 해양문화유산을 찾아 여는 길을 개척할 것이다.

<표 1> 한국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연표

2017.12.31. 기준

연번	발굴유적	발굴연도	발굴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신안선 발굴	1976~84	문화재 관리국, 해군합동	14C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ton, 도자기 등 22,000여점
2	제주 신창리	1980,1983, 1996	문화재 관리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C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3	태안반도	1981~87	문화재청관리국, 해군합동	고려청자 40여점, 조선백자 등 14~17C 유물
4	완도 어두리 완도선	1983~84	문화재 관리국	12C 고려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5	진도 벽파리 진도선	1991~9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중국 통나무배 1척
6	무안 도리포	1995~9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C 고려상감청자 638점
7	목포 달리도선	199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C 고려선박 1척
8	군산 비안도	2002~03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C 고려청자 등 2,939점
9	군산 십이동파도선	2003~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보령 원산도	2004~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C 청자향로편 등
11	신안 안좌도선	200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C 고려선박 1척, 상감청자 등 4 점
12	군산 야미도	2006~09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청자 4,547 점
13	안산 대부도선	2006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C 선체편 일괄수습
14	태안 태안선	2007~0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5,043 점
15	태안 마도1호선(1,2차)	2008~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2009.4.6 명칭변경)	13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40 점
16	태안 마도2호선(3차)	2009~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74 점
17	태안 원안해수욕장 해역	201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13C 고려청자 531 점
18	태안 마도3호선(4차)	2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C 고려청자 등 336 점
19	태안 마도해역(5차)	2011~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667 점
20	인천 영흥도선	2010, 2012~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23 점
21	진도명랑대첩로해역(1~3차)	2012~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총통 등 589점
22	태안 마도해역(6차)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백자 등 289점
23	태안 마도4호선(7차)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C 조운선, 분청사기 등 400점
24	안산 대부도2호선	201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9점
25	진도명랑대첩로해역(4차)	201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137점
26	진도명랑대첩로해역(5차)	20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백자 등 128점
27	태안 당암포	20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38점



## 참고문헌

### 보고서

- 문화재청, 2003, 『水中埋藏 文化財 調査業務 處理指針 研究』.
- 문화재관리국, 1988, 『新安海底遺物 綜合篇』.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4,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
- \_\_\_\_\_, 2005, 『群山 十二東波島 海底遺蹟』.
- \_\_\_\_\_, 2008, 『群山 夜味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II)』.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신안군, 2006, 『安佐船發掘 報告書』.
- 국립해양유물전시관·군산시, 2007, 『群山 夜味島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高麗靑磁 寶物船 I, II-태안 대섬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0, 『泰安 馬島1號船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10, 『800년 전의 타임캡슐-태안 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성과 특별전 도록』.
- \_\_\_\_\_, 2011, 『泰安 馬島2號船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12, 『泰安 馬島3號船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15, 『珍島 鳴梁大捷路海域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16, 『泰安 馬島4號船 水中發掘調査 報告書』.
- \_\_\_\_\_, 2017, 『수중문화재 탐사기법 개발연구 종합보고서』.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한국농어촌공사, 2009, 『群山 夜味島 水中發掘調査·海洋文化調査 報告書(III)』.

### 학술지 게재논문

- 李鍾玟, 2011, 「태안 마도 출토품으로 본 고려중기 도자의 편년」, 『서산문화춘추』, 195-224.
- 최명지, 2013, 「泰安 대섬 海底出水 高麗靑磁의 양상과 제작시기 연구」, 『미술사학연구』, 제279·280호, 35-65.

### 단행본

- Lawrence E, Babits & Hans Van Tilburg, 1998, 『MARITIME ARCHAEOLOGY』, pp.7~8.
- Amanda Bowens, 2009, 『Underwater Archaeology - The NAS Guide to Principles and Practice』, 2-10.

### 고문헌

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9, 忠靑道 泰安郡

安興梁은 군의 서쪽으로 34의 지점에 있는데 옛날에는 難行梁이라 불렀다. 바닷물이 험하여 漕運船이 누차 패몰하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싫어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2. 高麗史 卷第十六仁宗世家 十二年(1134년) 七月條

이달에 內侍 鄭襄明을 보내 조거를 파게했다. 洪州와 蘇泰縣 등 이웃군(旁郡)에서 수천인을 정습명이 동원하여 굴착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다.

3.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二年(1412년) 十一月

태종 12년 11월 16일 안흥량에 運河를 굴착하여 漕運을 의논하다가 參贊議政府使 金承霏를 보내어 이 곳에 지형도를 자세히 작성하여 바치게 하고 검토 결과 주위가 단단한 돌로 구성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효를 거두기가 어렵다하여 논의를 중단한 기록이 있다.

발표 3

#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홍영의  
국민대학교



# 문헌자료 데이터로 분석한 섬과 연안 연구의 전망

홍영의(국민대학교)

## 1. 머리말

도서(島嶼, 이하 섬으로 축약)는 살아있는 역사공간이다. 섬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내륙과 해양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며, 자연생태 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섬 주민의 생활 터전이며 활동 영역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이전의 섬은 하나의 문화권(문화체계)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삶을 축적해 왔다.

때문에 섬 연구자들은 육지에서 잃어버린 삶의 흔적이나 문화의 원형들을 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섬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인도에 관심이 많고, 그것도 연육교 개념으로 접근하는 육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섬에 대한 학계의 인식 또한 ‘고립·단절·유배’라는 관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전통시대의 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피난처, 정치적 부침으로 인한 유배지, 세금과 처벌 등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여겼다. 오늘날에는 여름 한철의 해수욕이나 바다낚시를 즐기는 공간 정도로 간주하는 태도가 일반적이다. 내륙의 중앙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일반인들의 섬에 대한 생각은 현재와 과거의 부조화를 이루기도 하며, 섬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다. 일반인들이 섬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 해도 너무나 막연하다.

그동안의 학술연구 역시 육지 중심이었다.<sup>1)</sup> 그러나 인류 역사는 강을 중심으로 시작

1) 지금까지 연구자, 연구학회, 연구기관 등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 연구자가 확보한 자료를 위주로 진행되어왔다. 자연히 자료 공개 및 자료 활용에 있어서 제한된 면을 보였다. 둘째, 특정 섬 위주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이다. 섬이 많이 있는 전남 신안군·완도군 등 특정 지역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소외된 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유·무인도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무인도보다는 유인도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인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유인도에서 무인도로 변화되는 과정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

하였고, 그 확장 또한 해로와 수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섬은 해로와 수로를 잇는 거점 지역으로서 식량자원의 기지, 교통로의 연결점, 전략적 거점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전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과 지위를 차지한 섬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방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한국 고·중세사 연구의 확대를 위해서도 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섬은 인접 국가 간에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 조어군도(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 쿠릴열도(치시마열도)를 둘러싼 러·일 간의 분쟁 등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서 영유권은 단순한 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양영토의 주권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바다 지킴이로서의 섬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고립(孤立)과 절해고도(絶海孤島)에서 여유(餘裕, Composure)와 치유(治癒, Healing)의 섬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도서(섬)는 인류의 마지막 땅으로 주목한다. 천혜 환경과 자원의 보고로 각광받으면서 신생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한 치열한 세계 경쟁이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 학계의 도서(섬)·해양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자연지리, 환경(생태) 분야에서도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도서(섬)와 해양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 철학, 문학, 민속학,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도에 개최된 학술대회만 하더라도 10여 개가 될 정도로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도서(섬)의 역사문화·지리학’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또한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산하 ‘인문한국(HK) 섬의 인문학연구단’에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2009년 인문한국사업 지원 평가에서 10년 동안 연구비 총액 70억 원을 지원받아 「섬의 인문학 - 문명사적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2)</sup> 이외에도 한국도서(섬)학회,<sup>3)</sup> 인천섬연구모임<sup>4)</sup> 등이 소규모로 학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000년대부터 섬 관련 연구 단체가 조직되면서 역사학과 인문지

---

다. 넷째, 바다 섬을 위주로 연구해 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다 섬 외에도 적은 수량이지만 강 섬, 호수 섬에 대해서도 조사되어야 한다.

2) <http://island.mokpo.ac.kr>

3) 이 학회는 원래 1988년에 결성된 한국도서연구회(韓國島嶼研究会)를 모체로 하고 있다. 이 학회의 연구성과는 『韓國島嶼研究』에 정리되어 있다. <http://www.koreaseom.or.kr/>

4) 이 학회는 2012년 결성하여 인천섬연구총서 시리즈를 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를 기반으로 인천섬연구모임을 전문적,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발족하기로 하고, ‘지속가능한섬’ 발기인 대회(2015.5)를 가졌다. <http://cafe.naver.com/incheonsum>

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특히 해양레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의 활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섬 관련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 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아직 한국 전근대 도서(섬) 지명 및 관련 문헌자료의 DB 구축 작업과 같은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당연히 집성되어야 할 도서(섬) 지명(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들은 어떻게 삶을 영위해 왔는지에 대한 기초적 문헌자료 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섬과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여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고·중세 섬의 지명 및 관련 자료 정리 DB 구축 사업을 통해 육지 중심의 공간인식을 극복하고 해양 시대에 걸맞는 공간인식의 정리와 새로운 시각을 창출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계에서는 고·중세 섬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이다. 당연히 주목되어야 할 섬 자료의 정리 작업은 더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이 섬의 지명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정리, 섬 관련 색인어 추출, 웹(Wep) 검색망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새로운 연구의 확산이다.<sup>6)</sup>

따라서 이 글은 과거 도서(섬) 정책에 대한 반성과 관심 제고의 측면에서 도서(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을 전제로 고·중세 역사 속의 섬 지명 및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색인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에 따라 분류·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적된 방대한 자료를 여러 학문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자료의 탐색을 통한 연구방법론의 확장 및 역사학과 지리학 간의 학제적 교류를 통한 새로운 연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물은 웹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역사학·지리학 등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sup>7)</sup> 이러한 DB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섬과 연안 연구의 새로운 전망을 기대해 본다.

5) 홍영의, 2016 「한국역사상 島嶼(섬)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도서(섬) 역사문화, 지리학을 통한 해양권역 연구 활성화-」 『한국학논총』 46

6) 이러한 계획으로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에 “한국역사상 도서(섬) 관련 고·중세 기초자료 DB 구축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매년 2억 5천만원씩 3년간 7억 5천만원의 연구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참여 인원은 총 13명으로 연구책임자인 필자를 비롯해 공동연구원으로 각 시대사 전공자 6명, 박사급 전임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으로 5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있다.

7) 현재 업로드 후 Web-Service 시험 가동중에 있다( <http://koreaisland.kookmin.ac.kr> )

## 2. 섬 관련 문헌 자료의 대상 범위

섬은 ‘사방(사면)이 물로 싸인 육지’ 라고 한다. 바다의 섬, 강 안의 섬, 호수 안에도 섬이 있다. 섬은 고대 이래로 해로를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드리는 교류의 거점이기도 하고, 또 중요 섬에 군현(郡縣)과 진(鎭)을 설치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높았다. 섬은 땅이자 영토의 일부였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전근대 왕조에서도 섬과 섬 주민을 관리, 감독, 보호해야 했다. 모든 땅이 공유지인 왕토라는 전근대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견주어 보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가에서 섬의 실태 파악과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영토 안에 소속된 섬 역시 왕화(王化)의 대상이다.<sup>8)</sup>

1123년 고려 인종 때 송나라 사신으로 개경을 방문한 서공(徐兢)은 “바다 가운데 땅으로 촌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洲)’ 라고 하며, 주보다 작으나 역시 살 수 있는 것은 ‘도(島)’ 라고 한다. 도보다 작으면 ‘서(嶼)’ 라고 하고 서보다 작으면서 초목이 있으면 ‘섬(苔)’ 이라 하고, 섬과 서 같으면서도 그 바탕이 순전히 돌이면 ‘초(焦)’ 라고 한다” 고<sup>9)</sup> 하였다. 또 여기에는 고려가 ‘주도(洲島) 3천 7백’ 이라 하여 3,700개의 섬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서공은 고려의 섬 숫자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한국 고·중세 역사에서 섬의 지명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61년 (철종 12)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바다와 하천에 총 1,260개 섬(島)과 암(巖)이 수록되어 있다. 명칭이 있는 섬은 963개로 바다 섬이 914개, 하천의 섬이 49개이다. 명칭이 없는 섬은 297개로 바다 섬이 282개, 하천 섬이 15개이다. 이와 같이 19세 후반 1,300여 개에 달하는 섬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해양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섬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신해양법 제121조 기준에서 보면, 도서(섬)란 “수면으로 둘러싸인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라고 한다(유엔 해양법협약 1958년 영해법 제10조 1항; 1982년 신해양법 121조 1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남·북한 약 4,403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서남해 도서지역은 ‘오직 서남해 여러 섬은 그 중 큰 것은 둘레가 100리가 넘고 작은 것도 40~50리가 된다. 별이나 바둑알처럼 퍼져 있는데[星羅棋布]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여 있어 그 수가 무려 1천여

8) 홍영익, 2017 「고려시대의 도서(섬)의 인식과 개발」 『한국학논총』 48

9) 『高麗圖經』 권34 海道1

10) 『高麗圖經』 권3 郡邑



개에 이른다. 이것은 나라의 바깥 울타리이다' 라고 할<sup>11)</sup> 정도로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공식 집계로 제시한 우리나라 도서(섬)는 남·북한 합쳐 4,403개인데, 그중 남한에 3,358개가 있다(2010년 1월 집계). 이 가운데 유인도(有人島)는 482개, 무인도(無人島)가 2,876개로 전체 도서(섬)의 85.65%를 차지한다(2010, 국토해양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잠정 집계한 개수는 4,201개이다. 무인도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무인도는 2,642개이다. 도서(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020개(60.2%)이며, 그 다음은 경상남도로 565개(16.8%), 충청남도가 270개(8.0%) 등이다. 이를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시·도별 도서(섬) 분포 현황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358	48	151	3	53	34	270	105	2,020	43	565	66
	비율(%)	14.3	4.5	0.1	15.8	10.1	8.0	31.3	60.2	12.8	16.8	19.7
유인도	482(14.4%)	3	40	—	12	—	34	25	276	3	81	8
	비율(%)	0.1	8.3	—	2.5	—	8.9	5.2	57.3	0.1	16.8	1.7
무인도	2,876(85.6%)	45	111	3	41	34	236	80	1,744	40	484	58
	비율(%)	1.6	3.9	0.1	1.4	1.2	8.2	2.8	60.6	1.4	16.8	2.0
	면적(76.47km <sup>2</sup> )	4.71	8.29	0.04	0.73	0.26	8.49	2.29	40.45	0.14	9.23	1.84
	비율(%)	6.2	10.8	0.1	1.0	0.3	11.1	3.0	52.9	0.2	12.1	2.4

자료: 국토해양부(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2010), 행정안전부(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연해 지역사 및 해양사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섬 관련 기초자료를 추출 정리하여 DB를 구축함에 있다. 그동안 작업 대상인 섬 관련 문헌자료는 고·중세 시기에 해당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사서류(7),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등 지리지류(5),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 등 읍지류(13), 『자산어보(玆山魚譜)』 등 잡서류(8), 개인 문집류(223), 중국측 기록인 『후한서(後漢書)』 등 25사와 『태평광기(太平廣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등 외서류(19, 기타 2 포함) 등 총 275종이다.

이 가운데, 지리지·읍지류는 연안(沿岸)의 군현 162개 군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sup>12)</sup>

11) 정약용, 『經世遺表』 권2 秋官刑曹 5 刑官之屬 및 안정복, 『順菴先生文集』 권9 書 與鄭子尚別紙

12) 연안의 162개 군현은 경기도 강화도호부 등 18군현, 충청도 결성현 등 21군현, 경상도 거제현 등 30군현, 전라도 강진현 등 27군현, 강원도 간성군 등 11군현, 황해도 강령현 등 15군현, 함경도 경성도호부 등 20군현, 평안도 가산군 등 22군현 등이다.

연안의 읍지는 총 340개 군현읍지가 있다. 경기도 강화도읍지 등 93종, 강원도 간성군읍지 등 47종, 경상도 거제부읍지 등 51종, 충청도 결성읍지 등 56종, 전라도 강진군읍지 등 40종, 황해도 해서읍지 등 28종, 평안도 선천군

문집류는 1,131종 465책(한국고전번역원 기준)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개인 문집의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문집내의 유배기록과 일기류 22종이 포함되었다는<sup>13)</sup>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DB 작업 결과물을 분석하면, 정사류에서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조~순종)』가 183,646건,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순종)』 34,175건, 『고려사(高麗史)』 2,699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307건, 『동사강목(東史綱目)』 1,157건, 『삼국사기(三國史記)』 204건, 『삼국사기(三國遺事)』 40건 순이다. 『승정원일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지리지류는 『여지도서(輿地圖書)』 7,360건, 『대동지지(大東地誌)』 6,301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262건 순이다.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491건과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480건은 전국적인 지리지라 아니어서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이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읍지류는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 2,073건,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1,453건, 『경기도읍지(京畿道邑誌)』 1,413건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 955건, 『평안도읍지(平安道邑誌)』 959건, 『황해도읍지(黃海道邑誌)』 849건, 『함경도읍지(咸境道邑誌)』 598건, 『강원도읍지(江原道邑誌)』 564건 순이다. 읍지 중에는 『전라도읍지(全羅道邑誌)』가 가장 수치가 높다. 이 지역에 섬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단일 섬으로는 『제주읍지(濟州邑誌)』 1,920건, 『강도지(江都志)』 882건, 『탐라지(耽羅志)』 872건, 『중경지(中京誌)』 283건, 『선천읍지(宣川邑誌)』 17건 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1	三國史記	204	05	朝鮮王朝實錄(태조~순종)	34,175
02	三國遺事	40	06	承政院日記(인조~순종)	183,646
03	高麗史	2699	07	東史綱目	1157
04	高麗史節要	1307			
계			7		223,228

<표 2> 정사류 자료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읍지 등 12종, 함경도 경성군읍지 등 13종, 340개에서 선본(善本)을 택하여 작업하였다.  
 13) ①『忘軒先生文集』 李胄(1468~1504) ②『冲庵集』(『濟州風土錄』) 金淨(1486~1521) ③『東臯遺稿』 李浚慶(1499~1572) ④『南槎錄』 金尚憲(1570~1652) ⑤『忠武公全書』, 李舜臣(1545~1598) ⑥『濟州風土記』 李健(1614~1662) ⑦『太古亭文集』, 文希舜(1597~1678) ⑧『南槎日錄』 李增(1628~1686) ⑨『艮庵先生文集』, 魏世鈺(1689~1766) ⑩『月州集』, 蘇斗山(1627~1693) ⑪『西齋集』, 任徵夏(1687~1730) ⑫『政絃新譜』, 魏伯珪(1727~1798) ⑬『仙華遺稿』 金若行(1718~1788) ⑭『潭庭遺稿』 金鑰(1766~1821) ⑮『柳菴叢書』 李綱會(1789~미상) ⑯『艱貞日錄』 金樞(1805~1864) ⑰『智島郡叢瑣錄』, 吳弘默(1833~?) ⑱『薪島日錄』, 李世輔(1832~1895), ⑲『聿修齋稿』 朴遇賢(1829~1907) ⑳『勉菴先生文集』 崔益鉉(1833~1906) ㉑『統陰晴史』 金允植(1835~1922). 이외의 2종(『南海聞見錄』 柳義養(1718~?), 『適所日記』 金若行(1718~1788))은 국문필사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1	慶尙道地理志	491	04	輿地圖書	7360
02	慶尙道續撰地理誌	480	05	大東地誌	6301
03	新增東國輿地勝覽	3262			
계			5		17,894

<표 3> 지리지류 자료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1	京畿道邑誌	1413	08	咸境道邑誌	598
02	全羅道邑誌	2073	09	中京誌	283
03	慶尙道邑誌	1453	10	江都志	882
04	忠清道邑誌	955	11	濟州邑誌	1920
05	江原道邑誌	564	12	耽羅志	872
06	黃海道邑誌	849	13	宜川邑誌	17
07	平安道邑誌	959			4,572
계			13		12,838

<표 4> 읍지류 자료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1	入唐求法巡禮行記	19	05	智島郡叢鎖錄	1142
02	高麗墓誌銘集成	81	06	東萊府啓錄	5381
03	萬機要覽	921	07	茲山魚譜	769
04	戶口總數	473	08	漂海錄	125
계			9		8,911

<표 5> 기타 잡서류 자료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01	澗松先生文集	5	113	白南先生文集	19
002	澗松先生續集	3	114	白沙先生集	2
003	艮翁先生文集	46	115	栢巖先生文集	8
004	艮庭集	1	116	白湖先生文集	7
005	葛川先生文集	81	117	樊巖先生集	40
006	江漢集	30	118	泛翁集	10
007	儉巖山人詩集	2	119	泛虛亭集	21
008	儉齋集	1	120	屏山集	1
009	景濂亭集	6	121	保閑齋集	22
010	警修堂全藁	40	122	鳳麓集	11
011	綱菴集	8	123	北軒居士集	40
012	景淵堂先生詩集	10	124	沙村集	9
013	敬亭先生續集	307	125	三淵集	76
014	敬亭先生集	35	126	西浦先生集	4
015	警弦齋集	1	127	西河先生集	5
016	谿谷先生漫筆	2	128	仙華遺稿(謫所日記)	46
017	谿谷先生集	18	129	醒翁先生遺稿	7
018	溪巖先生文集	3	130	成齋集	22
019	溪陰集	1	131	素谷先生遺稿	2

020	古溪文集	55	132	蘇齋先生文集	56
021	孤山遺稿	7	133	疎齋集	4
022	孤舟集	56	134	篠叢遺稿	3
023	古歡堂收艸詩稿	15	135	松竹堂文集	11
024	果齋先生集	6	136	松坡集	4
025	觀復菴詩稿	4	137	壽峴集	1
026	觀水齋遺稿	2	138	樂齋先生文集	1
027	觀我齋稿	15	139	樂全堂集	9
028	冠巖全書	32	140	樂靜先生文集	2
029	冠陽詩集	8	141	安窩遺稿	6
030	冠陽集	1	142	藥軒遺集	11
031	灌圃先生文集	3	143	約軒集	5
032	灌圃先生詩集	4	144	陽坡遺稿	2
033	龜峯先生集	10	145	嶧陽先生文集	1
034	九峯集	1	146	研經齋全集	25
035	龜村先生文集	1	147	淵泉先生文集	20
036	菊圃先生集	20	148	瀛隱文集	3
037	圭菴先生文集	1	149	鰲峯先生集	4
038	葵亭集	16	150	鰲齋集	24
039	葵窓遺稿	48	151	梧川先生集	2
040	橘屋拙稿	5	152	玉峯詩集	9
041	謹齋先生集	18	153	玉川先生文集	2
042	錦帶詩文鈔	6	154	浣巖集	11
043	錦坡遺集	137	155	于郊堂遺稿	12
044	琴湖遺稿	4	156	愚伏先生文集	1
045	汲古遺稿	3	157	毅庵先生文集	1
046	碁峯集	2	158	毅菴先生文集	2
047	畸庵集	12	159	耳溪集	61
048	杞園集	13	160	頤齋遺藁	6
049	企齋文集	3	161	忍齋先生文集	3
050	企齋別集	8	162	訥齋先生文集	4
051	企齋集	27	163	一菴集	5
052	金陵集	6	164	自菴金先生文集	23
053	南礪集選	2	165	自著	18
054	南溪集	7	166	潛窩遺稿	2
055	南塘先生文集	2	167	藏谷先生文集	3
056	南岳集	15	168	丈巖先生集	5
057	南陽先生詩集	1	169	長吟亭遺稿	1
058	南槎日錄	930	170	再思堂先生逸集	2
059	南坡相國文集	4	171	樗軒集	3
060	南坡先生文集	10	172	貞蕤閣集	11
061	耐齋集	3	173	靜齋先生文集	1
062	農廬集	1	174	霽峯集	25
063	農巖集	16	175	霽山先生文集	11
064	訥隱先生文集	17	176	霽月堂先生集	8
065	訥齋先生續集	4	177	足睡堂集	19
066	澹人集	15	178	拙翁集	11
067	蕩庭遺藁	1	179	竹堂先生集	34
068	大峯先生文集	3	180	竹石館遺集	7
069	岱淵遺藁	16	181	竹所集	6

070	陶谷集	38	182	竹陰先生集	21
071	陶菴先生集	4	183	竹泉集	57
072	陶雲遺集	8	184	竹下集	9
073	蘿山集	51	185	檜巢集	35
074	懶窩集	30	186	芝峯先生集	58
075	懶隱先生文集	4	187	知守齋集	1
076	懶隱先生續集	1	188	止庵遺稿	37
077	懶齋先生文集	5	189	芝川集	1
078	懶齋集	1	190	芝湖集	1
079	洛涯金先生遺稿	1	191	直齋集	1
080	蘭菊齋集	2	192	槎川詩抄	16
081	蘭雪軒詩集	3	193	濯纓先生文集	12
082	櫟翁遺稿	6	194	台溪先生文集	6
083	冷齋集	14	195	太乙菴文集	1
084	老稼齋集	15	196	泰齋先生文集	4
085	蘆沙先生文集	1	197	苔川先生集	3
086	魯西先生遺稿	3	198	苔泉集	25
087	魯宇文集	4	199	太湖集	12
088	老隱集	1	200	澤堂先生集	29
089	蘆洲先生文集	10	201	退憂堂集	1
090	老村集	6	202	退軒遺稿	3
091	潘谿集	11	203	八谷先生集	7
092	雷淵集	16	204	八吾軒先生文集	3
093	龍溪遺稿	25	205	圃巖集	31
094	龍洲先生遺稿	13	206	圃隱先生文集	4
095	凌虛關漫稿	1	207	豐墅集	22
096	凌壺集	8	208	彌雲詩稿	10
097	李忠武公全書	10	209	荷谷先生詩集	2
098	臨淵齋先生文集	4	210	荷谷先生詩鈔	4
099	立齋先生文集	5	211	荷棲集	5
100	磨鏡軒集	27	212	芴亭先生文集	3
101	晚慕遺稿	25	213	鶴塘遺稿	3
102	忘軒遺稿	10	214	鶴庵集	10

<표 6> 문집류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순번	이름	빈도	순번	이름	빈도
01	後漢書	3	11	新唐書	8
02	三國志	6	12	宋史	16
03	晉書	1	13	金史	4
04	南齊書	1	14	元史	49
05	梁書	1	15	新元史	75
06	魏書	3	16	明史	43
07	南史	1	17	清史稿	31
08	北史	10	18	宣和奉使高麗圖經	206
09	隋書	8	19	太平廣記	854
10	舊唐書	3			
계			19		1,323

<표 7> 중국 자료에서의 섬 관련 색인어 빈도

이와 같은 275종의 자료에서 추출된 섬 관련 색인수 데이터는 모두 268,230건에 해당한다. 섬 포함 전체 색인 통계의 수치는 사서류(223,228), 지리지류(17,894), 읍지류(12,838), 잡서류(7,769), 개인 문집류(5,178), 외서류(1,323) 순이다. 그리고 이를 다시 나누어 보면, 섬 지명 관련 83,906건, 섬 역사 관련 143,323, 자연 41,001건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종류	섬	역사	자연	합계
사서	75,493	117,117	30,618	223,228
지리지	3,021	9,719	5,154	17,894
읍지	1,439	8,565	2,834	12,838
잡사	919	5,843	1,007	7,769
문집	2,683	1,640	855	5,178
외사	351	439	523	1,323
합계	83,906	143,323	41,001	268,230

<표 8> 문헌자료별 대분류 색인어 유형별 통계

### 3. 자료 정리 및 DB화 과정

여러 자료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섬 관련 문헌자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섬 연구를 위한 문헌자료 정리 역시 해당 자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합한 표제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먼저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도경』·『고려사』 지리지·『세종실록』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증보문헌비고』·『여지도서』·『대동지지』 등과 같은 지리지류 자료의 분류 방식을 검토하고 분류 기준과 표제어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분류로서 총류·지리·역사·행정·시설·경제·문화·인물 등의 범주로 나누었다(<표 9·10> 분류체계 참조).

<표 9> 분류체계(지리)

순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G01	일반	陸地	
		바다	(1)深海 (2)沿海 (3)沿海郡 (4)潮流 (5)滄海 (6)海流 (7)海邊 (8)海岸 (9)海中 (10)其他
		其他	
G02	바다	東海	(1)東海 (2)朝鮮海 (3)蒼海 (4)青海 (5)其他
		西海	(1)西海 (2)黃海 (3)其他
		南海	
		其他	
G03	산악	山岳	
		巖峯	
		洞窟	
		고개	
		其他	
G04	하천	江川	
		溪灘	
		池淵	
		泉井	
		其他	
G05	동식물	動物	
		草木	
		林藪	
		鑛物	
		其他	
G06	수산물	魚類	
		貝類	
		軟體類	
		甲殼類	
		海藻類	
		其他	

<표 10> 분류체계(역사)

순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H01	정치행정	官廳	(1)官舍 (2)客館 (3)倉庫 (4)行宮 (5)其他
		官職	(1)地方官 (2)土官 (3)科擧 (4)其他
		行政制度	(1)沿革 (2)方面 (3)其他
		行政區域	(1)道牧 (2)都京 (3)州府 (4)郡縣 (5)邑面 (6)洞里 (7)村鄉 (8)所·部曲 (9)其他
		刑政	(1)犯罪 (2)刑獄 (3)法令 (4)訟事 (5)流配 (6)逃亡 (7)其他
		其他	
H02	경제산업	土地灌溉	(1)田畝 (2)屯田 (3)墾田 (4)牧場 (5)馬場 (6)漁場 (7)鹽場 (8)園坪 (9)店所 (10)堤堰 (11)沭池 (12)其他
		租稅物産	(1)田稅 (2)徭役 (3)大同 (4)糶糴 (5)土貢 (6)藥材 (7)土産 (8)水産物 (9)其他
		市場	(1)場市 (2)波市 (3)其他
		道具	(1)農具 (2)漁具 (3)船舶 (4)其他
		其他	
H03	사회교육	教育	(1)鄉校 (2)書院 (3)書堂 (4)冊版 (5)其他
		災異救恤	(1)天災地變 (2)疫疾 (3)火災 (4)漂流 (5)事件 (6)戰爭 (7)避難 (8)饑饉 (9)救恤 (10)其他
		祭祀陵墓	(1)祠廟 (2)壇堂 (3)殿閣 (4)齋室 (5)陵園 (6)墓塚 (7)古墳 (8)碑石 (9)其他
		家屋樓亭	(1)家屋 (2)庭園 (3)別莊 (4)樓亭 (5)堂宇 (6)殿閣 (7)精舍 (8)書齋 (9)軒臺 (10)其他
		其他	
H04	군사교통	關防	(1)城郭 (2)鎭營 (3)堡所 (4)墩臺 (5)烽燧 (6)其他
		軍事	(1)軍丁 (2)營鎭軍 (3)水軍 (4)兵船 (5)武器 (6)一般軍 (7)其他
		交通	(1)海路 (2)道路 (3)橋梁 (4)驛院 (5)漕運 (6)津渡 (7)浦港 (8)梁灘 (9)岬串 (10)其他
		其他	
H05	문화	生活交流	(1)飲食 (2)衣服 (3)住居 (4)使臣 (5)民間 (6)其他
		民俗宗教	(1)冠婚喪祭 (2)洞祭 (3)名節 (4)佛教 (5)道教 (6)巫俗 (7)祭儀 (8)其他
		藝術	(1)詩歌 (2)記文 (3)小說 (4)文集 (5)美術 (6)建築 (7)工藝 (8)音樂 (9)其他
		遺物遺蹟	(1)古蹟 (2)善政碑 (3)遺墟碑 (4)遺墟地 (5)其他
		其他	
H06	인물	人口	(1)戶口 (2)人口 (3)奴婢 (4)其他
		姓氏本貫	(1)姓 (2)續姓 (3)亡姓 (4)世居地 (5)其他
		島人	(1)官人 (2)忠臣 (3)孝子 (4)烈女 (5)奴婢 (6)一般人 (7)漂流人 (8)其他
		外地人	(1)官人(地方官/土官) (2)使臣/臨時派遣者 (3)流配人 (4)漂流人 (5)逃亡人/事件事故 (6)軍人 (7)其他
		其他	



### (1) 분류체계의 체계화와 설정

위의 <표 9·10> 분류체계의 상위분류[대분류]에는 섬의 구성요소에서 찾아지는 많은 하위분류 요소가 있다. 하위분류 요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섬 자료에서 찾을 수 있는 표제어[중분류]의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표제어의 간략한 설명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표제어에서 검출된 것이 가장 하위 단위의 구성요소인 색인어[소분류]가 되며, 이것이 최종 검색어가 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문헌자료 정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서 분류체계를 체계화하였다. 이는 향후 ‘섬 개념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ㄱ) 분류체계의 설정

- 종류: 도서(섬)의 일반적인 용례를 말하며, 고유 명칭인 섬 이름도 여기에 포함하였다.
- 지리: 산천 및 자연 지세를 말하며, 지정학적 지리적 자연형세가 인문 지리적 요소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고려하여, 도서(섬)에 분포하는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역사: 고대 이래 섬의 명칭과 소속관계를 시대별 변화과정에서 찾아 도서(섬)의 건치연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 도서(섬)의 행정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전근대 도서(섬)의 행정 영역을 통해서 그 도서(섬)의 변화상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 시설: 인위적으로 설치 조성한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의 구조와 변화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경제: 생활 단위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요소를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 사람들의 생활상과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 문화: 도서(섬) 사람이 누린 풍속·놀이 등의 모습을 말하며, 전근대 도서(섬)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질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 인물: 도서(섬) 사람들의 관계 구성을 성씨·본관·효자·충신·열녀·관리(명환, 유배) 등을 통해 도서(섬) 사람들의 구성 요소를 찾고자 한다.

#### (ㄴ) 분류체계 조정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정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실제 작업과정에서 많은 조정과 수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적용을 통해 도서(섬) 관련 역사 지리적 문헌자료 정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 (2) 자료의 구성과 구축 방법

### (ㄱ) 자료 처리 방법

실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자료 처리 방법의 전범이 필요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자료처리 원칙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정리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정리하되, 소분류인 색인어는 동일 분류체계 안에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한다.

나. 자료는 원문대로 입력 처리하며(①), 자료 출전은 괄호 안에 책명 권수를 기록한다(②).

다. 색인어 속의 각각의 자료는 원전의 목차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원전의 순서는 자료의 성격과 편찬연대를 고려하여 정한다.

라. 색인어는 『고려사』 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세종실록』 지리지·『여지도서』·『증보문헌비고』·『대동여지도』 등 지리지 관련 주요 원전 자료를 토대로 추출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자료를 처리하면서 색인어를 계속 확충했다. 다음은 개별 읍지인 『조선시대 사찬읍지』·『한국근대읍지』와 『강화부지』·『탐라지』 등의 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분류체계에 따른 색인어이다. 소분류에 해당하는 항목이 색인어가 되며 추후 검색어로 기능하게 된다.

위의 <표 9·10> 분류체계의 항목(대·중·소) 수치는 다음과 같다. 섬 명칭과 관련한 대분류(4), 중분류(49), 소분류(466) 등 모두 519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 역사와 관련한 대분류(6), 중분류(30), 소분류(165) 등 모두 201개 항목이다. 섬의 자연과 관련한 대분류(6), 중분류(28), 소분류(18) 등 52개 항목이다. 총 772개의 분류 항목을 토대로 섬 명칭 관련 83,906건, 역사 관련 143,323건, 자연 41,001건 등 총 268,230건을 추출해 내었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계
섬	4	49	466	519
역사	6	30	165	201
자연	6	28	18	52
합계	16	107	649	772

<표 11> 분류체계의 코드 항목(대·중·소)

## 1. 자연 대 · 중분류

대분류	건수
動物	353
바다	21,101
山岳	4,112
水産物	14,073
一般	159
河川	1,203
합계	41,001

대분류	중분류	건수
動物		353
	鉱物	6
	動物	188
	林藪	125
	草木	34
바다		21,101
	東海	319
	西海	20,782
山岳		4,112
	고개	8
	洞窟	27
	山岳	3,891
	巖峯	186
水産物		14,073
	甲殻類	306
	其他	2,641
	魚類	9,362
	軟体類	223
	貝類	399
	海藻類	1,142
一般		159
河川	바다	159
		1,203
	江川	608
	溪灘	75
	池淵	279
총합계	泉井	241
		41,001

## 2. 역사 대·중·소분류

대분류	건수
經濟産業	22,136
軍事交通	19,952
文化	921
社會教育	1,169
人物	28,904
政治行政	70,241
합계	143,323

대분류	중분류	건수
經濟産業		22,136
	道具	2,099
	市場	8
	租稅物産	18,565
	土地灌溉	1,464
軍事交通		19,952
	關防	3,604
	交通	13,966
文化	軍事	2,382
		921
	民俗宗教	676
	生活交流	5
	芸術	58
社會教育	遺物遺蹟	182
		1,169
	家屋樓亭	574
	教育	41
	其他	3
人物	災異救恤	180
	祭祀陵墓	371
		28,904
	島人	1080
	外地人	27,453
政治行政	人口	371
		70,241
	官職	7,362
	官廳	1,303
	行政區域	61,553
합계	行政制度	23
		143,32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합계 : 건수
經濟産業			22,136
	道具		2,099
		其他	1
		船舶	1,210
		漁具	888
			8
	市場		8
		場市	8
	租稅物産		18,565

		其他	539
		大同	162
		水產物	4,357
		藥材	843
		徭役	220
		田稅	25
		糶糴	4
		土貢	3,450
		土產	8,965
	土地灌溉		1,464
		其他	3
		屯田	2
		牧場	804
		淤池	9
		漁場	221
		塩場	2
		園坪	337
		田畚	21
		堤堰	65
軍事交通			19,952
	關防		3,604
		墩台	82
		堡所	661
		烽燧	129
		城郭	300
		鎮營	2,432
	交通		13,966
		岬串	369
		橋梁	441
		道路	3
		梁灘	811
		驛院	97
		漕運	1,706
		津渡	1,990
		浦港	8,450
		海路	99
	軍事		2,382
		軍丁	3
		其他	20
		武器	140
		兵船	668
		水軍	1,500
		營鎮軍	44
		一般軍	7
文化			921
	民俗宗教		676
		洞祭	39
		巫俗	14
		仏教	447
		祭儀	176
	生活交流		5

		飲食	5
	芸術		58
		記文	5
		文集	17
		詩歌	36
	遺物遺蹟		182
		古蹟	97
		其他	4
		善政碑	80
		遺墟碑	1
社會教育			1,169
	家屋樓亭		574
		家屋	5
		樓亭	536
		書齋	1
		殿閣	1
		精舍	9
		軒台	22
	教育		41
		書堂	2
		書院	38
		鄉校	1
	其他		3
			3
	災異救恤		180
		事件	7
		戰爭	3
		天災地變	13
		漂流	157
	祭祀陵墓		371
		陵園	34
		壇堂	29
		墓塚	26
		祠廟	108
		齋室	11
		殿閣	163
人物			28,904
	島人		1,080
		官人	12
		奴婢	178
		烈女	756
		忠臣	64
		孝子	70

### 3. 섬 관련 문헌 자료의 여러 유형

#### 1) 문헌자료에서의 섬 명칭 자료

한국 고·중세 역사에서 도서(섬)의 지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861년(철종 12)

김정호가 작성한 「대동여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바다와 하천에 총 1,260개 섬(島)과 암(巖)이 수록되어 있다. 지명이 있는 섬은 963개, 지명이 없는 섬은 297개이다. 여기서 바다에 있는 섬으로 지명이 있는 섬은 914개, 하천에 있는 섬으로 지명이 있는 섬은 49개이다. 하천에 있으면서 이름이 없는 섬은 15개, 바다에 있으면서 이름 없는 섬은 282개이다. 이와 같이 19세 후반 1,300여개에 달하는 도서(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만큼 해양(바다)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며, 도서(섬)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sup>14)</sup>

작업 진행 과정에서 색인어로 축출 정리한 2,002개의 섬이름[島名]을 색인어로 확보하였다. 이후 색인어 추가하여 5,066개를 확보하였는데, 사서류(『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지리지』 등)과 지리지류(『신증동국여지승람』·『여지도서』·『대동지지』·『증보문헌비고』 지리 등), 지도류(대동여지도)와 『조선지리지』·『도서백서』(전라남도 편) 등에서 보완하였다.

섬 명칭 문헌 자료에서 축출된 건수는 총 83,906건이며, 일반(一般)류가 39,111건, 남한 37,263건, 북한이 4,087건, 미상이 3,445건으로 파악되었다.

대분류	중분류	건수	지역		대분류	중분류	건수
합계		83,906					
일반(一般)		39,111	남한	37,263	북한		4,087
	각도(各島)	166	경기도	560	강원도		226
	강도(江島)	12	강원도	119	남포특별시		46
	고도(孤島)	0	경상남도	7,456	라선특별시		1
	공도(空島)	0	경상북도	518	량강도		0
	근도(近島)	499	광주광역시	0	자강도		0
	도장(島長)	37	대구광역시	0	청진직할시		0
	도서(島嶼)	457	대전광역시	0	평안남도		61
	도인(島人)	370	부산광역시	427	평안북도		2,135
	도암(島巖)	8	서울특별시	763	평양직할시		62
	배도(配島)	0	울산광역시	46	함경남도		217
	섬서(苦嶼)	2	인천광역시	2,530	함경북도		166
	원도(遠島)	0	전라남도	17,781	함흥직할시		0
	절도(絶島)	12,690	전라북도	1,441	황해남도		999
	해도(海島)	3,152	제주특별자치도	4,616	황해북도		174
	초(草(焦))	0	충청남도	972	미상		3,445
	기타	0	충청북도	34			

<표 12> 섬 명칭 문헌 자료에서 축출된 대-중분류별 건수

14) 통일신라까지 기록에 보이는 섬은 모두 28개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섬이 파악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삼국사기』에는 5개군(8개 섬)과 椒島·鶴島(白嶺鎮)·于山國(蔚陵島)·耽羅國 등 4개 섬, 三國有名未詳地分(臯夷島·木出島·風島·遺鳳島·晁栖島·浮雲島·海浜島·壑中島·升天島·乘黃島·求麟島·負凶島·河精島) 13개 등 22개의 섬 명칭이 보인다. 또 『삼국유사』에는 荷山島·望山島·骨大島·鶴島·淸海鎮·德物島·毛羅 등 7개만이 보인다. 이외에도 「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서남해안의 高移島·黃茅島·丘草島·雁島 등 4개의 섬 명칭만이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141개의 섬 명칭이 등장한다(홍영의 앞 논문, 2017).

가. 사서류(7)

(1) 섬 명칭

대분류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史綱目
합계	66	12	1,085	574	11,578	61,742	436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史綱目
합계	138	28	1,614	733	22,597	121,904	721

나. 지리지류(5)

(1) 섬 명칭

대분류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誌
합계	38	105	587	732	1,559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誌
합계	453	375	2,675	6,628	4,742

다. 읍지류(13)

(1) 섬 명칭

대분류	京畿道誌	全羅道誌	慶尙道誌	忠清道誌	江原道誌	黃海道誌	咸境道誌	平安道誌	江都志	濟州邑誌	耽羅志	中京誌	宣川邑誌
합계	169	436	132	75	40	65	29	206	113	78	76	16	4

(2) 역사 및 자연

합계	1,244	1,637	1,321	880	524	784	569	753	769	1,842	796	267	13
----	-------	-------	-------	-----	-----	-----	-----	-----	-----	-------	-----	-----	----

라. 잡사(8)

(1) 섬 명칭

대분류	高麗墓誌銘集成	萬機要覽	入唐求法巡禮行記	東萊府啓錄	茲山魚譜	智島郡叢瑣錄	漂海錄	戶口總數
합계	17	147	16	497	17	757	78	147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高麗墓誌銘集成	萬機要覽	入唐求法巡禮行記	東萊府啓錄	茲山魚譜	智島郡叢瑣錄	漂海錄	戶口總數
합계	64	774	3	4,884	752	385	47	326



마. 문집(223)

(1) 섬 명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집
합계			1,926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문집
합계			2,110

바. 외사(19, 기타 2 포함)

(1) 섬 명칭

대분류	三國志	元史	北史	南史	南齊書	宋史	後漢書	新元史	新唐書	明史	晉書	舊唐書	金史	隋書	魏書	梁書	清史稿	太平廣記	高麗圖經
합계	4	32	4	1	1	11	2	34	4	26	1	3	2	3	1	1	28	68	125

(2) 역사 및 자연

대분류	三國志	元史	北史	南史	南齊書	宋史	後漢書	新元史	新唐書	明史	晉書	舊唐書	金史	隋書	魏書	梁書	清史稿	太平廣記	高麗圖經
합계		17	6	0	0	5	1	41	4	17	0	0	2	5	2	0	3	786	81

2) 문헌자료에서의 해수산물과 어종

어류를 포함한 해수산물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 문헌인 『자산어보(茲山魚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서 어류를 비롯한 수산물의 명칭을 색인어로 1,083건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해수산물의 수치는 어류 9,362건, 패류 399건, 연체류 223건, 갑각류 306건, 해조류 1,142건, 기타 2,641건으로, 총 14,073건을 추출하였다. 이를 문헌별로 보면, 해수산물은 사서류 9,185건, 지리지류 2,240건, 읍지류 1,083건, 잡사 910건, 문집 167건, 외사류 488건이다. 어종별로는 사서류 6,018건, 지리지류 1,732건, 읍지류 759건, 잡사 492건, 문집 68건, 외사류 293건으로 총 9,362건이다. 이를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수산물

가. 사서류(7)

대분류	중분류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史綱目
	어류	8	9	15	1	1,160	4,816	9
	패류	0	0	9	2	41	38	1
	연체류	1	1	1	0	34	88	0
	갑각류	0	0	0	0	46	31	0
	해조류	0	0	2	1	132	488	0
	기타	6	1	67	11	1,158	990	18
합계	9,185	15	11	94	15	2,571	6,451	28

나. 지리지류(5)

대분류	중분류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誌
	어류	23	58	332	842	477
	패류	19	0	25	51	8
	연체류	0	0	0	1	1
	갑각류	1	0	36	60	6
	해조류	18	0	42	95	46
	기타	15	1	27	28	28
합계	2,240	76	59	462	1,077	566

다. 읍지류(13)

대분류	중분류	京畿道邑誌	全羅道邑誌	慶尙道邑誌	忠清道邑誌	江原道邑誌	黃海道邑誌	咸鏡道邑誌	平安道邑誌	江都志	濟州邑誌	耽羅志	中京誌	宣川邑誌
	어류	25	68	79	66	139	47	170	104	28	20	1	8	4
	패류	3	9	5	0	14	5	10	3	0	2	0	0	0
	연체류	1	3	1	0	0	1	1	0	0	0	0	1	0
	갑각류	8	15	1	7	1	8	0	10	1	0	0	0	0
	해조류	1	60	21	4	15	7	7	14	0	14	3	0	0
	기타	0	8	4	9	7	17	5	10	2	2	0	4	4

합계	1,083	38	163	111	86	176	85	193	141	31	38	4	13	4
----	-------	----	-----	-----	----	-----	----	-----	-----	----	----	---	----	---

라. 잡사(8)

대분류	중분류	高麗墓誌銘集成	萬機要覽	入唐求法巡禮行記	東萊府啓錄	茲山魚譜	智島郡叢瑣錄	漂海錄	戶口總數
	어류	6	50	0	12	410	14	0	0
	패류	0	3	0	0	119	0	0	0
	연체류	0	1	0	0	19	1	0	0
	갑각류	0	0	0	0	59	0	0	0
	해조류	0	71	0	0	72	0	0	0
	기타	1	33	0	0	33	5	0	1
합계	910	7	158	0	12	712	20	0	1

마. 문집(223)

대분류	중분류	문집
	어류	68
	패류	4
	연체류	6
	갑각류	0
	해조류	11
	기타	78
합계		167

바. 외사(19, 기타 2 포함)

대분류	중분류	三國志	元史	北史	南史	南齊書	宋史	後漢書	新元史	新唐書	明史	晉書	舊唐書	金史	隋書	魏書	梁書	清史稿	太平廣記	高麗圖經
	어류	0	0	0	0	0	0	0	0	2	3	0	0	1	0	0	0	0	285	2
	패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8	0
	연체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1	0
	갑각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0
	해조류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7	0
	기타	1	0	1	0	0	0	1	2	1	0	0	0	0	1	0	0	0	62	3
합계	488	1	0	1	0	0	0	1	2	3	4	0	0	1	1	0	0	0	469	5

(나) 어종별 통계

가. 사서류(7)

명칭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史綱目
합계	8	9	15	1	1,160	4,816	9

나. 지리지류(5)

명칭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誌
합계	23	58	332	842	477

다. 읍지류(13)

명칭	京畿道邑誌	全羅道邑誌	慶尙道邑誌	忠清道邑誌	江原道邑誌	黃海道邑誌	咸鏡道邑誌	平安道邑誌	江都志	濟州邑誌	耽羅志	中京誌	宣川邑誌
합계	25	68	79	66	139	47	170	104	28	20	1	8	4

라. 잡사(5)

명칭	高麗墓誌銘集成	萬機要覽	東萊府啓錄	茲山魚譜	智島郡叢瑣錄
합계	6	50	12	410	14

마. 문집(223)

명칭	문집
합계	68

바. 외사(5)

명칭	新唐書	明史	金史	太平廣記	高麗圖經
합계	2	3	1	285	2

3) 문헌자료에서의 유배인

도서(섬)의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배문화의 특성이다. 섬은 절해고도(絶海孤島)라는 여건으로 최적의 유배지였다. 이러한 유배인의 삶을 추적하기 위해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고대 6명, 고

려 413명, 조선 1490명 등, 총 1,909명의 섬 유배자 명단을 추적하여 DB 구축 자료로 삼았다.

그 결과 23,623건의 유배자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거제도(巨濟島) 483명, 제주도(濟州島) 201명, 남해(南海) 169명, 흑산도(黑山島) 136명, 진도(珍島) 130명, 고금도(古今島) 59명, 금감도(金甲島) 49명, 추자도(楸子島) 47명, 신지도(薪智島) 40명, 강화도(江華島) 39명, 백령도(白翎島) 33명, 지도(智島) 31명, 고군산도(古群山島) 27명, 임자도(荏子島) 24명, 녹도(鹿島) 17명, 교동도(喬桐島) 13명, 대청도(大靑島) 11명 등의 순으로, 거제도, 제주도, 남해, 흑산도, 진도가 가장 많은 유배지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자료별 섬 유배인 관련 수치

유배인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東史綱目	합계
합계	2	0	493	217	1,354	21,385	172	23,623

#### 4. 맺음말

도서(섬) 연구는 역사학보다 인문지리학 또는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자료를 통합적으로 확보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자가 확보한 문헌 자료에 주로 의지해 왔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가 확보한 문헌 자료만으로는 더 이상 연구 성과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섬 연구의 활로를 역사학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 생태환경학과의 학제 간 교류와 융합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섬 관련 연구 단체가 조직되면서 역사학과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특히 해양레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의 활용은 국가 차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섬 관련 연구 성과도 많이 축적되고 있으며, 전문 전공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제 섬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섬과 관련된 자료들이 방대하여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역사 속의 섬 지명 및 관련 자료들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분류·체계화하여 DB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섬 관련 역사 자료의 재배열 및 시대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부 주제어(소분류) 정리를 통한 섬 지역의 자연지

리(생태환경)·경제·문화, 영상자료(고지도·회화) 등의 자료들이 추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물이 섬 관련 자료 DB로 정리되어 Web-Service가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될 것이다. Web-Service를 통해 섬 관련 연구자와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사업의 최종 목표이다.

또한 이렇게 집적된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학문 각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사학과 지리학 연구자들 간의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보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탐색을 통한 연구방법론의 확장 및 역사학과 지리학 간의 학제적 교류를 유도하여 새로운 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러한 풍토를 조성하려면 집적된 자료를 시대별로 배열하여 번역, 역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섬 개념사전’이 편찬될 때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4

#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

전경호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영토의 시작지점, 서해 영해기점 도서<sup>1)</sup>

전경호(국립해양박물관)

목 차
I. 서론
1. 조사개요와 조사방법
2.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II. 서해 영해기점 도서 개관
1. 서해바다
2. 서해 영해기점 도서
III.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 I. 서론

### 1. 조사개요와 조사방법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영토 측면에서 중요한 영해기점 도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조사로 2017년에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서해 영해기점으로는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직도(소피도), 상왕등도, 횡도, 고서, 흥도, 소국홀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총 10개소가 있다.

서해 영해기점 조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총 7차에 걸쳐 진행<sup>2)</sup>되었으며 이때 영해기점과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지역의 역사, 과거의 경험, 어업 형태, 의·식·주 등 생활문화를 비롯하여 연구 대상지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영해기점에 대한 인식 등을 구조화된 질문지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인터뷰 대상자는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적 풍부하게 알고 있는 제보자 및 지역의 대표자(이장, 어촌계장) 등이었다.

1) 이 글은 2017년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발행한 해양조사보고서 1 『서해 영해기점 도서』를 요약 발췌한 글이다.

2) 연구 대상지의 특성상 영해기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이용하게 짧게는 1시간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 그리고 여객선이 매일 운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신 2~3일간 마을에 체류하면서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주요 제보자 인적사항(2017년 현재)

조사지	거주지역	나이	제보자	비고
격렬비열도	태안군 근흥면	68	오△길	안흥 어촌계장
	태안군 근흥면	68	김△진	신진도 1리 이장
	태안군 근흥면	66	김△관	신진도 1리 당제(2017) 집사
	태안군 근흥면	64	이△표	신진도 1리 당제(2017) 당주
	태안군 근흥면	50대	이△호	한울해양개발주식회사 기술부장
	태안군 근흥면	78	주△성	가의도 어촌계장
상왕등도	태안군 소원면	70대	김△자	모항 해녀협회 회장
	부안군 상왕등도	71	노△업	상왕등도 거주
	부안군 상왕등도	60	유△근	상왕등도 발전소 근무
어청도	부안군 상왕등도	62	서△식	상왕등도 이장
	군산시 어청도	78	정△남	마을 슈퍼마켓 운영 / 부부 인터뷰
	군산시 어청도	57	이△원	마을 슈퍼마켓 운영
가거도, 소국홀도	군산시 어청도	69	이△권	어청도 어촌계장
	신안군 가거도	65	고△호	가거도 3구 마을 이장
	신안군 가거도	80	고△삼	가거도 1구 거주
홍도, 고서	신안군 가거도	60	정△규	가거도 1구 민박집 운영(전 어촌계장)
	신안군 홍도	74	오△자	홍도 거주(전 해녀)
횡도	신안군 홍도	80	이△석	홍도 거주
	영광군 안마도	55	이△규	안마도 어촌계장
	영광군 안마도	73	김△현	안마도 노인회장, 1989년까지 횡도 거주
	영광군 안마도	71	서△복	前 안마도 발전소장
	영광군 안마도	70대	강△자	가게 및 민박집 운영
	영광군 횡도	55세	박△옥	횡도 이장, 안마도와 횡도에서 거주

문헌조사는 현지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부터 시작한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해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미비하다. 기록된 자료 또한 조선 말기에 이르러 등장하는데 대부분 간략한 위치와 인구 수 등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부족한 문헌자료는 일제가 기록한 자료 및 근현대 신문 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그리고 제보자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부족한 문헌 기록의 내용을 보충하였다.<sup>3)</sup>

## 2. 대한민국 영해와 영해기점

영토와 달리 영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바다의 조수간만으로 인하여 영해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UN해양법협약」에서는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선의 저조선(低潮線), 즉 해수면이 하루 중 가장 낮아졌을 때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떨어진

3) 이 글에서는 서해 영해기점 도서 10개소의 위치 및 주요 특징 등 개괄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박물관, 2017. 『서해 영해기점 도서』를 참조할 것.

지점까지를 영해의 범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상기선(normal baseline)’ 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안선이 굴곡져 있거나 연안과 떨어져 많은 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안 저조선을 따라 영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UN해양법협약」 제7조에서는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에 의한 영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깊게 굴곡지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점인 영해기점을 정한 뒤 이를 연결한 직선기선을 사용하여 영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UN해양법협약」 제7조에 따라 설정된 우리나라 영해기점은 총 23곳으로 서해 영해기점 도서는 총 10여 개소이다.

## II. 서해 영해기점 도서 개관

### 1. 서해바다

한반도 서해<sup>4)</sup>는 압록강 입구에서 전라남도의 해남갑에 이르기까지 직선거리 650km로 해안선의 길이는 육지부 4,719km, 도서지방 3,700km에 이른다. 낮은 수심과 큰 조차(潮差)의 영향으로 간석지 발달이 현저하여 만조시에는 침수되고 간조시에는 넓은 조간대(潮間帶)가 형성된다. 만입(灣入)을 중심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만조시에는 침수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서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고려사』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여러 보물과 염분(鹽盆), 어량(魚梁)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 자료인 『여지도서』 영광현에는 “매년 봄 온 나라의 상선이 사방에서 영광의 파시전(波市田)으로 모여들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판매하는데 서울의 저잣거리 마냥 떠드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중국 연해에 서식하던 청어가 서해로 이동하면서 서해는 대표적인 청어 어장이 되었다. 이처럼 서해에서는 조기와 청어를 비롯한 각종 어류 및 새우와 게류를 어획할 수 있었다. 현재 서해에서는 조기, 갈치, 민어, 도미, 고등어, 새우 등이 어획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어종들이 서해에서 산란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서해는 해양 생물의 번식장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넓은 대륙붕의 영향으로 서해는 패류, 특히 참조개, 백합, 홍합, 전복, 키조개, 피조개, 바지락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4) 서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황해’를 참조하였다.



<그림 1> 서해 영해기점 도서

## 2. 서해 영해기점 도서

### 1) 소령도

소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인천항에서 94.8km, 백아도에서 20.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섬 전체가 화강암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상부 일대의 초지를 제외하면 식생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 섬은 5,752㎡의 소규모 도서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인도이다. 그래서 소령도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외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인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지역이다.

## 2) 서격렬비도

서격렬비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에 속한 섬으로 동격렬비도, 북격렬비도와 함께 격렬비도(格列飛島)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새 무리가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격렬비도는 총 128,903㎡의 면적으로 태안군 소속 도서 중 서측 최외곽에 위치하여 영해기점에 해당된다. 동격렬비도의 면적은 277,688㎡로 세 섬 가운데 가장 넓다. 북격렬비도는 93,601㎡의 면적으로 등대와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등대는 1909년 일제의 의해 설치되었는데, 초기에는 유인등대로 운영되다가 등대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4년부터 무인등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한 중국인이 사유지이면서 영해기점인 서격렬비도를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중국인의 매입 제안은 제안으로만 끝났지만 격렬비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부터 북격렬비도 등대는 다시 유인등대로 전환되었다.

## 3) 어청도

어청도는 군산항에서 72km 떨어진 지역으로 여객선을 타고 약 2시간 3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중국 산둥반도와는 300km 떨어져 있어 전라북도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다. 섬 전체 면적은 1.8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10.8km이다. 섬은 ㄷ자 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계절풍에 의한 침식으로 북서쪽에는 높은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취락은 여객선이 드나드는 선착장 주변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196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근해에서 멸치, 우럭, 노래미, 해삼, 전복 등을 주로 잡는다.

어청도 근해는 한반도 가장 서쪽에 있는 어장으로 수심이 깊고 물이 맑으며 흑서, 흑한을 막론하고 어류의 회유가 끊이지 않아 일 년 내내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김수희, 2004: 21). 그래서 19세기 이후부터 어청도는 주요 어획지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 식민지 어업수탈의 대상이었다. 1903년에는 일본인 이주 어가(漁家)가 건설되었으며 이후 일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기관이 필요하여 우편국이 설치되었다. 또한 1912년 어청도 등대 건립, 1933년 라디오 설치, 1935년 상수도시설 설치 운동 실시, 1936년 어청도 어항 완성 및 군산-어청도간 무선전신 개통 등이 이루어졌다.

어청도 근해에서는 포경장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며(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DB, 1910년 12월 25일 기사), 해방 이후 한국 포경업의 전초기지로도 이용되었다. 인근에서는 주로 밍크 고래가 어획됐는데 이에 따라 포경선들이 1년에 6개월 정도는 어청도에 정박하여 고래잡이를 하였다. 어청도 부근 바다에서 잡은 고래는 어청도에서 해체했으며, 해체한 고래는 운반선에 실은 뒤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이러한 고래잡이와 고래 해체 및 운반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포경업이 금지되면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어청도에서는 1970년대까지 우럭, 노래미, 광어, 조기, 홍어 등이 많이 잡혔다. 당시 이곳에서 파시가 열리기도 할 정도로 어업이 호황을 누렸으며 이때 어청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200호에 1,000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풍어의 영광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어구와 어법 등 어업기술 발전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어청도 주변에서는 외줄낚시, 연승, 자망 등의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다. 외줄낚시로는 광어, 우럭, 노래미, 농어 등을, 연승으로는 우럭, 광어 등을 어획한다. 자망을 이용해서는 꽃게, 홍어 등을 잡는다. 어청도의 어촌계원은 2017년 현재 120명이고 어선은 43척이 있다.

어구와 어법의 발전, 바다 황폐화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게 되자 어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 건너 육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육지로의 이동은 공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이촌향도의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 엔진의 발전, 선박의 대형화, 일기예보의 정확성 증대 등으로 인해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어청도에 피항을 하거나 정박을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식당, 선구점, 선술집 등의 자영업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편의시설의 소멸이 어청도 사람들의 육지이주를 증가시켰다.

#### 4) 직도(소피도)

직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속한 무인도로 군산항에서 4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직도가 직선기점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소피도이다. 소피도는 직도 옆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서로 면적은 14,650㎡이다. 직도와 소피도는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군의 포격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섬의 형태가 많이 변형되었다.

#### 5) 상왕등도

상왕등도는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 속한 섬으로 격포에서 서쪽으로 32km,

위도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이다. 상왕등도까지는 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위도를 경유하여 약 2시간 후에 도착할 수 있다. 섬 면적은 0.57km<sup>2</sup>이고, 해안선 길이는 4km에 이른다. 상왕등도는 2km 가량의 바닷길을 끼고 하왕등도와 마주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상왕등도를 웃왕등 혹은 상도, 하왕등도를 하랫왕등 혹은 하도라고 부르고 있다. 상왕등도와 하왕등도를 합쳐 왕등도라 통칭하기도 한다.

상왕등도 정상은 해발 240m이고 섬 정상부까지 모두 비탈길로 이루어져 있어 선착장을 제외하면 평지가 거의 없는 곳이다. 취락은 선착장 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다른 서해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럭, 광어, 농어, 민어, 꽃게, 멸치 등이다. 2017년 현재 31세대, 48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어업 성수기에만 섬에 거주하고 이외의 기간에는 육지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약 350명의 사람들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왕등도에 거주하였다. 당시 왕등도는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칠산 어장권에 속해 있어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상도를 비롯한 전국의 배들이 조기 어장이 위치해 있는 왕등도 주변으로 몰려들어 “물 반 고기 반”인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했다.

## 6) 횡도

횡도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에 위치한 유인도서로 북동쪽으로 안마도, 남동쪽으로 오도가 위치해 있으며, 석만도 등과 함께 안마군도에 속한 섬이다. 영광군 법성포에서부터 약 36km 떨어져 있으며 유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횡도까지 가는 여객선은 없다. 대신 영광 계마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안마도에 도착한 뒤, 배를 대여하여 횡도에 갈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횡도에는 1세대, 1명이 거주하고 있다.

횡도는 안마도와 함께 외해에 위치해 있으며 조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더 많았다. 현재도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더 많은데<sup>5)</sup> 이는 안마도와 횡도 등 주변 도서는 법성포와 달리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마을 사람들이 어선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선을 마련하여 어업활동을 하더라도

5) 영광군 낙월면 안마 출장소 자료(2017년 현재)에 따르면 안마군도 총 110가구 가운데 농가는 25가구이고 어가는 18가구, 기타 67가구이다. 안마도 인구는 현재 총 191명이고 이 가운데 47명이 어촌계원이다.

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판로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급 자족이 가능한 농업에 주로 종사하였다. 1970년대 안마도에는 약 2,000여 명, 횡도에는 40여 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섬의 구릉지까지도 모두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 7) 고서

고서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에 위치한 섬으로 전체 면적은 약 43,287㎡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아서 고서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 8) 홍도

홍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목포에서 115km, 흑산도에서 22km 떨어진 유인도이다. 섬 면적은 6.87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20.8km이다. 홍도는 붉은 동백꽃이 섬을 뒤덮고 있어서 노을에 비친 섬이 붉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하여 홍의도(紅衣島)라고 불리다가, 사암과 규암으로 이루어진 섬의 바위가 홍갈색을 띠고 있어서 홍도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홍도와 주변 해양에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1965년 홍도 본섬과 고서를 비롯한 20여 개의 부속 도서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었다.

홍도가 역사기록에 등장한 것은 중국, 일본인들에 의해서였다.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공(徐兢, 1091~1153)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홍도와 흑산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특히 서공의 『고려도경』에는 “동북쪽으로 한 산이 보였다. 무척 큰 것이 성같이 잇닿아 늘어서 있는데, 햇별이 쬐는 곳은 옥과 같이 희다” 라고 홍도를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홍도와 주변 도서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바닷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특히 홍도는 서남해안의 주요 기항지로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 홍도를 대풍도(待風島)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홍도의 행정마을로는 1구와 2구가 있으나, 자연마을로는 대촌과 대밭 밑, 석기미 등 3개의 마을이 있으며 2017년 10월 현재 268세대, 589명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 홍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였다. 홍도 주변에서는 주로 홍어와 조기를 주낙과 유자망을 통해서 잡았다. 1960~70년대까지 조기가 많이 잡힐 때 목포 인근에서 조기잡이 배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홍도였다고 한다. 또한 홍도는 김, 미역, 다시마, 툇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 소라 등 어패류도 풍부한 곳이



다. 그러다가 1965년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광객들이 홍도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주요 산업은 어업에서 서비스업 및 관광업으로 변화하였다.

홍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요로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수탈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일제의 홍도 침입으로 홍도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닷길의 변화이다. 현재와 같이 홍도-목포를 연결하는 바닷길은 목포가 개발된 이후 주로 이용하는 항로였다. 이전시기까지는 홍도-영암을 연결하는 바닷길이 주로 이용되었다.

홍도는 한반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업에서도 중요 항로 표지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재와 같이 항법장치가 없을 때 어선들은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즉 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에는 홍도를 기점으로 하여 어장으로 이동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홍도를 거쳐 육안으로 흑산도를 파악한 뒤 이동하였다.

#### 9) 소국홀도

소국홀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속한 섬으로 면적은 4,760㎡이다. 국홀도라는 지명은 바다 새들의 ‘구굴구굴’ 하는 소리를 본받아서 구굴섬이라고 불렸으며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여 구굴도(局屹島)라고 하였다. 옆의 대구굴도와 합쳐서 국구도 혹은 갈매기 섬이라고도 부른다.

#### 10) 소흑산도(가거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는 가거도 대신 소흑산도로 명명되어 있다. 가거도가 소흑산도로 불리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다. 이는 일제가 흑산도와 가거도를 군사기지 내지는 어업수탈 기지로 활용하고자 대흑산도와 소흑산도로 구분했기 때문이다(김승, 1997: 76 ; 김준, 2012: 132). 가거도는 우리나라 갯바위 5대 지역 중 하나이자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하는 유인도서이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145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면적은 9.18km<sup>2</sup>, 해안선 길이는 22km에 이른다.

가거도는 제주도 해류와 서해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장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조기를 비롯하여 농어, 민어, 돔, 우럭, 멸치와 김, 미역, 톳, 천초 등 해조류, 전복, 소라, 홍합, 성게 등 패류가 다양하게 서식한다. 마을 사람들이 현재 주로 어획하는 물고기로는 불락과 멸치가 있다.

불락은 봄부터 여름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어획하며 건조한 뒤 판매하거나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멸치는 음력 6월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7월에 잡은 것을 젓갈로 담근 후 판매한다.

가거도는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해에서 육지로 배가 들어가거나 육지에서 외해로 향하는 배를 조망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은 일제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와 한반도, 중국을 연결하는 바닷길에서 가거도는 주요 기점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른 시기인 1907년 등대가 설치되었다.

### III. 서해 영해기점 도서의 가치와 중요성

서해 영해기점으로는 총 10개소가 있으며 모두 도서지역이다. 이 가운데 무인도는 5개소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탓에 그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유인도의 경우에도 본토와 멀리 떨어진 외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적 기록이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최외곽 도서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고고학적 자료(패총)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서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산 위로 올라가 투석전을 펼치는가 하면(홍도 사례), 외국 사신의 안전한 왕래를 위해 봉수의 불을 켜기도 했다(서궁,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2005). 또한 일제의 어업수탈을 위한 개발이었지만 이를 활용하여 한반도 어장에 맞는 어구와 어법으로의 전환과 어업의 근·현대화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영해기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육지로의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략 2시간 이상의 뱃길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섬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서를 방문하는 것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된 바다로 변화된 탓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서 사람들은 섬을 등지고 육지로 이주하여 사는가 하면 육지에 또 다른 집을 마련해 놓고 섬과 육지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해기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닭이 울면 여기서도 들린다” 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섬이 우리나라의 끝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횡도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는 “독도만 중요한 땅이 아니라 영해기점은 모두 중요한 땅이니 독도처럼 서해 영해기점을 관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영해기점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또한 서해 영해기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무대가 “우리나라 땅 넓이” (상왕등도 거주 제보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선조가 어청도, 가거도, 흥도 등 영해기점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서해바다에서 노략질을 하거나 어업수탈을 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즉 이들은 선조들이 물과 식량이 부족한 섬에서 힘들게 살면서 계속해서 마을을 지켰고 “고생을 숙명으로 알고 산 덕분에 우리 국토가 더 넓어” 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힘들어도 살고, 어려워도 살았다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들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여기서 살고 있지. 섬 사람들이 애국자여. 만약에 그분들이 가거도에 거주를 안했으면 이것이 일본 땅이 됐을랑가 중국 땅이 됐을랑가 몰라(가거도 거주 제보자)*

지금은 섬 마을에 사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산’ 사람들의 후손이 영해기점 도서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또한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섬뿐만 아니라 섬과 섬,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어업 장비를 가지고도 풍어를 기원하며 먼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갔으며, 가족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섬과 육지 사이를 찾아 이동하였다. 육지와 도서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펼쳐진 영해기점 도서 사람들의 활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바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이 증거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도서 인구는 점차 육지로 이주하고 있으며 도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1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발 대상 도서 317곳 가운데 24곳이 50년 후 무인도가 된다(세계일보 2017.4.27. 신문기사). 특히 이 가운데에는 단 한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 횡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5년부터 북극렬비도에 등대원이 다시 상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서의 무인화 정책에 따라 영토주권 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다른 섬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삶이 영해기점 도서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곳에서 어떤 삶의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과 일본 어선들의 침입과 불법 조업 문제,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둘러싼 매입의 소문과 국유지 전환을 위한 어려움 등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시작 지점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갈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립해양박물관. 2017. 『서해 영해기점 도서』.  
김준. 2012. 『섬문화 답사기 신안편』. 서책.  
변주승 옮김. 2009. 『여지도서』 45~46. 디자인흐름.

### 학술지 게재논문

- 김승. 1997. 「可居島의 마을管理와 共同漁場 利用形態의 變遷科程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학회.  
김수희. 2004.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 20. 한국  
수산경영기술연구원.

### 일간지 등

- 한승하. 2017. “사라지는 섬마을...무인도화 가속”, 『세계일보』 (4월 27일)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권” 『每日申報』 (12월 25일)

### 인터넷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황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황해&ridx=3&tot=7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황해.”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황해>

### 번역서

- 서궁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2005. 『고려도경』. 도서출판 서해문집.  
엔닌 저. 『입당구법순례행기』.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발표 5

# 섬 주민의 생활사 연구현황과 연구 방향

김경옥

목포대학교





# 섬 주민의 생활사 연구현황과 연구방향

김경옥(목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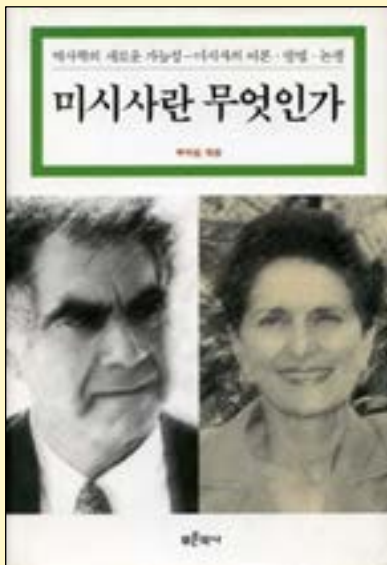
## Contents

1. 생활사, 새로운 역사서술 .....
2. 생활사 주제와 분류 .....
3. 분야별 연구 현황 .....
4. 전망과 과제 .....

# 1. 생활사, 새로운 역사서술

- 한국사학계의 화두: 일상사 · 생활사 · 미시사 · 신문화사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996)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1996)
  - 한국생활사박물관, 『한국생활사박물관』 (2000~2004)
- 서구학계의 동향
  - 생활사(프랑스 아날학파), 일상생활사(독일), 미시사(이탈리아), 신문화사(미국)
  - 아래로부터의 역사서술을 지향
- 생활사란?
  - 역사가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다양한 삶과 그들이 만든 사회의 제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역사 = 시대사)
  - 생활사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하는 역사연구의 한 분야(생활사 = 분야사)

# 1. 생활사, 새로운 역사서술



곽차섬, 푸른역사, 2000



알프 튀르케 외, 청년사, 2002



한국구술사연구회, 전인, 2005

## 2. 생활사 주제와 분류

### • 생활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현황

- 생활사의 개념과 범주의 미 확립
- 인접 분야와의 관계 규정 미흡
- 90년대 고문서 발굴에 힘입어 연구 성과 발표, 동시에 주제 개발

### • 기존 어떤 분야, 어떤 주제가 검토되었을까 ?

- 최근 연구동향을 섭렵하여 소개
- 특히 분석자료에 주목

### • 최근 발굴된 신규 자료의 활용

- 관찬자료에 나타난 섬
- 현장답사와 사찬자료에서 검출된 섬

### • 전망과 과제

5

## 연구주제와 분류

주제	관련 내용	분석자료
이주민	입도유형, 가계계승, 거주양태, 주민구성	지리지(읍지 포함), 호적대장, 호적중초, 호구단자, 軍案, 족보, 擊錘, 구슬
토지	개간, 간척, 토지소유권	토지대장, 지적도, 堤堰文記, 매매문서, 방조제대장, 염전대장, 염전개발허가증
수군진	수군진영, 군관, 군정, 성안마을	호남진영지, 지도군중쇄록, 절목, 비석
유배	유배, 유배인, 유배지, 유배생활	유배일기, 문집, 유배안, 문화자원
공동체	동계, 송계, 목계, 堰契	고문서(節目, 漁場圖)
임야	목장	목장지도, 檢案
	송전, 봉산	林野順番簿
기타	어촌, 어민, 어장, 어업, 船舶, 賦稅, 海路, 교통, 생활권	

6

### 3. 분야별 연구 현황

#### 1) 도서 이주민

- 入島祖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

- 거주민의 직계 선조
- 해당 섬 역사 이해의 상한에 직결된 인물

- 입도조 관련 자료의 한계

- 『읍지』에 등재된 인물, 유적, 묘역, 구술 등
- 해당 섬이나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 분석자료 : 『족보』

- 입도조부터 제보자에 이르는 系譜 파악(10~15대)
- 墓域의 입지를 추적하여 후손들의 거주지[分派] 파악

- 입도사례 : 섬주민들은 경제생활, 토지(개간·간척), 전란, 지방관, 유배 등으로 인해 섬으로 이주



#### ❖ 최근 신규 자료 발굴과 활용 : 戶籍, 軍案, 任命狀, 賣買文書

- 戶籍臺帳과 戶口單子

- 경기도 영종진 호적대장(1867)  
: 주민구성, 反番, 閑良 급증(35.6%)
- 경상도 향리 호적중조(1863~1893)  
: 幼學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
- 전라도 청산도진 병자호적대장(1876)  
: 부속도서 인구·성씨·마을·신분·직역

- 防軍案·軍丁成冊

- 경상도 향리 방군안(1863)
- 전라도 순천부 군정성책(1831)

- 擊錘

- 흑산도 주민 김이수와 정조의 만남
- 영의정 채제공의 해법 : “損上益下”



• 古文書 수집

- 백령도 김해김씨 사례(고문서 60건)
- 덕적도 김해김씨 사례(고문서 56건)

• 관찬자료(준거) : 광해군 때 공도정책 수정, 수군진 설치, 주민 이주 권장, 간척 허용, 3년 면세, 10년 부역 면제(광해군일기 1609년 1월 24일)

• 고문서 분석 결과

- 백령도 김해김씨 일가의 130년 간 섬 생활을 복원(입도시기, 입도배경, 이주와 정착, 신분 변동, 통혼, 부역과 부세 등)
- 덕적도 수군진 설치로 섬주민 증가, 鎭里 김해김씨(100년 이상 거주), 신분 직역 변화(평민→중인, 軍官과 鄕任), 가족사항(16세 미만 남자, 영유아, 여성 호적 등재)



• 흑산도 주민 김이수(1756~1805)의 『절목』

- 『全南黑山紅衣苔島可居牛耳四島疊稅革罷節目』
- 세금 부과
  - ①영조 43년(1767) 기와 운반 부역
  - ②영조 48년(1772) 고등어 세금
  - ③정조 6년(1782) 이증과세
  - ④정조 7년(1783) 보리와 콩에 대한 이증과세
  - ⑤정조 13년(1789) 청어세
  - ⑥정조 15년(1791) 중이세
- 정조 15년(1791) 김이수가 한양에서 격쟁(擊錘)



## 2) 토지 : 개간, 간척, 토지소유권, 토지 이용

### • 관찬자료에서 검출된 도서지역의 간척지

- 15~16세기 低平·低濕地 개간, 중앙의 권력층에 의해 언전 확대(ex, 이태진)
- 17~19세기 전라도 토지 간척(ex, 김경옥)

연대	군현(섬)	개간주체	개간방법	토지규모
숙종 3년(1677)	靈岩郡 昆一面 牛嶼	於義宮	新築堰	堰畓 17결 55부 3속
숙종 27년(1701)	靈岩郡 松旨面 獐島	劉淑儀房	築筒	田畓 33결 13부 8속 內 堰畓 23결 54부 6속 加畓 5결 46부 8속 量無主 4결 12부 4속 內 仍陳 76부 2속 起畓 3결 36부 2속
고종 7년(1880)	羅州牧 飛禽島	明禮宮	堤防	結總 377결 19부 2속

11

## 섬에서 토지를 만드는 방법, 開墾

- 15세기 섬에서 토지는 **제방**을 쌓아서 만든 간척지
- 16세기 섬에 설치되어 있던 **목장**을 개간하여 농경지 확보

“조선 중종 5년 정광필의 보고에, 전라도 섬에 설치된 목장은 수로가 멀어서 왕래하기 어렵고, 또 왜적이 몰래 나타나므로 목장을 말을 점고할 때가 되면 마음대로 출입하지도 못하니, 수초가 풍부한 **육지 목장으로 옮겨서 방목하도록 하십시오.**”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7월 5일 기미)

“임자도 목장은 토지가 기름져서 1,000여 석의 씨를 부릴만한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을 다른 목장으로 옮기고 백성으로 하여금 섬에 들어가서 경작하도록 허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숙종실록 권9 숙종 6년 2월 3일 계해)



12

## 최근 신규 발굴자료 : 도서지역 공동체 마을문서 및 간척문기

### • 신안군 안좌도 전진언[일명 앞너리들] 간척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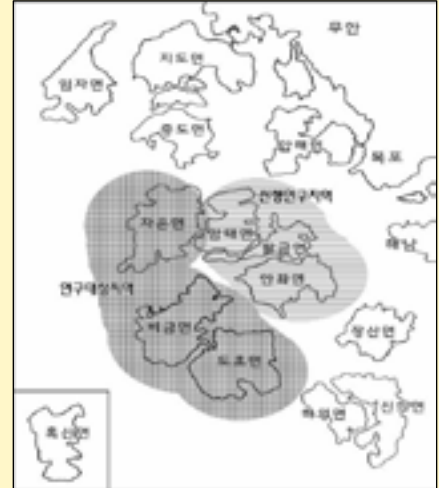
- 연계책(1889~1907) · 수계기(1913~1936)
- 무자년 수호유래 및 규칙(1948)
- 제언 관계 서류철(1967~2003)
- 제방명단(연대미상) : **뜸의 작인과 경작지**

### •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간척문기

- 광두언 문기(1933~1962) : **작인, 임원, 염부**
- 방조제대장(1960년대 추정)
- 수리시설 관리대장(근현대)
- 염 제조 허가대장(1950~1970년대)

### • 신안군 비금도 · 가산도 간척문기

- 지적원도(1916), 토지대장(1916)
- 방조제 대장(근 · 현대)



13

## 신안군 안좌도 읍동 전진언 간척문서



14







##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19

## 신안군 암태도 익금리 김해김씨 입도유래

증시조(51세) 金牧卿 : 고려 충혜왕 때 인물, 金寧君

56세 金震孫 : 조선 태종 丁亥生(1407), 墓 장단군

63세 ① 金漢澄 : 조선 광해군 壬子生(1612), 配 인천이씨, 墓 해남

→ **해남 입향조**

“仁祖丙子 淸兵犯關 公負幼二男 自龍仁避寓海南 而越三年戊寅卒 二男流入海島”

64세 ② 金奉善(1634년생) : 號 柿谷公, 配 밀양박씨, 墓 岩泰島

→ **암태도 입도조**

65세 ② 金信玉(1658년생) : 號 南谷公, 配 金성정씨, 묘 해남(송지)

66세 ① 金廷理(1704년생) : 配 완산이씨, 墓 암태도

67세 ① 金大貴(1727년생) : 配 인동장씨, 墓 암태도

68세 ② 金麗樞(1754년생) : 配 밀양박씨. 墓 암태도

69세 ① 金恒植(1773년생) : 配 경주최씨, 墓 암태도

70세 ① 金顯瑞((1797년생) : 配 전주이씨, 墓 암태도

71세 ① 金世培(1830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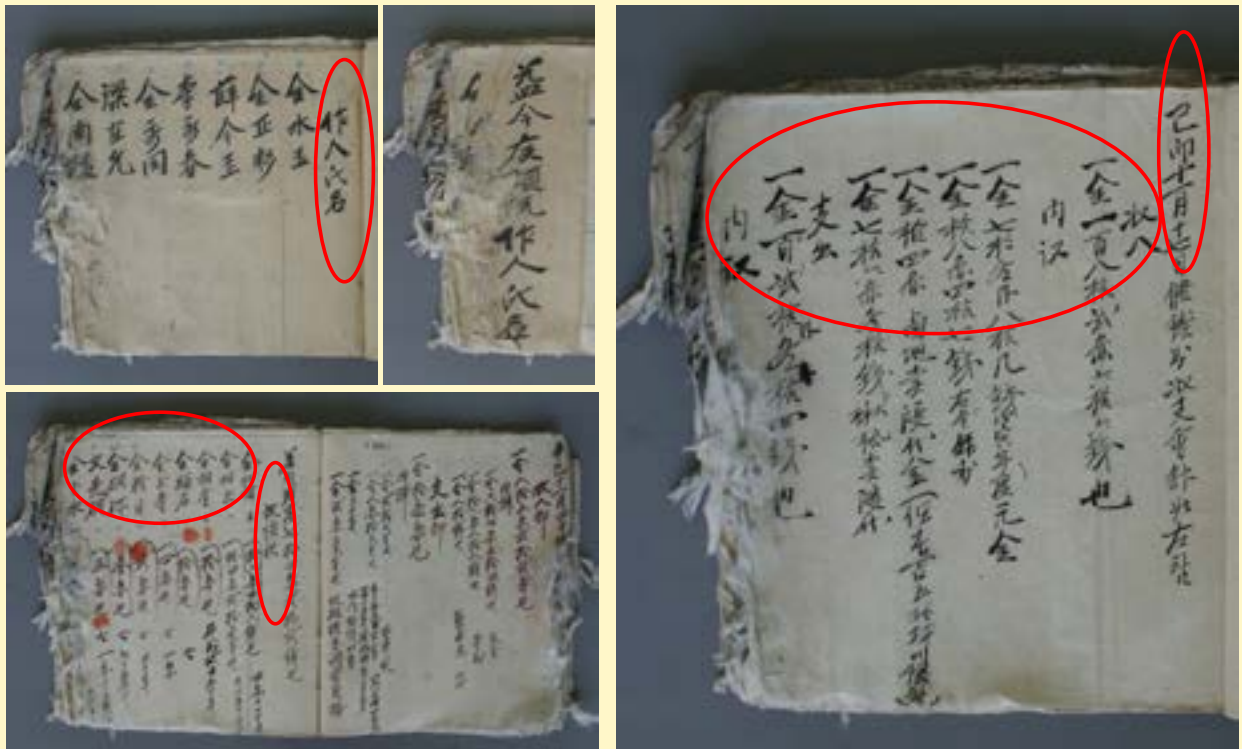
72세 ① 金鍾一(1863년생)

73세 ④ 金先泰(1801년생)

74세 ③ 金榮珍(1940년생) : 제보자

20

##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작인, 세입과 세출



21

## 암태도 익금리 광두언 작인들의 시기별 추이

年代 \ 作人	金	洪	尹	高	薛	文	朴	孫	李	崔	姜	梁	宋	徐	총인원
癸酉年 (1933)	16 (2)	1	1	1	2	1 (1)	(1)	(1)	(1)						22 (6)
己卯年 (1939)	43 (4)	1	1	2 (1)	2	3	(1)	(1)	2	3		1			58 (7)
庚寅年 (1950)	47	1		3	3	4	1	1	3	3	1				67
丙申年 (1956)	55	1	1	2	4	5	3	1	5	5		1	1	1	85
총인원	161 (6)	4	3	8 (1)	11	13 (1)	4 (2)	2 (2)	10 (1)	11	1	2	1	1	232 (13)

- 1933년 作인의 구성 : 김씨 다수 점유
- 1939년 작인의 수 2배로 증가  
-염전부지 매도, 화염 1가마=쌀 2가마 물물교환

22

## 근·현대 암태도의 지주들

### • 암태도 地主

- 김해김씨 : 백석꾼
- 영양천씨 : 천석꾼
- 남평문씨 : 만석꾼

### • 암태도 간척지 분포

- 섬의 북쪽에 입지한 <익금리>
- 면사무소 인근  
<도청리, 단고리, 장고리, 와촌리>
- 부속도서 <추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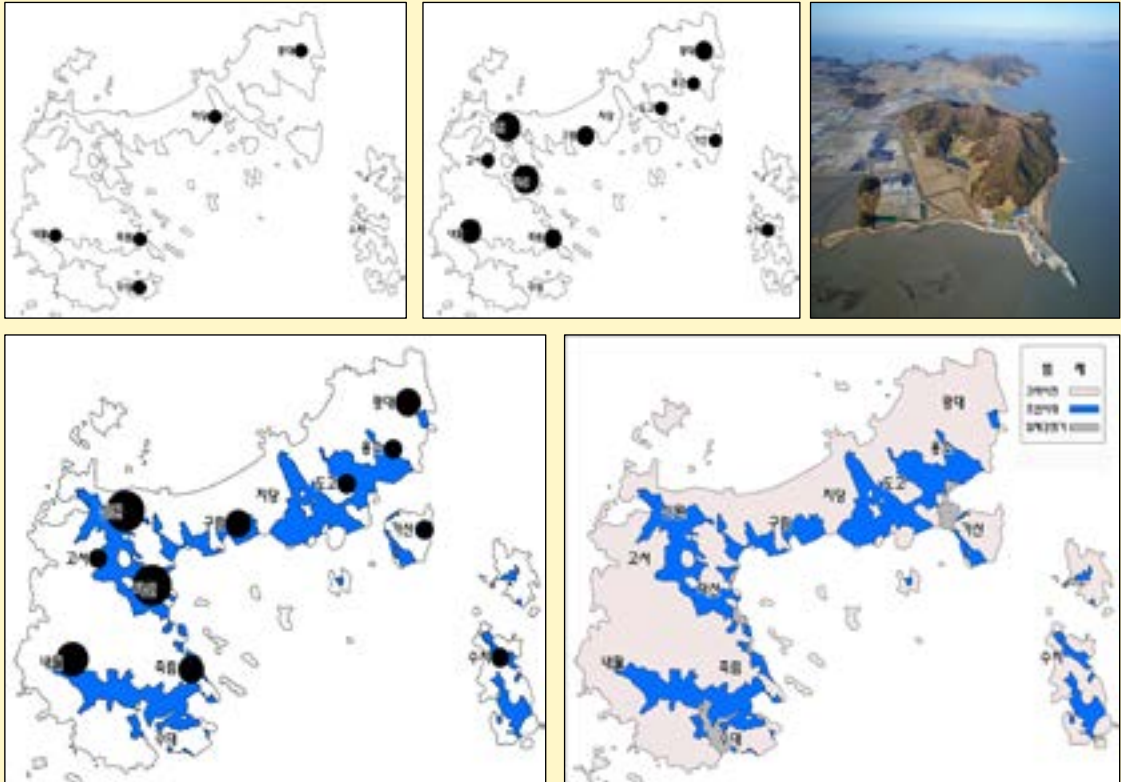
23

## 비금도 가산리 간척지 : 1호염전(혹은 시조염전) / 죽림리 - 수대리 간척지



24

## 조선-일제 비금도 사람들의 정주공간 변화



25

## 『佳山里地籍圖』(1916)

地目	田	畓	埕地	池沼	林野	雜種地	草	合計
地積	263	156	56	12	7	22	6	522
占有率	(51%)	(30%)	(11%)	(3%)	(2%)	(5%)	(2%)	(100%)

## 『佳山里土地臺帳』(20c)

區分	田	畓	池沼	溜池	鹽田	溝渠	堤防	雜種地	道路	合計
1930年代	1,467	2,747	2,064			33		56,533		62,844
1940年代	820	55		5,403	56,566					62,844
1950年代	659			33,329	103,260	6,438	1,136		87	144,909
1960年代	333	38		60,906	401,872	14,280	2,371		87	479,887
1970年代	333	38		59,230	403,070	14,280	2,371	130	743	480,195
合計	3,612	2,878	2,064	158,868	964,801	34,998	5,878	56,663	917	1,230,679

26

### 3) 水軍鎮과 鎮民의 생활

- 관찬자료를 통해 본 수군진

- 설치 : 해양방어 목적
- 편제 : 主鎮(수군절도사)-巨鎮(첨절제사)-諸鎮(만호)
- 기능 : 도서지역의 말단 행정기구

- 수군진의 주요 업무와 鎮民의 대응

- 松田과 封山 관리, 목장 관리, 선박 건조 및 중수, 漕運路 보장, 부속도서별 호구와 인구, 자연존의 세금부과(船稅, 漁場稅, 海衣稅, 藿稅 등), 섬주민의 民役과 雜物(상급관청의 소모품과 토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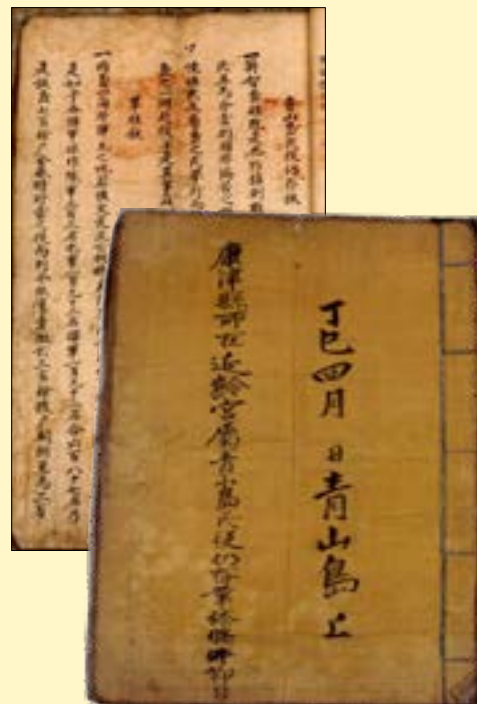
- 최근 발굴자료 활용

- 節目(1797)
- 湖南鎮營誌(1895)
- 智島郡叢瑣錄(1896)
- 永世不忘碑(1916 중수)
- 성-안과 성-밖마을(공간구조)

27

#### [사례1] 전라도 강진 청산도 民役 節目

- 민역 폐단 12조목 개혁
  - ex, 軍保, 作隊軍, 保軍 중첩 금지
  - ex, 浦稅保는 流亡 < 生存者 분담
  - ex, 戰船 건조 참여 금지
  - ex, 船材木의 운송과 벌목 중첩 금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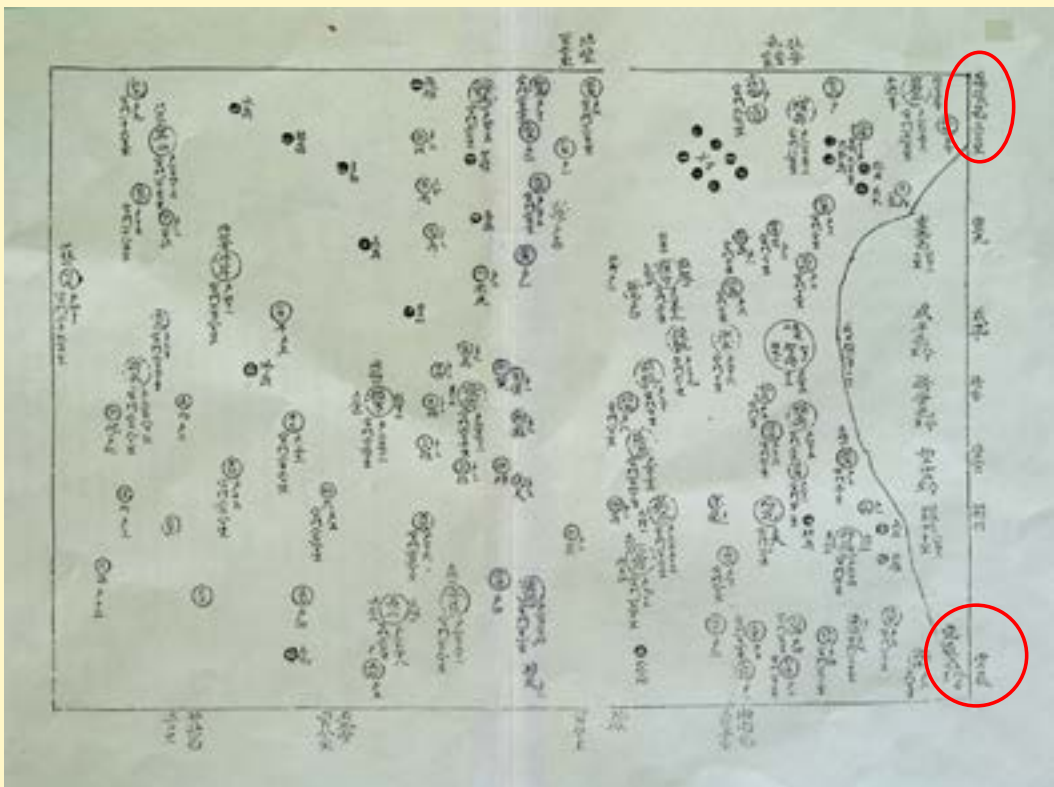
[사례2] 전라도 강진 청산도 영세불망비(1916년 중수)

- 청산도 주민 士人 金夢喜, 參奉 金萬蓮, 參奉 崔昌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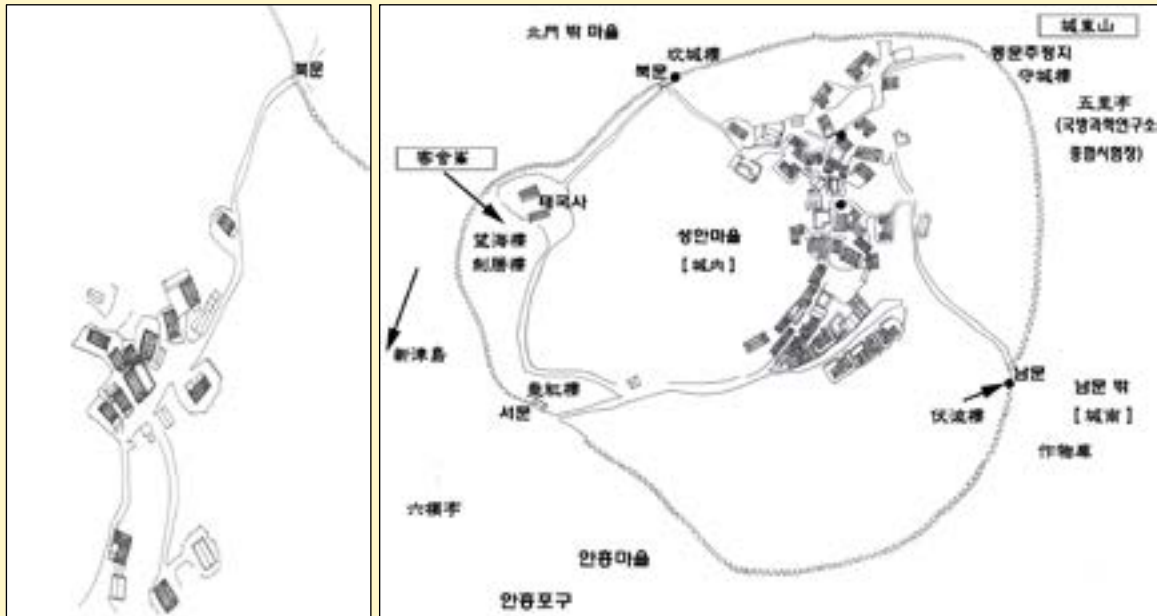
29

[사례3] 지도군총쇄록 : 수군진 → 郡邑으로 전환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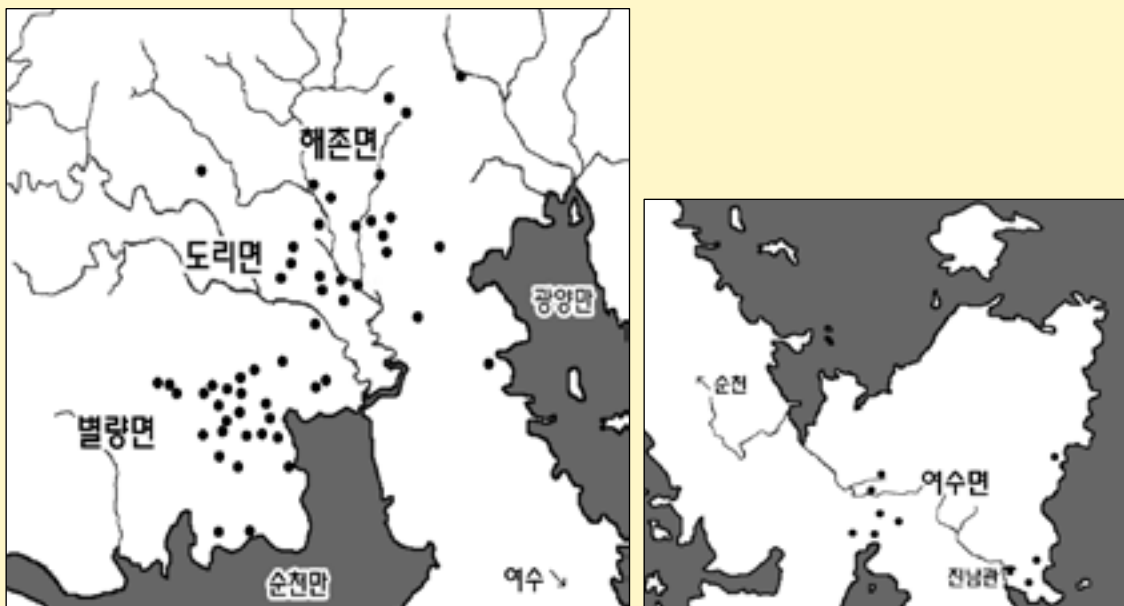
**[사례4] 충청도 안흥진 성안-성밖마을**



31

**[사례5] 전라좌수영의 軍丁成冊(1831)**

- 순천부 군정 680명의 거주지 분포도



32



#### 4) 유배, 유배인, 유배지, 유배생활

##### •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출된 전남지역 유배인

시기	유배인	비고	시기	유배인	비고
태조(1392-1398)	3		선조(1567-1608)	1	
정종(1398-1400)	0		광해군(1608-1623)	7	
태종(1401-1418)	14	둔전, 송전	인조(1623-1649)	7	
세종(1418-1450)	8		효종(1649-1659)	0	
문종(1450-1452)	0		현종(1659-1674)	1	
단종(1453-1455)	1		숙종(1674-1720)	38	도서지역 인구증가 간척과 개간
세조(1455-1468)	11		경종(1720-1724)	30	
예종(1468-1469)	14		영조(1724-1776)	73	설읍논익
성종(1469-1494)	32	도서민 주쇄논익	정조(1776-1800)	53	제도면 신설, 봉산 확대
연산군(1494-1506)	10		순조(1800-1834)	56	
중종(1506-1544)	15	목장 개간	헌종(1834-1849)	15	
인종(1544-1545)	1		철종(1849-1863)	9	
명종(1545-1567)	3		고종(1863-1907)	132	수군진 혁파, 군읍 전환
			총 유배인 수	534	

33

##### • 유배지와 수군진의 연관성

군현	수군진보	세종실록 지리지	경국 대전	신증 동국여지승람	15-16C	17-18C	비고
진도	금감도		○	금감도영	○	○	
장흥	녹도	만호	○	녹도영 첨절제사	○	○	
순천	돌산도	만호	○	돌산포영	만호진	별장진	1481 만호진
보성	여도	도만호	○	여도영			
영광	임자도					○	1711 신설
나주	흑산도					별장진	
	주자도						영흥리 진소
	지도					만호진	
강진	고금도					별장진 첨사진	1600 별장진 1681 첨사진
	신지도					만호진	

34

## • 도서지역 유배인과 문화자원

번호	유배인	유배 시기	유배지	비고
1	이주	1504	진도	금골산록, 옥주이천언
2	노수신	1547	진도	봉암서원 소재선생집
3	김수항	1689	진도	봉암서원
4	송시열	1689	보길도	각자암
5	조태채	1722	진도	봉암서원
6	김약행	1770	우이도	유대혹기 선화유고 흑산도어부등신조어선정문
7	박창수	1775	흑산도	남정일기
8	김약행	1788	진도	적소일기
9	김익익	1800	진도	금강영언록(1802) 순창록(1805) 가정절경(1929)
10	정약전	1801	흑산도	복성재 자산어보
11	조희룡	1851	임자도	조희룡전집
12	김령	1862	임자도	간정일기
13	박우현	1874	우이도	자산록
14	최익현	1876	흑산도	지장암 일신당 면암집
15	김평묵	1881	임자도	화산단(임자도) 두류단 비석군(지도)
16	이도재	1886	고금도	판서이도재영세불망비
17	이도재	1886	완도	문정공이도재창군공적비
18	이도재	1886	완도	감사이도재설군송덕비
19	정만조	1896	진도	은파유필
20	김윤식	1897	지도	속음청사

35

## ❖ 문화자원을 통해 본 유배생활 : 임자도 유배인 김령 사례

### • 실록을 통해 본 전라도 유배지

- 조선전기의 유배지 : 진도와 제주도
- 조선후기에 전라도 도서지역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남해역의 크고 작은 섬들이 유배지로 활용 예컨대 속중(녹도 · 신지도 · 지도 · 흑산도), 경중(나로도 · 사도 · 추자도), 정조(여도), 순조(임자도), 고종(마도) 등
- 유배지 빈도수: 제주도(56회), 흑산도(55회), 추자도(54회), 신지도(40회)

### • 19세기 유배지로 지정된 임자도

- 임자도가 유배지로 지정된 것은 1801년(순조 1) 사헌부 오석충의 배소
- 임자도에 정배된 유배인은 총 31명(실록 22명, 간정일록 9명)

### • 임자도 유배인 김령 관련 문화자원

- 유배원인(삼정문란), 유배길, 해배과정, 유배생활, 저술활동, 임자도의 부속도서, 의식주, 교우관계, 생활권 등

36

## ❖ 문화자원을 통해 본 유배생활 : 임자도 유배인 김령 사례

- **간정일록** : 艱貞이란 “어려움을 참고 정절을 지킨다” (주역), 1862년 6월 4일(진주관아 구금 시작), 1863년 12월 30일(고향 도착)
- **유배길 동행자** : 官人(강정술), 族使(아들 김인섭, 6촌 형 김장홍, 7촌 조카 김우서), 친구 (김형상과 이윤길) 등이 동행
- **유배여행(1862)** : 단성→함양→남원→순창→담양→장성→영광(원당)→함평(증산서원) → 무안(해제)→지도→임자도(총 16일 소요, 약 240km, 하루 노정 80-90리, 평균 40리)



37

### • 함평에서 임자도로 가는 여정의 주막

주막명	위치	김령의 임자도 배소
강산나루 앞 주막	함평 강산나루	
장항점	지도	
이영배 주막	지도(점암)	
명근의 族親小店	지도	
양계소점	지도(양계촌)	
황씨점	지도(송향)	
금파점	지도	
이윤량 주막	임자도 십자가방	배소① *배소②: 안문복 가옥
이순근점	임자도	
김노인 주점	임자도(목도)	
대기촌점	임자도 대기촌	
오일국점	임자도 사공리	
정은명점	임자도 진리	배소③, 鎭校
행화점	임자도 진리	

38

• **김령이 방문한 서당과 부속도서**

서당명	소재지	관련 인물
서당	임자도	주학기
서당	임자도 鎭底	최일수
隣齋	임자도 진리	
임치중 書室	임자도 광산	재실 활용
삼두리 書室	임자도 삼두리	崔太文
박한필 서당	임자도 화산	
윤생 서당	임자도 화산	윤진탁
양계존 서당	지도 양계존	
혼몽	지도	김성로
감정서실	지도 감정동	
권운경	지도 감정동	
오비존 서숙	지도 감정동	문씨



❖ **유배지에서의 일상 : 독서, 관찰, 의식주**

• **편지쓰기**

- 10월, 육지로 출타하는 김선달, 중도에 단성 장사꾼에게 부탁하여 전달
- 10월, 아들 김인섭과 친구 박장서 답신 : 통영과 해남(右水營) 경유(19일)

• **의복**

- 1863년 봄, 미투리를 짊어지고, 知人의 書齋를 방문
- 1863년 여름 : ‘의관을 갖춰 입고, 가족신을 신었다’

• **음식**

- 1월 김(海衣), 3월 방어·연어, 6월 민어·공어·새우, 8월 낙지, 9월 농어회, 10월 개고기와 말린 민어, 11월 동지팔죽, 12월 돼지고기
- 특히 개고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직접 조리해서 즐겨 먹은 음식
- 단성지방 친척들, ‘닭 잡고 개를 끓여 큰 잔치를 벌였다’

• **가옥**

- 鎭門 밖 섬주민 박운량·안문복·정은명 가옥에서 더부살이
- 鎭屬이 유배인을 감독할 수 있는 범주(주정)

- **저술** : 歷代千字文(전반부 744자, 후반부 256자, 내용은 단군-조선 건국까지) 戡定錄(1862.9.22.-1863.1.26.)

## ❖ 김령의 임자도에 대한 제안

### • 임자도의 농업과 어로생활

- 주변포[들버지 포구] : 작은 비탈진 언덕에 오르니 일망무제의 땅이 있었다. 간척을 하면 좋은 논밭을 만들 수 있는데도 황무지로 내버려 두고 있다니 섬사람들의 우매함이 심하다
- 종달평[종달이 버던] : 종달평은 한적 땅으로 주변포보다 더 나았다. --- 종달평은 원래 목장이었으나, 1796년(정조 20)에 혁파되어 개간되었다.
- 장동에서 화산에 이르는 들판 : 벼가 재배되고 있었지만, 밭이었다. 농경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섬이라는 특성에서 밭벼가 재배되고 있었다. 이외에 보리·밀·팥·콩 등이며, 목화는 주요 산물이었다.
- 작도는 가는 새우와 松魚가 많이 난다. 그래서 잇속을 노리는 장사꾼들이 많이 몰려온다.

41

## 5) 공동체 : 동계·학계, 송계·목계, 보민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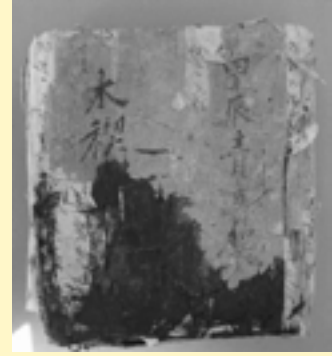
### • 계의 종류는 목적·형태·계원·기능 등에 따라 그 명칭이 다양

- 진도 송산리 洞契(1761)와 學契(1827), 그리고 서당운영
- 조창기 서당 출입은 마을 거주민 자재, 점차 진도 전역으로 확대
- 훈장 송암 광진권, 익운 이순묵의 문하생
- 19세기 면장 17명 배출, 향교 전교 순번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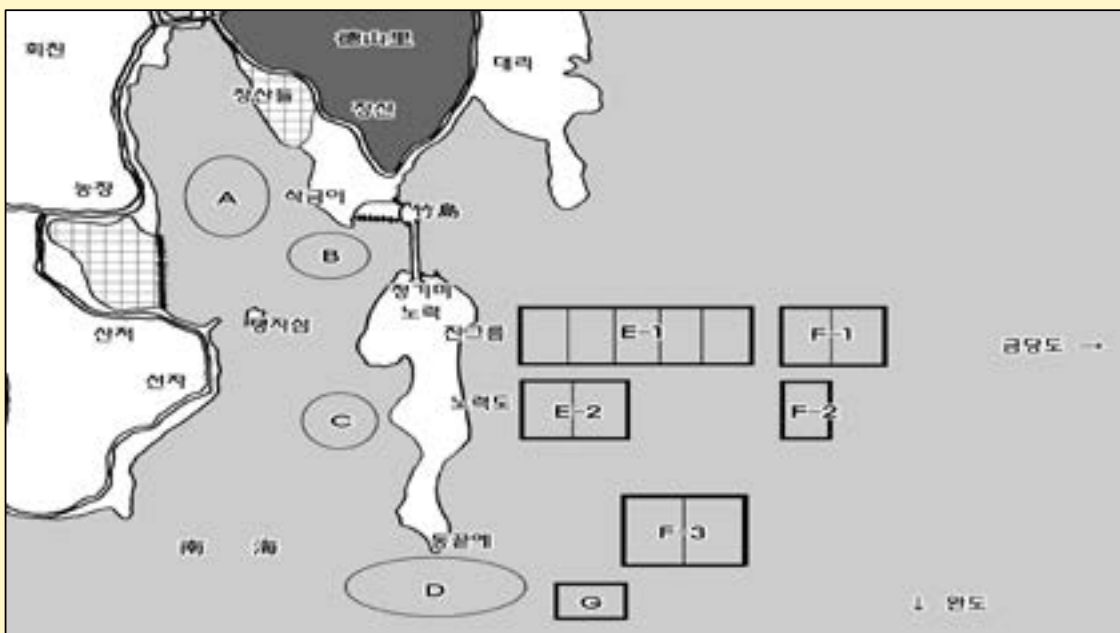
• 금당도 차우리 목계와 어장

- 금당도 봉산 분포, 혁파 후 洞 단위 공동체 운영
- 射契(1878), 木契(1882), 補民契(1884)
- 書契(1888), 松契(1901)



43

• 노력도 대동계와 미역장 : 주비뽑기로 미역장 선정



44

• 노력도 大同契(1925) 동계전으로 공동체 운영 : 식리전

講信有司	金黃用, 崔明用, 李正萬		
本金	806냥 5전		
利子	324냥		
元利合金	1,130냥 5전		
	內 354냥 用下秩 208냥 5전 以前 買實 費用 73냥 7전 學校寄附金		
實在金	494냥 3전		
座目	金春洙 외 29명(名下錢)		
錢有司秩	金千一	金 140냥	이자 56냥
	李正萬	金 114냥 8전	이자 45냥 9전
	申錫形	金 130냥	이자 53냥
	金允一	金 117냥	이자 47냥



## 4. 전망과 과제

- 80년대 역사학, ‘발로 쓰는 역사서술’
  - 현장답사를 통한 지방사(혹은 지역사)의 재구성
  - 논문 조고에 대한 반응  
“시·군사 서술에 적합하다”, “이렇게 서술해도 좋겠다”
- 90년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방법론 모색
  - 당시 도서문화연구소의 화두, “섬의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 학제간 연구, 공동학술답사 후 각 분야별 연구시각을 공유
- 21세기 생활사·미시사·일상사·구술사
  - 윤곽은 뚜렷해 보이지만, 세부는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역사
  - 전체상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틈새 사이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룬 역사

## 4. 전망과 과제

### • 초창기 섬 연구

- 관찬기록 속에서 섬을 검출하다 : 사람, 공간, 문화상
- 특히 조선왕조실록(CD)에서 검출된 섬 관련 키워드
- 토지(개간, 간척/ 둔전과 궁방전, 민전/ 토지소유권 분쟁, 소작쟁의)
- 목장과 목마
- 송전과 봉산 : 송계와 목계, 땔감계
- 수군진과 해양방어 그리고 設郡·設邑論議
- 마을공동체 조직 : 공동소유·공동노동·공동분배

### • 이론과 실제 : 사례연구

- 기록 속의 섬과 현장의 섬을 연결
- 근세와 근·현대의 연계성(근세, 일제, 해방전후, 한국전쟁, 1970년, 1980년)
-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재해석

47

## 4. 전망과 과제

### 첫째, 사료에 대한 발굴과 비판, 합리적 주론의 방법

“실마리 찾기”,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증거 조각을 실마리 삼아 숨겨진 리얼리티의 진면목에 도달하는 접근 방법이다. 결국 **역사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연구가 소설과 다른 점이 엄밀한 사료비판에 있다. 그러나 종래 실증 방식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입증 방식을 포용하는 역사서술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일상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연구와 서술을 시도하는 노력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작업은 오히려 매우 근본적인 의미에서 근세의 성과들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보다 포괄적인 노력의 일부이다.

48



## 4. 전망과 과제

### 둘째, 새로운 글쓰기의 시도

종래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전말을 풀어나가는 듯한 ‘이야기로서의 역사서술’, 역사를 이야기체로 쓴다는 것은 곧 역사서술의 문학성을 의미하고,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확인된다. 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창의 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자료소개와 내용분석도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연구가 생활사 전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시대의 역사상을 최소한 한가지 이상은 짚어낼 수 있도록 유의한다.

49

## 4. 전망과 과제

### 셋째,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확장

대체로 연구자가 체류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연구영역을 확장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기존 섬과 바다 관련 연구성과는 전라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경기도 일원의 사례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미미하다. 이런 점에서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을 위한 연구대상지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 섬과 바다, 연안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거의 섬을 연구대상으로 시작하고, 제한적으로 보려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섬과 연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범주(혹은 문화권)를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다.

50



발표 6

#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변남주  
국민대학교



## 해로교통사 연구 경향과 과제

변남주(국민대학교)

목 차
I. 서론
II. 주제별 연구 동향
III. 해상교통로 40건 연구 동향
IV. 시대별 연구 동향
V. 지역별 연구 동향
VI. 해로교통사 관련 주요 연구자
VII. 결론과 과제

### I. 서론

본 글은 해로교통사의 연구 동향을 살펴 경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학회지에 등재 수록 된 것을 대학도서관의 메타검색(정보원 keris 논문(석사 9, 박사학위 4 포함)을 통하여 95편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범위는 역사를 중심으로 하되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일부 지리학 논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주제는 해상교통로 그리고 이와 관련이 깊은 조운과 포구까지 포함하였다.

### II. 주제별 연구 동향

연대	해상교통로	조운	포구	포구상업	계
~1980년대		4		2	6
1990년대	1	2	1		4
2000년대	15	7	10	3	35
2010년대	24	15	8	3	50
계	40	28	19	8	95

- 해상교통로와 관계된 연구는 1963년 조운(태안 굴착)으로부터 최초 태동

- 1990년대 논문은 총 4편으로 빈약
- 2000년대 기반 다짐
- 2010년대 다양한 연구 방법론 시도: 역사지리, 공간에 대한 연구로 확대

1) 해상교통로

해상 최초의 논문 :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2) 조운

1963 이종영,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8 박정현, 韓國 中世의 漕運과 泰安槽渠 掘浦 및 漕倉遺蹟을 중심으로

2009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과 조세운송체계

3) 포구

2000 이정숙, 牙山灣 沿岸 浦口聚落의 變化에 關한 研究 교원대학교 지리교육 석사

2001 최완기, 조선후기 강경포구에서의 선상활동

2005 강봉룡, 珍島\_碧波津의 고·중세 ‘해양도시’ 적 면모

2005 고석규, 강봉룡, 변남주 외, 『장보고시대의 포구조사』 장보고기념사업회 발간

2006 강봉룡, 변남주, 조선시대 호남지역 포구의 사례조사·연구

2006 전덕재, 조선시대 영남지역 포구와 나루의 변천

2010 변남주, 前近代 榮山江 流域 浦口의 歷史地理的 考察

2010 문경호, 고려시대 충청도 연안의 포구에 관한 연구

4) 포구상업

1985 이영호, 19세기 포구수세(浦口收稅)의 유형과 포구유통의 성격

2006 고동환, 조선후기 錦江水運과 浦口市場圈

III. 해상교통로 40건 연구 동향

연대	대중국해로	연안해로		대일본해로	계	(강 뱃길)
		서남해	동해			
~1980년대					0	
1990년대	1				1	
2000년대	10	3	1	1	15	(3)
2010년대	11	3	2	8	24	(5)
계	22	6	3	9	40	(8)

- 2000년대 : 활발한 대중국해로 연구는 장보고기념사업회의 지원이 지대함. 그러나 2011년 해양문화재단과 함께 한국해양재단으로 통합되자 장보고 관련 연구도 거의 중단됨.
- 2010년대 : 연안해로는 조운(로) 연구 그리고 동해의 연구 3편은 이사부 장군 현창사업 관련 삼척시 지원의 결과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청자운반선 인양은 관련 연구를 촉진했음.
- 2000년대 : 2001 김종혁, 한강수운은 장시발달에 기초적인 연구로 출발되었으며, 2010 변남주, 전근대시기 영산강 포구와 뱃길 연구로 이어졌음.

#### 1) 대중국해로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2002 강봉룡, 고대 · 중세초의 한 · 중항로와 비금도

2013 김성준, 고대 동중국해 사단(斜斷)항로에 대한 해양기상학적 고찰

#### 2) 연안해로

2003 고동환, 조선후기 商船의 航行條件

2010 강봉룡,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 · 낙동강유역

2010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2010 윤용혁,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객관과 안흥정

2015 변남주, 작은 섬 재원도 포구의 한 · 중 흑산도 해로상 해양사적 위상검토

#### 3) 대일본해로

2010 윤명철, 연해주 및 동해북부 항로에 대한 연구

2014 윤용혁, 백제의 대왜(對倭) 항로와 가카라시마(加唐島)

#### 4) 강뱃길

2001 김종혁,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市場

2010 변남주, 前近代 榮山江 流域 浦口의 歷史地理的 考察

2011 변남주, 榮山江 중 · 하류뱃길 環境과 돛단배 항해술

#### IV. 시대별 연구 동향

연대	고조선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계
~1980년대			3	3		6
1990년대		1	1	2		4
2000년대		10	12	9	4	35
2010년대	1	20	15	11	3	50
계	1	31	31	25	7	95

- 고조선시대 : 선사시대여서인지 매우 빈약함.
- 고대 : 장보고, 백제와 왜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진행됨.
- 고려시대 : 국내는 대부분 조운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고, 남송과의 교류사를 밝히기 위한 연구결과임.
- 조선시대 : 대부분 조운, 선상의 해상활동의 기반으로 연구됨.
- 일제강점기 : 일제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된 포구취락의 연구가 대부분임.

##### 1) 고조선

2014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 2) 고대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 3) 고려시대

1963 이종영, 안흥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1 최완기, 高麗朝의 稅穀 運送

2010 한정훈, 고려시대 연안항로에 관한 기초적 연구

##### 4) 조선시대

1976 최완기, 조선전기 조운시고

2015 한정훈, 15·16세기 漕倉制의 재정립과 그 이해방향

##### 5) 일제강점기

2004 방갑주, 금강하류의 포구 취락 -옹포를 중심으로-



## V. 지역별 연구 동향

연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평안도	전국	계
~1980년대		4					2	6
1990년대		2		1			1	4
2000년대	1	7	9	2	3		11	33
2010년대	4	1	11	9	1	4	10	40
계	5	14	20	12	4	4	24	83

- 경기도(경기만, 한강), 충청도(금강과 태안 운하), 전라도(섬과 영산강), 경상도(신라, 낙동강 하류), 강원도(삼척)이 주 연구 대상임.
- 특히 전라도의 경우 해양사 연구자가 다수여서 관련연구가 활발함. 이는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연구 소재가 풍부한 까닭으로 보임.

### 1) 경기도

2001 김종혁, 朝鮮後期 漢江流域의 交通路와 市場

2011 전종한, 근대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네트워크와 지역화과정

### 2) 충청도

1963 이종영, 안홍량 대책으로서의 태안조거의 및 안민창 문제

1988 박정현, 韓國 中世의 漕運과 泰安槽渠 掘浦 및 漕倉遺蹟을 중심으로

1991 윤용혁, 서산 태안지역의 조운관련 (漕運) 유적과 고려 영풍조창

2000 이정숙, 牙山灣 沿岸 浦口聚落의 變化에 關한 研究

1986 이영호, 19세기 은진 강경포의 상품유통구조

### 3) 전라도

2006 강봉룡, 신라 말~고려시대 서남해지역의 한·중 해상교통로와 거점포구

### 4) 경상도

1995 권덕영, 신라의 대당(對唐) 항로와 항해상의 고난

### 5) 강원도

2010 이상수, 유적을 통해서 본 이사부 출항지 검토

2010 장동호, 김장수, 동해안 항포구의 자연환경 입지분석을 통한 우산국 정벌의 출항지 검토

## 6) 평안도

2014 박대재, 古朝鮮과 齊의 해상교류와 遼東

### VI. 해로교통사 관련 주요 연구자

시기	강봉룡	고동환	윤용혁	한정훈	전덕재	문경호	최완기	변남주	방갑주 (지리)	계
고대	6		1		2			1		10
고려			3	11		4	1	1		20
조선	1	3		2	1	1	2	4		14
일제									4	4
계	7	3	4	13	3	5	3	6	4	48

- 연구자 9명의 연구결과 : 전체 95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함.
- 한정훈 : 고려시대 조창, 조운 연구에서 해상교통로, 포구 연구로 확산되어 가는 중이며, 근무처가 이동함에 따라 연구지역이 변동함(경상도→전라도).
- 강봉룡 : 1990년대 후반 해양사의 선구자적 역할, 전문영역을 해양사로 전환까지 함.
- 고동환 : 포구 상업과 유통 연구에 기여
- 윤용혁, 문경호 : 고려시대 전공으로 태안의 운하굴착 연구에 기여
- 전덕재 : 낙동강 하류의 포구와 나루에 이어서 경상도 지역 고대 해상교통로 연구에 기여
- 최완기 : 조운 연구에 태동
- 변남주 : 장보고시대 포구조사로 시작하여 영산강 뱃길과 포구에 대한 전문 연구, 더 나아가 해상교통로 연구에 기여
- 방갑주 : 금강 하구의 포구취락 지리학 연구에 기여
- 윤명철 : 뗏목 항해를 통해 사단항로의 연구에 기여

### VII. 결론과 과제

- 연안해로는 조운에서 시작하여 연안교통로 이어서 포구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성을 보임. 따라서 고려시대 청자운송의 뱃길을 조운과 관련하여 이해하려 하였음.
- 연구지원의 유무에 따라 연구 대상, 주제, 지역 선정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구자의 전공(시대, 주제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큼. 석사학위(9명)만 받고 계속하여 전문연구자로 성장하는 경우가 적고, 다양한 분야별 연구자 양성이 필요함.
- 섬이름의 변화, 공간 변화(간척, 다리건설, 양식업 등)와 교통수단의 기계화 등 연구 환경이 달라진 까닭에 과거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음.
- 해상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매우 개념·추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육지와는 달리 관심도가 낮고 접근성도 불량하여 현장 답사가 용이하지 않은 까닭이며, 해상교통로 연구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함. 또 지리학, 해양학, 역사학의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해양의 시대에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이 우선됨.



발표 7

#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최성환

목포대학교



# 표류기록을 활용한 국내 연구현황과 과제

【 최성환 】

木浦大 島嶼文化研究院 HK교수

- 2018. 5. 11 -

## 【 목차 】

- I. 머리말
- II.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III. 국내 표류 연구 동향
- IV.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I. 머리말

도서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고정  
관념

먼 바다에 자리하고 있는 섬 지칭- '絶海孤島'  
한국사에서 섬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 막힘과 고립

재인식

섬문화의 다양한 인문적 기반과 해양의 특수성 파악  
섬과 바다를 연결하는 문화네트워크, 해양에 기반한 지적전통  
섬이 지닌 소통과 교류의 문화상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연구

섬 연구를 위한 기록 발굴과 활용(유배인, 표류인 등)  
문순득의 표해시말- 섬이 지닌 소통과 교류적 기능을 파악하는 사례  
서남해 도서지역의 독특한 인문환경

'절해고도'라는 고정관념의 전환  
표류 기록을 통한 섬의 인문환경이 지닌 특징 분석

II.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표류기록의 부족

- 海難사고의 특성
- 어민, 상인이 다수
- 비문자층의 경험

표류기록의 유형

- A. 표류경험자와 집필자가 동일
- B. 조정의 명으로 조사, 실록에 등재
- C. 경험자 구술, 다른 사람이 기록
- D. 관청에서 취조한 기록

대표 기록 20선 선별 소개(D제외)  
지속적으로 신규 기록 발굴 추세  
개인문집에 수록된 표류기록증가

순번	표류자명	발생시기	출발지	표착지	사유	직업	기록자	전거
1	萬年 의 6명	1450.12 ~ 1453	미상	琉球	불명	船軍		實錄
2	梁成의 10명	1456.1.25 ~ 1461	제주	琉球	불명	船軍	韓繼禮	實錄
3	骨得諫의 8명	1462.1.24 ~ 7.6	제주	琉球				實錄
4	金非衣의 8명	1477.2.1 ~ 1479.5.3	제주	琉球	진상	사공		實錄
5	李暹의 33명	1483.2.29	제주	中国 長沙鎮	選任이동	관리	金宗直	實錄
6	崔溥의 43명	1488.1.3 ~ 1488.6.4	제주	中国 寧波府	부친상 이동	관리	崔溥	漂海錄
7	樺題伊 의	1499.1 ~ 1500.6.30	미상	日本 九州	불명	중		實錄
8	金紀孫,萬珠	1534.2.20 ~ 1534.11.24	제주	中国 淮安衛	공물운송	중		實錄
9	朴源 의 12명	1542년	제주	琉球			尹潔	實錄
10	法性	17세기 중엽	부산	日本	불상운송	승려	金壽增	谷雲集
11	金鳳輝	1661~1663	제주	琉球 大島	귀향			金鳳輝等 漂海錄
12	高南英의 24명	1687.9.3 ~ 1688.12.13	제주	安南國	무역 (유학)	학생 (17세)	鄭東愈	畫永編
13	李志恒의 8명	1756.4.13 ~ 1757.2.2	부산	北海道 蝦夷	왕래 (중매)	武官	李志恒	海行總載
14	張漢詰의 29명	1770.12.25 ~ 1772.1.15	제주	琉球	과거응시	幼學	張漢詰	漂海錄
15	金福壽傳	1793	제주	安南			陸萬中	金福壽傳
15	李邦翼의 5명	1796.9.21 ~ 1997.6	제주	中国 澎湖府	뱃놀이	武官	朴趾源	燕巖集
16	文澤得의 6명	1801.12 ~ 1805.1.8	牛耳島	琉球 呂宋	교역	상인	정약전 이강희	漂海錄
17	樺溪大師 의	1817.11.18 ~ 1818.7.15	동래	日本 筑前州	불상운송	승려	樺溪大師	日本漂海錄
18	崔斗燦의 50명	1818.4.10 ~ 1818.10.2	제주	中国 寧波府	육지왕래	幼學	崔斗燦	樂筵錄
19	金光顯의 7명	1828년.9.7 ~ 1829.1.7	제주	中國 普陀山	고기잡이	어부	朴思浩	耽羅 漂海錄
20	濟州島民의 33명	1831.11.23 ~ 1832.12.23	제주	琉球 伊江島	장사	상인	金贊善	燕巖直指



##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표류기록에 대한 조사 사례

1731년 鄭運經(1699~1753)  
『耽羅聞見錄』이 해당된다.  
총14건의 표류기록 수록  
국외 교류기록 13건이 한권에 수록  
1687년부터 1730년까지 약 43년

### 표류기록의 발굴

새로운 기록 발굴 가능성 높음.  
해외 소재 표류기록 발굴 필요.

번호	표류자명	발생시기	귀환시기	표착지	소요기간	사유	직업
1	高尚英 외 24명	1687.9.3	1688.12.13	安南國	1년 3개월 10일	유학	학생
2	尹道成 외 30명	1729.8.18	1730.5.20	臺灣	9개월 2일	장사	상인
3	宋完	上同	上同	上同	上同	공무	아전
4	官奴 友彬 외	1697.10	1680.10	일본翠芳島	1년	관무역	官奴
5	姜斗樞.高守慶 외 54명	1698.11.29	1699.5.16	일본薩摩屋鳩島	5개월 17일	진상선	주민
6	李建春 외 60명	1724.2.14		일본對馬島		유매	주민
7	李己得 외 25명	1723.4.8	1723.9.13	일본五島手羅島	5개월 5일	진상	주민
8	金時位 외 26명	1723.3.25	1723.7	일본五島相村	4개월	진상	주민
9	金日男.夫次雄 외	1726.2.9	1728.4.18	유구국	2년 2개월 9일	장사	상인
10	山海 외 39명	1704.1.10	1704.7	일본梁九島	6개월	쌀구입 해남	官奴
11	관리 외 39명	1701.12.26	5.22	일본薩摩屋鳩島		장사	관리 상인
12	高亮 외 15명	1729.9.30		일본五島		장사 경상도	상인
13	元九赫 외 28명	1720.11.14	1720.3.30	일본筑前州	4개월 16일	장사 후산도	상인

지속적으로 국내외 원천 기록 발굴 및 수집활동 필요

##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해외 소재 표류기록 사례

#### 『漂民對話』

- 薩摩州 조선어 통사 양성 교재
- 1836년 제작, 漂流問答記
- 표착조선인과 일본 傳語官 대화
- 순천 어부 11명, 해남 商人등장



심수관가 소장 자료 표류인 관련 기록의 변형물, 한글교재, 수집필요  
표민대화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증가 추세

## II.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 漂海始末

- 우이도 문순득 경험
- 표류기간: 1801.12~1805.2
- 유배인 정약전 기록
- 구성: 경과, 견문내용, 언어

#### 雲谷船說

- 문순득 경험과 선박지식
- 실학자 이강회 집필
- 집필 시기는 1818년
- 경험: 필리핀에서 마카오 이동
- 내용: 유럽형 범선과 항해 방법
- 선박관련 전문 저술



이강회의 유암총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전문저술  
 섬주민 해양지식(경험)과 실학자 해양인식의 만남

## II.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 국내 기록

- 국가기록 외교문서
- 개인기록
- 중국방문 조선사절단과 만남
- 다양한 형태로 존재

#### 특징

- 제주 표착 여승인 관련
- 당시 송환체제 반영
- 지식인의 인식 엿보임
- 정약용과의 영향관계

구분	세부기사명	년도	특징	기록원
朝鮮王朝實錄	命呂宋國漂人	1809.6.26	문순득 표류경험과 여승인 심문	국가
日省錄	命呂宋國漂人	1809.6.26	문순득 표류여정 및 여승 풍속	국가
同文彙考	禮部知會琉球漂人 出送咨 외	1804.1 1804.7	여정 및 중국에서 송환과정	국가
通文館志	純宗大王四年 甲子	1804	표류 후 귀국 사실 언급	국가
蔚山紀程	漂流舟子歌	1804	문호겸 외 다른 일행들의 증언	개인
經世遺表	典圖署	1817	표류 사실 및 통화 유통 견문내용	개인
事大考例	海防考 諸國人漂海例	1822	문순득 표류 사례 및 여승인 관련	개인

표해시말의 내용을 보충하고, 다양한 시각을 살필 수 있음  
 문순득 표류경험의 수용과 영향관계

##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 문순득 관련 국내 기록의 특징

**왕실기록** 1809년 제주표착 여송인 송환과 관련 문순득 활용  
국내 해외인식, 문순득의 표류인에 대한 인식

**외교문서** 문순득 외 표류인의 상황에 대한 정보, 중국측의 조치  
국가간 송환체제와 표류인 인식

**계산기정** 문순득 외 표류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답기  
조선후기 지식인의 표류인, 섬주민에 대한 인식(1804.1.5)

문순득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관계, 해양인식 등을 엿보는 자료

##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 歷代寶案

- 유구국의 역대 외교문서
- 평정소 기록의 보완
- 중국을 통한 송환체제
- 2차표류에 대한 내용
- 통사의 표류인 송환역할

#### 檔案

- 중국의 공적기록물
  - 대외 관계 문서
- 표류인에 대한 처리 내용
- 마카오 시절의 내용 확인

자료명	해당년도	주요내용	건수
歷代寶案	1803.2.2. ~ 1803.12.19	문순득 표류 경위 여송에서 중국 廈門 도착 경위	7건
清代中琉關係檔案選編	1803.2.20 ~ 1803.8.19	진공선 침몰 처리 문제 호송선 표착 문제 여송 표착후 중국 廈門 도착 경위 표류민과 호송선 면세 처리 문제	5건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1804.2.24	문순득 송환 처리 방식 문제	1건
清代澳門中文檔案彙編	1803.9 ~ 1803.12.4	문순득 오문 도착까지의 경위 중국 정부에 인계 과정 중국에서 송환 처리 방식	4건

중국 당안 자료, 표류인 연구에 매우 중요.  
표류인에 주어지는 혜택, 무역상황 등 세세한 정보

## Ⅱ. 국내 표류기록의 현황

### ■ 문순득 표류기록 사례

#### 澳門檔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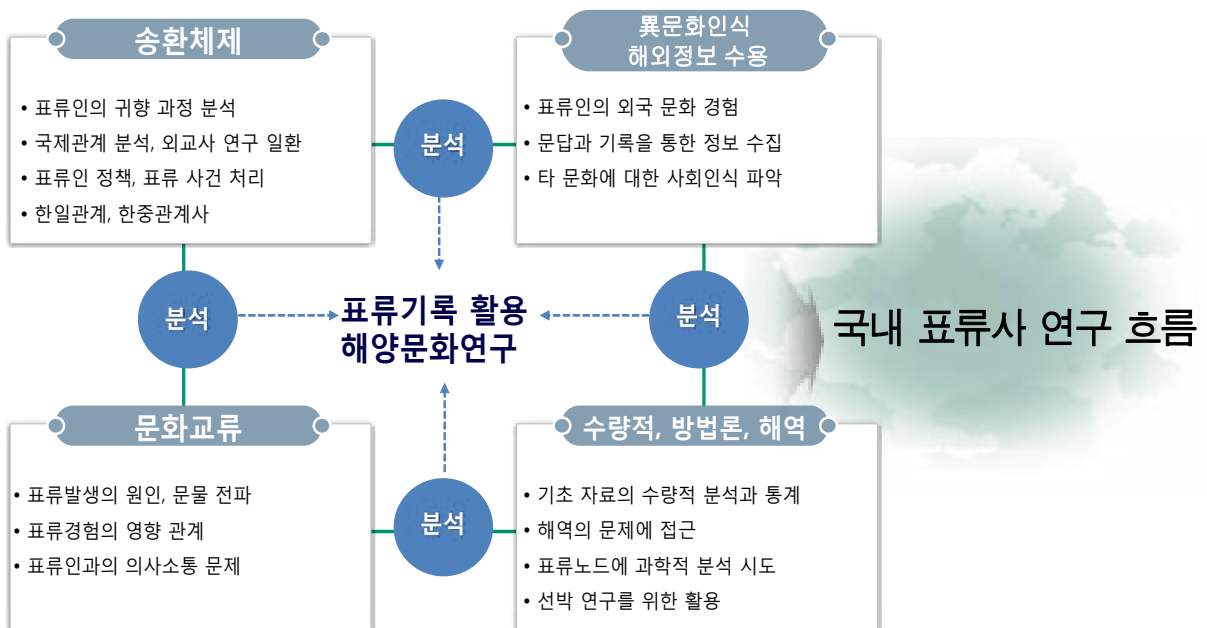
- 마카오에서 문순득 심문기록
- 포르투갈 관원 ↔ 청조 관원
- 청조에 인계되는 과정
- 표해시말 누락된 마카오 내용

순번	시기	문서명
1	1803년 9월 중순	高麗難民文順得等爲備述在海遭風飄泊事呈清朝官員稟
2	1803년 9월 22일	香山縣丞吳兆晉爲將高麗難民文順得等小心管束廳候憲檄事下理事官諭
3	1803년 10월 12일	香山知縣金毓奇爲查訊高麗難民文順得等事下理事官諭
4	1803년 12월 4일	香山知縣金毓奇爲護送高麗難民文順得等上省回國事下理事官諭

## 외국관계가 없는 지역에서의 표류인 송환 문제 마카오의 국제적 상황(포르투갈인 거주 1557년)

##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 ■ 주요 연구동향 분석



표류 연구 : 국경을 초월한 역사 연구  
2000년 이후 '표류' 관련 연구성과 분석한 결과

###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 표류인 송환체제(국제관계)

조선후기 제주 표류민의 중국 표착과 송환 과정(이수진, 2017)  
 조선 표류민의 유구 표착과 송환(이수진, 2015)  
 朝鮮後期 官撰史料를 통해 본 중국인 漂流 사건의 처리(최영화, 2015)  
 16세기 조선의 '寧波의 亂' 관련자 표류인 송환(구도영, 2014)  
 조선의 對淸關係와 西海海域에 표류한 중국 사람들(김경옥, 2014)  
 조선후기 문순득의 표류노정과 송환체제(최성환, 2012)  
 해남 선비 김여희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정성일, 2012)  
 朝鮮 漂流民에 대한 明의 救助體制(王天泉, 2012)  
 『雲谷雜著』를 통해 본 조선후기 표류 중국인에 대한 구조 활동(원종민, 2011)  
 『朝鮮物語』에 나타난 표류민의 越境과 송환(정하미, 2009)  
 다산의 「해방고(海防考)」에 나타난 중국 표선(漂船) 처리문제(정민, 2009)  
 조선후기 해양인식과 표류인 정책-『典客司日記』를 중심으로(신명호, 2006)  
 '漂流'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 : 송환절차를 중심으로(이훈, 2003)  
 근세 표류민의 송환유형과 "국제관계"(신동규, 2002)

가장 중심으로 이루는 연구분야,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국제관계 파악

###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 異문화인식, 해외정보 수용

18세기 조선 표류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만의 겉과 속(진경지, 2017)  
 상평통보를 소지한 조선의 표류민과 대마도(정성일, 2016)  
 15~19세기 표류 제주인의 출신지 諱稱 양상에 대한 고찰(김나영, 2016)  
 17세기중엽 조선에 표류한 鄭成功 계열 海商에 대한 조선지배층의 인식과 그 성격(양지하, 2015)  
 조선시대 표류를 통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추이(최영화, 2015)  
 19세기 전반 대둔사 승려의 일본 표류와 일본인식(하우봉, 2014)  
 『玄洲漫錄』·『雲谷雜著』를 통해 본 표류 중국인과의 의사소통 과정 및 問情기록(원종민, 2012)  
 표류기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허경진, 김성은, 2011)  
 조선시대 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양진건, 2011)  
 대흥사 천불전 부처의 일본 표류와 조선표객도(정민, 2009)  
 『조선물어(朝鮮物語)』에서 표류일본인들에게 비춰진 조선사정(박정자, 2006)

조선시대 해외문화 인식 태도, 수용하려는 노력, 당대 사회상 인식 상황

###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 문화교류의 양상

- 조엄과 일본 표류 제주인을 통한 제주 지역의 고구마 전래(정성일, 2017)  
 餘窩 陸萬中の 표류인 전기 『金福壽傳』 연구 :  
 제주민요 <오돌또기> 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안대회, 2014)  
 태국화상 許必濟의 고향 隆都 前埔村과 조선 표류에 관한 고찰(박현규, 2014)  
 1880년 朝鮮 庇仁縣에 표착한 潮州·泰國 상인의 표류 사정과 교역 활동(박현규, 2013)  
 청나라 무역선의 일본 표류와 『遊房筆語』(허경진, 최영화, 2012)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경험과 그 영향(최성환, 2010)  
 『지영록』을 통해본 외국인 표류상황과 의사소통 과정(원종민, 2010)  
 최두찬의 『승차록』에 나타난 한중 지식인의 상호인식(박동욱, 2009)  
 한(韓), 일(日), 월(越) 사이에 발생한 표류사건 검토(진익원, 2009)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원종민, 2008)

표류인과 표착지역의 문화교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한 당대 사회상 조명

### Ⅲ. 국내 표류 연구의 동향

#### 방법론, 수량적 파악(DB), 해석

-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金京玉, 2017)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고석규, 2008)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과정(이수진, 2015)  
 『濟州啓錄』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원종민, 2013)  
 全羅道 住民의 日本列島 漂流記錄 分析과 데이터베이스화(정성일, 2003)  
 『漂人領來臚錄』 속의 경상도 표류민과 해역(金康植, 2017)  
 李志恒 『漂舟錄』 속의 漂流民과 海域 세계(金康植, 2017)

표류기록을 통한 해양사 연구방법 접근  
 기초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DB구축  
 경계를 넘어 해역의 개념 제시

조선시대 선박 연구

『漂民對話』의 사료적 가치와 표류선의 구조(문경호, 2015)

漂民對話의 조선학적 고찰(박근웅, 2011)

19세기 초 문순득의 표류담을 통해 본 선박건조술(김경옥, 2007)

표류기록에 나오는 조선시대 전통 한선 분석  
전통선박과 항해술에 대한 식견 필요

표류관련 연구 흐름과 과제

**흐름**

‘표류민 송환체제 형성’, ‘異문화 인식·해외정보’

‘표류기록에 담긴 문화교류’, ‘수량적 파악년표’, ‘연구방법론’

**한계**

특정 ‘국가 대 국가’ 외교체적론적 분야, 대외분야 연구에 집중  
표류인 자체는 수동적인 대상, 항해의 주체로서 연구 미진

**방향**

표류문제를 해양문화 연구와 관련시켜 진전  
특정 지역을 뛰어 넘는 연구 방법 시도  
섬의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고민

표류인 문제를 구체적인 해양문화 연구에 활용  
경계를 넘어선 해역 개념의 해양사 연구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

#### IV.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 섬 문화상 연구를 위해 관심 필요

### 섬사람들과 표류 문제 - 현 신안군 우이도 사례

**공간** 국제해로의 관문.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응. 비변사 신안기록 104건 표도인 관련 내용(총145건 중).

**인식** 서남해 도서주민들 표류인에 대한 인식과 공유. 표류인 문제, 생소하지 않은 이야기.

**교류** 섬주민이 표류를 통해 외부 세계 경험 - 문순득. 표착인과 섬주민과의 교류관계 형성 - 이강희.

섬이라는 공간에서 표류인 문제는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 기능 고립의 이미지에서 소통과 교류의 문화상을 살피는 연구과제

#### IV.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 표도인과 섬 주민과의 문화접촉 주목

### 표류인과 섬 주민의 교류 - 우이도 이강희 사례

**표착** 1819년 우이도 앞바다에 표착한 중국배(江南省 龔永慶 商船)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 반영, 한중 민간교류 상황 연출.

**상황** “동쪽 바다 앞에 어떤 배가 표류해와, 鎭將 徐衛信이 배를 타고 問情하러 간다고 하여, 나 또한 쫓아갔다. 그 배에는 14인이 타고 있었고, 오직 施洪量 한사람만이 거칠게나마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유창하지 못하였다. 오직 官話語錄만 가지고는 鎭吏가 問情을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筆談을 주고받으며, 이로부터 연일 왕래하면서, 자못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玄洲漫錄)

**교류** 중국인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贈言施洪量」 전달. 중국인 시홍량이 이강희에 金銀錢(주화) 선물. 중국배가 떠날 때 이별의 시를 지어전달함. 중국 배를 직접 관찰하고, 「玄洲漫錄」 집필.

표류 후 생존 한 사람의 기록에 집중된 연구  
국내로 표도 한 사람과의 문화 접촉 분야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



#### IV.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 표류기록을 통해 각국의 항구문화 주목
- 표류기록을 통해 각국의 항구양상
- 동시대의 각국 사회상 차이, 항구문화에 투영
- 각국의 사회상과 외부와의 소통 상황 분석



#### 동아시아 항구와 관련 된 해양문화 연구에 활용

- 문순득 표류기록관련 19세기 초 아시아의 항구 양상

구분	항구명	상황
조선	우이도 진리, 영암 도포	조선 내 무역활동
琉球	大島 笠利港과 宇檢港, 那覇 泊村港	일본과 중국, 필리핀 등과 국제 무역 활동
필리핀	Salomague, puerto port	스페인, 중국 등 무역선이 왕래하는 국제항
중국	澳門港	포르투갈이 개척한 국제항

표류, 해류, 해로는 곧 아시아 국가의 항구를 주목할 수 있는 단서

#### IV. 표류 연구의 전망과 과제

- 앞으로 표류 연구 방향 제언



표류계기, 송환선의 특혜, 귀환 과정에서 무역 상황  
표류인을 연결하는 거점은 당대 각국의 항구  
근세사 중심에서 표류기록에 담긴 근대 인식 변화

**국가 경계를 넘어선 해양사 연구 활성화**  
**섬과 어촌마을의 인문환경 연구**  
**육지 중심의 문명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

끝.



발표 8

**물고기, 상상, 생명**  
**-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미래 -**

김문기  
부경대학교





## 전체목차

I. 화생과 변신: 화생설, 물고기의 상상

II. 박물관의 시대: 魚譜와 魚類學

III. 수산학의 근대: 수산지식과 제국주의

IV. 멸종의 시대: 남획, 오염, 온난화

V. 化生과 共生: 자원에서 생명으로



# 化生과 變身: 化生說, 물고기의 상상



## 聶璜 海錯圖 1698

- 설황: 절강 전당 출신. 생몰연대 분명치 않음
- 海錯圖 전체 4책(1-3책 고궁박물관, 4책 대안고궁박물관)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수, 양서류, 극피동물, 해초, 해조, 소금, 산호, 광물 등 포함
- 그림 총 155점, 광물 포함 해양생물 368종
- 가오리 8종, 상어 17종





# 海虎鯊

鯊變虎 虎變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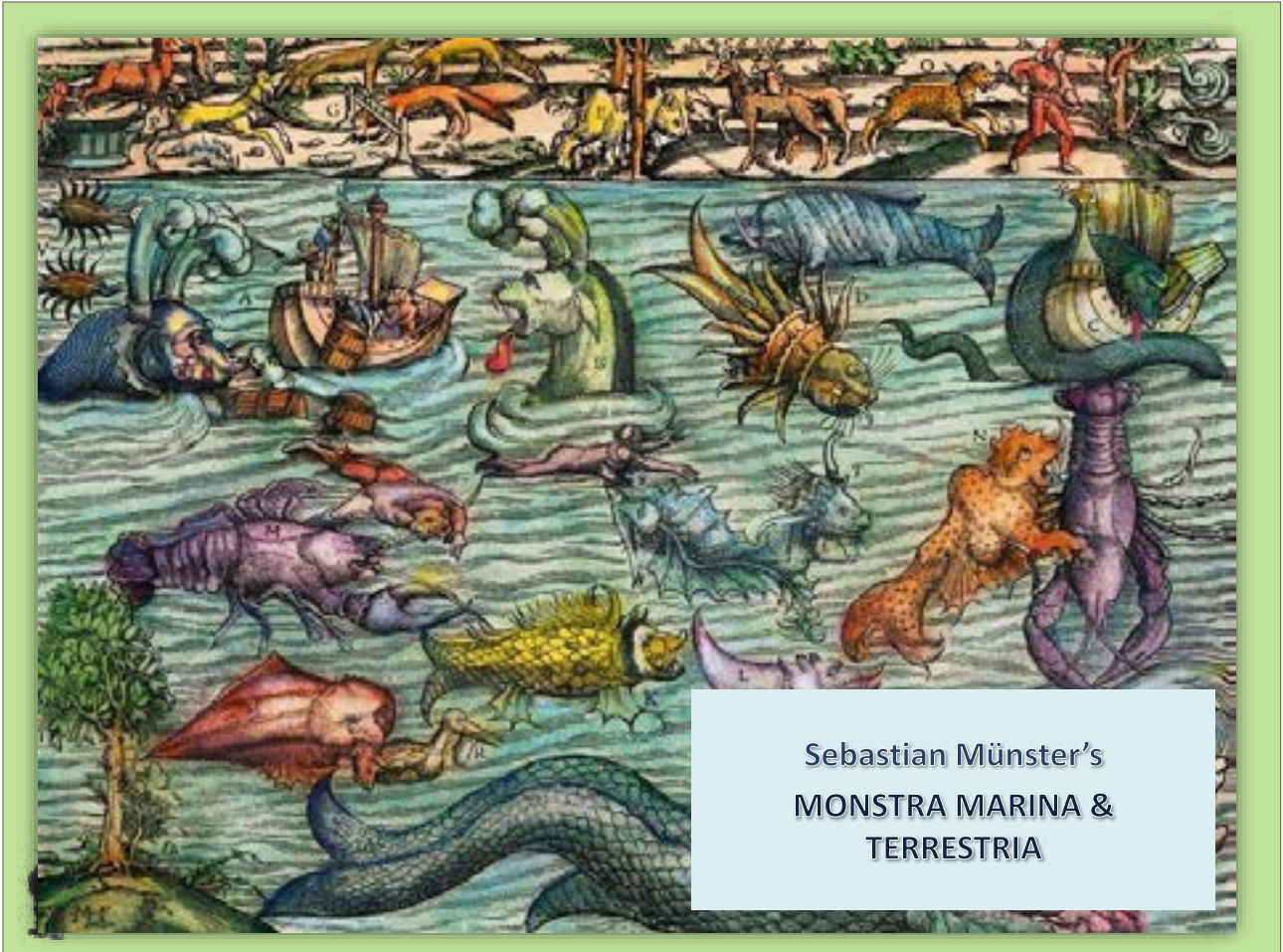


# 野鴨

鴨化石首 石首化鴨

# 石首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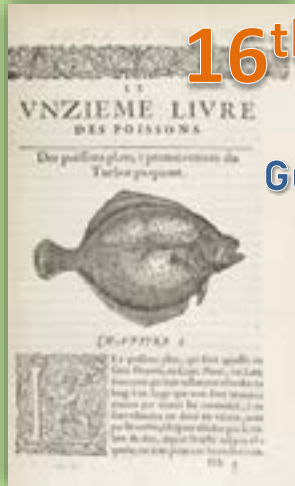
Sebastian Münster's  
MONSTRA MARINA &  
TERRESTRIA

## 박물학의 시대: 어보(魚譜)와 어류학(魚類學)



# 어류학 (Ichthyology)의 중대 전환 시기?

## 16<sup>th</sup>, 17<sup>th</sup> Century



Guillaume Rondelet  
1507-1566

Pierre Belon  
1517-1564

Hippolito Salviani  
1514-1572



국 가	중 국	일 본	한 국
서 명	圖中海錯疏	日東魚譜	牛海異魚譜
저 자	屠本峻 1573-1620	神田玄泉 1670-1746	金 祖 1766-1822
편찬시기	1596	1719 (1751, 1756, 1741)	1803
구성내용	전3권 부록. 권상: 권상, 海部(160종) 권하: 介部(90종) 부록: 海部池高(非國土産)	魚類圖譜, 3차례 개정 1719년간: 7권, 544종 1751년간: 4권, 312종	1冊, 총 104종 (어류 82종, 갑각류 8종, 패류 14종)
비 고	동아시아 최초의 어보	『민중해학소』 123년 후	『민중해학소』 207년 후 『일동어보』 84년 후





Guillaume Rondelet  
1507-1566

*L'histoire entière des poisons, 1558*



烏賊魚  
墨魚



# 茲山魚譜

1814

혹은 烏騾이 변화한 것이라고  
도 하고, 혹은 寒鳥가 변화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모두 실  
제로 목격한 바가 아니어서  
상세하지 않다.



故名烏騾者則也據此諸說或言其袋之所變或言  
鱉水而為鳥所害或言伴死而攫為以食或言鳥鵝之  
所化或言寒鳥之所變俱未有實見不可許也余謂為  
賊者猶言黑漢以其棟墨紋名也復仍加魚作鰐賊人  
者作鰐亦作賊或偽竹蠟非有他義也

鳥賊魚 大者徑一尺許體圓頭小而圓頰下細頰頭



然

僧東樾 毛短而細色黃為別○曷大曰嘗見一毬蛤口  
中出為頭鬚已成頭欲生毛如苔疑其已死而觸之乃  
能動搖如平日雖不見其殼中之狀要是化為青雀者  
也人言此物化為鳥俗所謂栗毬鳥者是也今驗之果



말뚝성게



창대가 말하였다. “일찍이 한 마리의 毬  
蛤의 입에서 새가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새는 머리와 부리가 이미 이뤄졌  
고 이끼 같은 털이 나려 했습니다. ... 사람  
들은 이놈이 새로 변화한다고 했는데, 민  
간에서 말하는 栗毬鳥가 이것입니다. 이제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러 했습니다.”



# 수산학의 근대: 수산지식과 제국주의



水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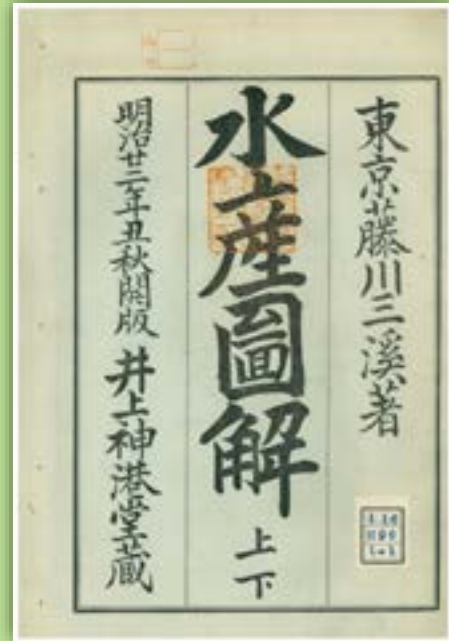
- 1882년 大日本水産會
- 1883년 제1회 水産博覽會
- 1887년 大日本水産學校
- 1889년 水産傳習所



## 水産圖解(1889)

### 후지사 와 산케이 藤川三溪

- 다카마츠(高松)의 藩士, 의사
- 유신 이후, 도쿄에 大日本水産學校, 오사카에 大阪水産學校 창립
- 근대 일본 수산발달에 선구적 역할
- 水産圖解: 상권 河魚 81종, 海魚 157종, 도합 238종, 하권 海獸 18종, 介貝類 168종, 蟹類 24종, 도합 210종
- 메이지 시대의 수산생물도감



### 세키자와 아케기요 關澤清明



- 막달 大村益次郎에게 蘭学·航海術 사사
- 빈 만국박람회,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 참가
- 일본에 유럽 수산학, 기술 도입(미국 포경, 연어 송아, 인공부화, 통조림제조법)
- 1883년 제1회 水産博覽會 기획, 입안
- 1889년 水産講習所(후에 水産講習所, 東京水産大學, 東京海洋大學의 전신) 초대 소장
- 1893년 '朝鮮通漁事情'(關澤清明, 竹中邦善)



## 韓國水産志(1908-11)

序  
水産水之所産産之無盡如水之無  
盡也古者論國之富首舉川澤之利  
川澤猶生况幾千萬倍之海乎海錯  
之産採收之勞費甚鈔而商販之需  
用極多此其所以為富國之無盡藏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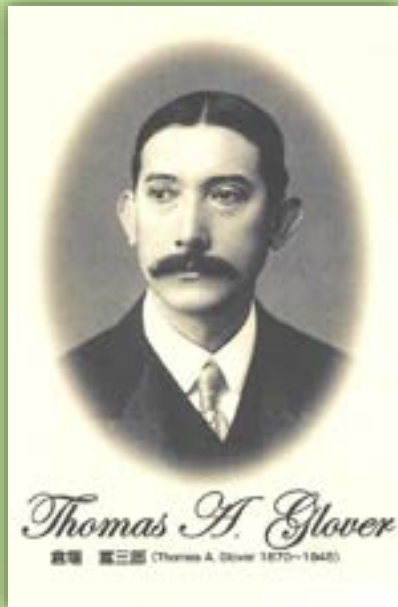
## 근대 수산업 발전의 요소

1 어로기술: 트롤어선의 동력화

2 저장가공: 냉동기술 발전

3 유통판매: 철도, 해운 통한 국제 유통망

## 어로기술: 트롤어선 동력화



- 1895년 석유발동기선 시운전
- 1904년 일본 최초 트롤어선 海光丸 시운전(1908년 소각사건)
- 1906년 석유발동기선 富士丸 건조, 일본 어선 동력화 시작
- 1908년 나가사키 구로바 토미사부모(倉場重三郎), 영국에서 강철기선 深江丸 구입, 일본에서 본격적인 트롤 어업 시작
- 1909년 기선 트롤어업 取締規則 제정(조선연안으로 이동)
- 1913년 트롤어업 금지구역 확대(北海道, 對馬島, 朝鮮沿岸)



## 저장가공: 냉동기술 발전



부산수산주식회사  
 釜山製氷所  
 1920년대

- 1903년 大阪 제5회 内國勸業博覽會(영국 현대 냉장 회사의 제빙, 냉장기 전시)
- 1910년 3월 부산에 製氷冷蔵庫 준공(1908년 釜山水産會社 제빙공장 건설 계획)
- 1923년 일본 水産冷蔵獎勵規則 공포



## 유통판매: 철도, 해운 국제유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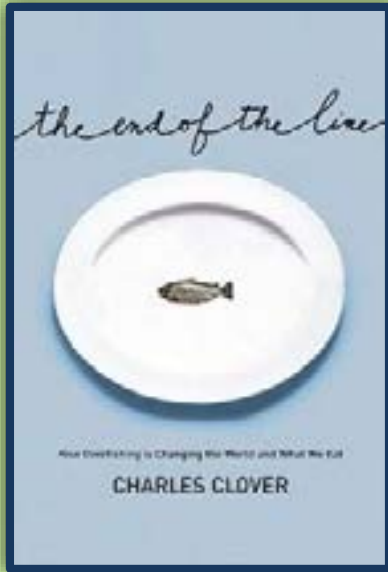
釜山驛 釜山稅關

1910년경

- 1848년 함버강 하구 그림스비 항구-런던 철도 연결
- 1899년 경인선(제물포-노량진) 개통
- 1903년 哈大線(하얼빈-대련) 완성
- 1905년 경부선(서울-조양, 1901-1901) 개통
- 1906년 경의선(서울-신의주) 개통
- 1911년 압록강 철교, 1912년 부산-長春 직통급행열차

## 멸종의 시대: 남획, 오염, 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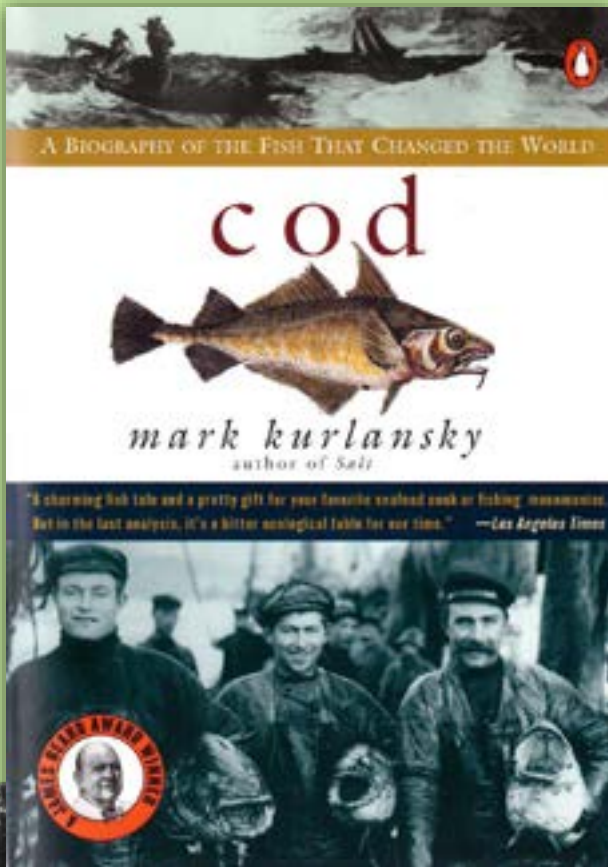




CHARLES CLOVER  
The End of the Line: How Overfishing Is  
Changing the World and What We Eat  
2006



찰스 클로버  
텅 빈 바다  
2013



MARK KURLANSKY  
Cod: A Biography of the Fish  
That Changed the World [1997]



2014

- 1948년 뉴펀들랜드, 캐나다 열 번째 주
- 1992년 7월 그랜드 뱅크 대구어족 조업 금지
- 1994년 조업시간 연장, 대서양대구 조업 전면 중단
- 21세기 들어서도 대구 개체군 회복되지 않음
- 캐나다산 대구, 상업적으로 멸종 상태

## 水産 無盡藏의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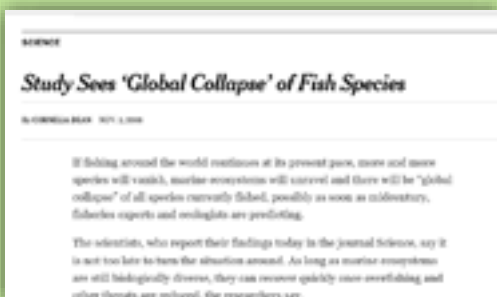


알의 부화나 각각의 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이면 대구가 바다를 가득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밭을 전혀 적시지 않고 대구의 등을 밝으면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뒤마, 요리 백과사전(1873)]

- 안톤 레벤후크(1632-1723) 현미경 대구 알 헤아림: 938만 4천 개
- 토머스 헨리 학슬리(1825-95) 생존에 대한 다윈의 진화론이 물고기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 증명한다고 인식
- 1883년 런던 국제 어업박람회 학슬리 "현재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수단 때문에 물고기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無盡藏 신화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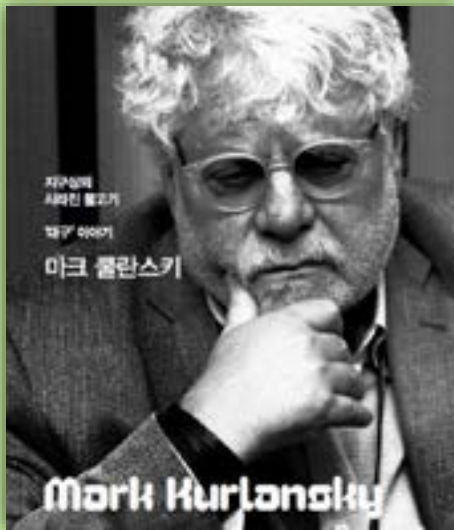
알의 부화나 각각의 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이면 대구가 바다를 가득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밭을 전혀 적시지 않고 대구의 등을 밝으면서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알렉산드르 뒤마, 요리 백과사전(1873)]



- 2006년 11월 New York Times, "Study Sees 'Global Collapse' of Fish Species"
- 2009년 8월 Science, "Rebuilding Global Fisheries"
- 2009년 10월 The New Republic, Daniel Pauly "Aquacalypse Now: The End of Fish"



## 물고기가 사라진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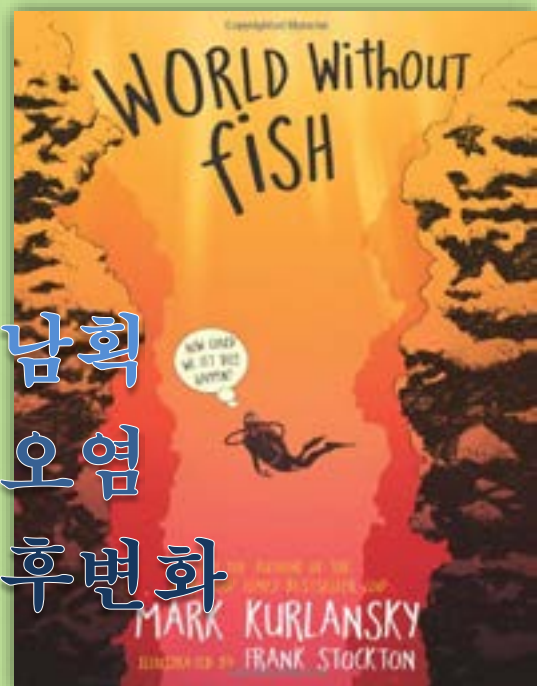
마크 쿨란스키  
물고기가 사라진 세상  
2012



그런데 전 세계의 바다를 죽이는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오늘날 곳곳에서 산호초가 죽어 가고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은 바로 남획, 오염, 기후변화에요.

남획과 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때문에 바다의 전체 생태계가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런 재앙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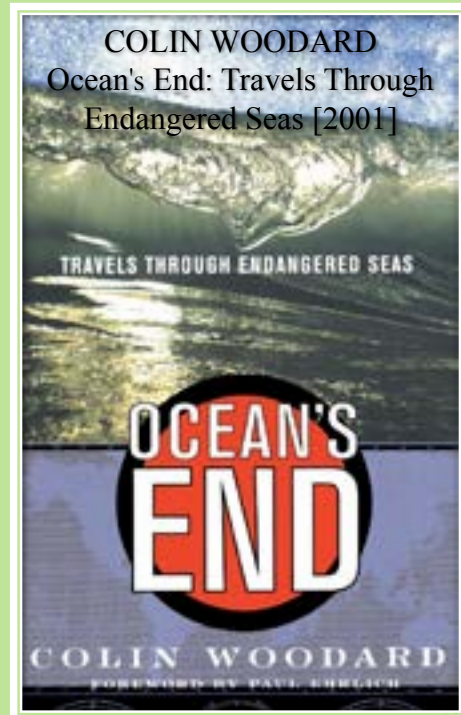
남획  
오염  
기후변화



## 남획의 위기



RAY HILBORN, ULRIKE HILBORN  
Overfishing: What Everyone Needs to Know [2012]



## 산업화 & 거대한 쓰레기장



## Plastic Island



##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오염된 바다  
오염된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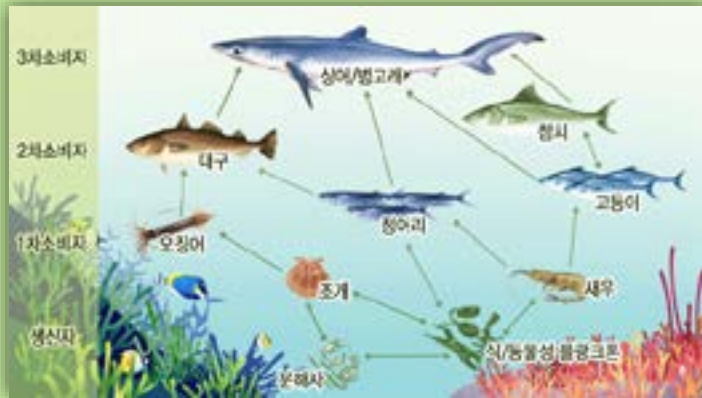
## 해양생태계 & 오염물질



수은 (Hg)  
크롬 (Cr)  
납 (Pb)  
폴리염화바이페닐 (PCB)  
방사능물질  
(세슘 등)



## 생명의 순환, 생명의 연쇄



## 생명의 연쇄 & 化生의 재해석

동물과 동물  
동물과 인간  
상호 변신



## 생명, 進化 & 循環

化生の  
망탈리테



羅廣庭 사건(1931)

化生에서 進化로



**蜃**  
雉入海爲蜃

**蜃氣樓**

상상 신비  
생명의 경외



化生の 재해석

水産 水産資源  
Sea Food  
?

우주를 구성하는  
공생의 생명으로









국립해양박물관



국민대학교